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초기 개신교 역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이 재 호

2022년 7월

제주 초기 개신교 역사 연구

지도교수 양정필

이 재 호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7월

이재호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7월

목 차

I. 서 론	1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사 검토.....	3
3. 연구 방법.....	11
II. 평양대부흥운동과 제주선교의 결정	15
III. 자주적 신앙공동체와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	28
1. 자주적 신앙공동체의 등장.....	28
2. 이기풍 목사의 입도와 선교활동.....	44
3. 윤식명 목사의 산남지역 선교활동.....	82
IV. 제주교회의 설립과 확산	89
1. 산북지방(성내·금성·삼양·한림교회).....	91
2. 산남지방(모슬포·용수·고산·법환교회).....	107
3. 정의(동)지방(성읍·조천·세화교회).....	121
V. 결 론	137

참고문헌

< 표 차례 >

<표 1> 제1회 독로회 대의원 명단.....	25
<표 2> 제주 교회 창립연대.....	58
<표 3> 소학교 학습 과정.....	62
<표 4> 1907년~1910년 제주도 학교 설립 현황.....	65
<표 5> 미국 남장로회 의료선교.....	66
<표 6> 초기 제주선교 현황.....	73
<표 7> 1912년의 제주도 선교사역.....	77
<표 8> 1917년까지 제주에 세워진 교회와 목회자.....	82
<표 9> 1920년 代 제주 행정도.....	90
<표 10> 성읍교회 순회일지(1914~1922).....	124
<표 11> 천아나가 이기풍 목사에게 기증한 조천리 2441번지 대지.....	127
<표 12> 조천교회 순회일지(1914~1922).....	129
<표 13> 세화교회 순회일지(1920~1922).....	132
<표 14> 초기 제주교회 신자들의 기부 일람.....	133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Early Protestantism in Jeju

Lee Jae Ho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mong the 114 years of Protestant histor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y of protoplasm from around 1900 until 1915 when Pastor Lee Ki-pung left Jeju after completing his first ministry, and five years after that, that is, the early 20 years of Protestantism.

Until now, the history of Jeju Protestantism has been under the umbrella of a huge discourse called the Korean church. Therefore, the activities of outside missionaries, including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Pastor Lee Ki-pung, who sent missionaries to Jeju Island, received great attention. On the other hand, missionary activities in which local residents of Jeju Island participated were not very illuminat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Jeju Church in a more three-dimensional manner by looking more closely at the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of local church members who led the early Jeju Church. In other words, by setting the subject of observation centered on Jeju locals, we intend to draw a conclus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approach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outsider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troduces Kim Jae-won of the Lee Ho-ri Faith Community, Cho Bong-ho of Geumseong-ri Faith Community, Bu Sang-gyu, who voluntarily visited and created Sehvari Faith Community, and Lee Sun-kwang and Kim Hong-ryeon, who did their best on land to help Lee Gi-pung. He also discovered and introduced the deeds and missionary activities of missionaries who

were not well known until now, such as Chen An-na, who donated his house to build Jocheon Church and Seongeup Church, and Kang Han-jun, who worked as a worker at a sugarcane farm in Hawaii for five years.

If you follow the footsteps of these early evangelists, you will be able to see the Jeju Church fluctuating in the harsh daily life of the Jeju people at that time and the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In fact, history is not a dull being listed only as meaningless facts, but a living organism whose joints are woven with unique rings of meaning. In that sense, it would be a very appropriate choice for us living in the 21st century to find out what meaningful rings Jeju Christianity today have been woven int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ctivities of early Christians by linking the "first history of the Jeju Church" that made today with the flow of faith.

According to Kim Ki-bong, who describes "Beyond What History Is," "History from the Bottom" refers to discovering the records of ordinary people or their collective memories hidden in the official history reconstructed by historians and restoring their histo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ocus on actively discovering characters in the early days of the Jeju Church, which have not been well known so far, and introducing their deeds and roles.

Now, Jeju has begun to move beyond just being a missionary site and establish itself in the Korean church. Jeju, which has continued to resist nationalistic and independent in the face of foreign invasion, once again participated in the giant national movement with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Jeju Christianity joined the national movement that was blowing in the Korean church. It was voluntary participation, not compulsory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sense of volunteering.

This was an inevitable step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pecial area called Jeju into an equal and equal position as a member of the Korean church. In that sense, from 1908 to 1920, when Protestantism was spread, it was a precious and meaningful period when the Jeju Church settled and took a leap forward.

Now, in-depth and systematic history organization work on the 100 years of Jeju missionary work is needed. 100 years of Jeju missionary work means 100 years of Korean missionary work. Organizing the past 114 years of history and planning the next 100 years of road is an important church task. Therefore, the subjec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Jeju Protestantism in the future should be interpreted and described at the level of Jeju locals who accepted the gospel, no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issionary or the center. This is because the history of missionary work requires listening to and recording the voices of numerous parties related to missionary activities together.

Key words/

Early Church of Jeju Island

Rev. Lee Ki-pung

Missionary

an autonomous community of faith

devotion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114여 년 전 제주는 변방의 섬, 절해고도(絶海孤島)의 땅이었다. 국내는 물론, 변화하는 세계와 거의 교류가 없었던 땅, 빼어난 풍광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다. 육지와 단절된 아픔의 한(恨)을 안고 가난과도 싸워야 했다. 더구나 1만 8천의 신(神)을 섬기는 ‘신(神)들의 고향’이라 일컫는 곳이었다.

그러나 1908년, 한국 개신교 최초의 목사 중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가 한국인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로 임명되어 이 땅 제주에 파송되었다. 그리하여 복음(福音)을 받은 제주교회는 지난 114년의 역사 속에 일제 치하의 압제와 고통, 민족이 겪은 여러 수난의 과정을 신앙의 힘과 불굴의 의지로 견디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다.

영적 토양이 척박한 이 땅에서, 굴욕적인 일제 치하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해방 후 겪게 된 우리 민족의 분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의 상황 속에서, 제주의 교회는 면면히 그 역사의 맥을 이어왔다.

20세기 초반, 개신교가 제주의 전통사회에 처음 발을 들였을 당시 문화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한국 땅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배타성과 토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그 영향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여 개신교는 제주도에서 결혼문제, 제사문제, 켄당문화를 비롯한 제주의 토착문화전통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벽 앞에 서 있다.

그런데 20세기 초, 이 외래종교는 일제 치하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주 전통사회와 협력하며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사회계몽운동을 펼쳐 나간 모습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제주가 자랑하는 순국지사 조봉호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료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적 사실이 많이 간과되고 있음을 심분 고려한다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세기 초반, 외래종교인 개신교는 제

주 전통사회와 만나고 교류하면서 갈등과 충돌만 한 것이 아니라 공존과 상호교류의 역사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14년의 개신교 역사 가운데 제주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발전했는지, 제주 사회와 어떻게 공존했는지에 대한 그 초기(1900년~1920년), 원형질(原形質)의 역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만큼 성장한 제주의 교회가 앞으로 펼쳐지는 또 한 세기를 희망의 100년으로 만들어 가는 꿈을 꾸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난 114년의 개신교 역사 가운데 신축교란(辛丑教難)이 일어나는 1900년 무렵부터 이기풍 목사가 1차 사역을 마치고 제주를 떠나는 1915년과 그 이후 5년까지, 즉 개신교 초기 20년의 역사를 관찰의 시야를 좁혀 제주도 교회사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그동안 제주 개신교의 역사는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거대 담론의 우산 아래 놓여있었다. 따라서 피 선교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장로교회와 이기풍 목사를 비롯한 외부 전도인들의 활동은 크게 주목받았다. 반면, 제주도 현지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선교활동은 그다지 조명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초기 제주도 교회를 이끌었던 현지 교인들의 경험과 관계들을 좀 더 밀착하여 들여다봄으로써, 제주교회의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관찰의 대상을 제주 현지인 중심으로 설정함으로 기존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았던 접근 방식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개신교의 초기 역사의 정착 과정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김재원, 금성리 신앙공동체의 조봉호, 자발적으로 이기풍 선교사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세화리신앙공동체를 만든 부상규,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를 돕기 위해 육지에서 동행하여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이선광, 김홍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땅의 토박이로서 조천교회와 성읍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집을 팔아 기부한 천아나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법환교회 건축비를 5년간 기부한 강한준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도인들의 행적과 선교활동을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초기 전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 제주민들의 고단한 일상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요동치는 제주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초기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주교회는 조금씩 성숙해졌으며, 우리나라 ‘최초 해외선교지’로 기록된 제주교회가 114여 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그 위상을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2. 선행연구사 검토

앞에서 주지한 대로 본 논문은 복음의 불모지 제주 땅에 처음 개신교가 전파된 1900년부터 이기풍 선교사가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이임하는 1915년과 그 이후 5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초기 제주도의 교회사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출판된 도서와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초기 제주도 교회사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초기 제주도 개신교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도서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개신교 역사를 다루는 통사(通史)들이다. 이 책들은 전체 내용 중에 제주도를 직접 소개하는 비중은 극히 적지만 제주도의 선교역사와 불가분(不可分)의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담고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제주 110여 년의 개신교 역사만 오롯이 담은 제주 개신교 통사(通史)가 그것이다.

포함하는 범위와 성격은 다르지만 두 부류 모두 “**제주도 선교는 한국교회에 의해 실행된 첫 번째 타 문화권 선교**”로서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같다. 제주는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결실로 시작된 선교지였다. 이렇게 시작된 제주선교가 114주년을 맞이하는 현재는 다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앞당기는 새로운 부흥과 선교의 원년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선교 100년은 곧 해외선교 100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통일성 있는 제주선교에 대한 통사작업이 필요하다.

제주도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노회, 평양신학교, 평양대부흥운동, 네비우스선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사의 흐름과 동향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제주기독교회사를 파악하기에 앞서 한국의 기독교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0년대 백낙준의 박사논문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1832-1919)*가 발표된 후, 한국 기독교회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세계 선교역사의 대가이며 백낙준의 지도교수였던 라투레트(K.S.Latourette, 1884-1968)는 이 책의 서문에 "서구적인 역사학도로서의 방법론의 수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비판에 고심 연마한 백낙준의 '한국개신교 선교사'와 같은 학문적인 저서는 다시 얻기 어려운 우수한 저서요, 한국에서 앞으로 한국개신교에 관해 저술하려든가, 연구를 할 사람들은, 반드시 백낙준의 저서를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다"¹⁾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

다. 하지만 이런 선교역사는 순전히 구미(歐美)교회 선교의 역사이며, 따라서 관심의 범위는 선교하는 교회의 활동사요. 그 사료는 대부분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의 교회와 인사들에게서 수집되고 있었다. 자료상으로는 정서적으로 한국교회 쪽의 고백과 증언이 고려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집필한 기독교 역사서들도 있는데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문서로 발간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하』가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은 1928년에 출간되었고 하권은 1930년에 교정이 완료되었지만 일제 강점기 경제적 어려움과 6·25라는 민족적 수난으로 인해 40년이 지난 1968년에야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초기 한국장로교 전체의 역사를 한글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광복 이후, 한국기독교회사의 가장 큰 족적을 남긴 학자는 민경배이다. 1972년에 발간한 『한국기독교회사』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독교 통사라 할 수 있다.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구체적인 증언,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민족이 한 운명공동체라는 공통분모를 내세워, ‘민족 교회론’이라는 독특한 사관과 ‘내연(內燃)과 외연(外延)’이라는 역사방법론으로 이 책을 기술했다.²⁾ 따라서 그의 책에는 한국교회의 역할과 민족적 사명감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후 1977년에 채기은, 1978년에 이영현이 통사를 발표했고, 이후, 1978년 전택부의 『한국교회발전사』, 송길섭의 『한국신학사상사』, 이만열의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가 발간되었다.

이만열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데, 1982년 그를 중심으로 이덕주 등 소장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기독교의 역사 1.2.3』이 차례로 출간되었다. 이만열은 이른바 실증주의적 연구의 확립을 주장했는데, 이들은 자료를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이들이 발간한 『한국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만열 등도, 민경배와 마찬가지로, ‘민족’을 축으로 해서 교회를 집필했다. 그러나 민경배와 달리 수용사적 입장에서 이를 기술했다. 항일민족주의 인식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회가 민족을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곧 교회의 민족적 공헌도를 그 척도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김인수의 『한국기독교회사』(1994)는 한국교회 통사의 일종이다. 역사를 쓸 때는 사

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9쪽.

2) 김명구, 『한국기독교사 1』(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9쪽.

관(史觀)을 갖고 쓰는데 한국교회사의 대표적인 사관은 백낙준의 선교사관(宣敎史觀), 그리고 민경배의 민족사관(民族史觀)을 꼽을 수 있다. 그에 비해 김인수의 사관은 섭리사관(攝理史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세상의 역사는 수많은 사관에 의해 쓰여질 수 있으나 교회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섭리와 구속의 사역을 조명하여 통전적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리사관에 의해 쓰여진 교회사가 가장 보편타당한 사관에 해당한다고 볼 때 김인수는 이 기준에 맞춰 통사를 정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교회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선별하여 일괄함으로써, 그 행방을 몰라 처음부터 사방팔방 수소문하는 노고를 덜어준, 훌륭한 문서자료집이다.

지역교회사로서의 인상적인 연구는 김수진과 한인수 공저의 『한국기독교교회사호남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발행인데, 총회가 지방 교회사 연구에 힘을 실어준다는 뜻일 것이다. 이 저서는 기왕의 한국교회가 황해도와 평안도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활동 일변도의 일방적인 역사라고 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에 매진하던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무명의 조사(助師), 전도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호남교회를 널리 알리고자”³⁾ 하는 취지에서 집필한 것이다.

같은 지역사 형태로 1987년, 전성천(全聖天)이 집필한 『한국영남교회사』,와 박정규가 1994년 30여 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들로 구성된 『대구 지방교회사』는 “지역 교회사로, 한국교회 통사(通史)의 작업 밑거름이 되리라는 자부심으로”⁴⁾ 쓴 글이었다. 지역교회 역사가 전국적인 교회사에 전개된다는 소신이 거기 있었다. 2001년에는 이상규의 『부산지방 기독교전래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부산지역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이 지역에 사는 교회사학도로서, 이 지역에서의 기독교의 연원과 역사를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쓰여진 저서이다.”⁵⁾

2002년 전순동이 집필한 『충북기독교 100년사』는 선교 100년을 맞이한 “충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북지역사 및 한국사의 주역이 되었고, 기독교 복음이 사회에 외연되어 지역사회 발전의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여”⁶⁾ 저술한 것이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2005년, 이찬영 편저의 『장연군 기독교 120년사』가 간행되었는데, 군(郡)단위의 교회사로서는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 장연(長淵)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나 서상륜 그리고 윌리엄 맥켄지, 한국교회 최초의 자생적 교회인 솔내

3) 김수진, 한인수, 『한국기독교교회사-호남편』,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79), 61쪽.

4) 박정규, 『대구지방교회사』,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13쪽.

5)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전래사』, (부산:글 마당 2001), 6쪽.

6) 전순동, 『충북기독교 100년사』,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2), 38쪽.

교회등 역사적 내력이 특별한 곳이어서, 그 역사 서술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발간은 실로 한국교회 첫 페이지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

한편 제주도 기독교사를 통사로 엮은 책들은 박용규의 『제주기독교회사』와 차종순의 『제주기독교 100년사』, 한인수의 『제주선교 백년사』 등이 있다.

먼저 제주 기독교 100주년에 맞춰 2008년에 간행된 박용규의 『제주기독교회사』는 방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충실하고자 애쓴 흔적이 뚜렷한 노작(勞作)이다. 이 책은 제주 기독교사 연구에 출발점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기독교사는 그 본질에서 '선교의 역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제주의 기독교사도 선교사(宣敎史)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박용규는 본서 저술에서 몇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곧 제주교회를 복음주의적(福音主義的)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과 그 신앙을 물려받은 제주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전통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제주교회의 부흥운동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는 것, 복음주의적 역사 해석을 시도하면서도 균형 있는 역사 해석을 기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원자료 들은 가능한 한 그대로 소개하려고 한 것 등이다.

저자는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 조선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부흥을 통해 제주를 약속의 땅, 1832년에 칼 귀츨라프 선교사가 꿈꾸었던 복음전파와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주는 언어, 문화, 관습에 이르기까지 타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다르다.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아직도 내면에 상당히 잠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선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출신의 목회자의 양성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보았으며 앞으로 제주가 한국교회 향후 100년의 선교역사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한다고 피력했다.⁸⁾

한인수의 『제주선교백년사(濟州宣敎百年史)』는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제주도 선교의 출발을 1907년 한국장로교회 독노회의 창립과 이기풍 선교사 파송으로 보고 있다. 김재원과 조봉호의 원주민 신앙공동체를 언급은 하고 있지만, 자생적인 교회로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한인수는 제주교회의 개척과 성장에 호남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호남교회를 형성하는 인물 중 제주도의

7) 이찬영, 『장연군 기독교 120년사』, (서울:장연군 기독교 120년사 간행위원회, 2005), 24쪽.

8)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08), 16~20쪽.

전도목사로 파송되어 활약한 경력을 갖고 있는 윤식명, 최대진, 김창국, 이경필, 이창규, 최홍중 목사와 제주선교의 개척자인 이기풍 목사 역시 1915년 1차 사역을 마치고 전라노회로 이명하여 동 노회에 소속되어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이다.⁹⁾

이 책은 『호남교회춘추』에 5년 반 동안 11회에 걸쳐 연재된 내용을 편집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저자는 제주도의 선교역사 자체에 집중하기 위하여 ‘천주교의 제주도 전래’와 ‘한국기독교의 초기사’도 간략히 전사(前史)와 몇 마디의 요약으로 마무리할 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개신교 역사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간 것은 여타 연구와 다를 바가 없지만, 복음의 불모지 제주선교를 위하여 호남교회와 전라노회의 헌신과 노력이 지대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수의 『제주선교백년사』는 특이하게도 제주도 교회를 제주 교회의 고백과 증언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육지인의 시각, 그중에서도 호남인의 시각으로 서술한 선교의 역사라고 보여진다.

『제주기독교 100년사』는 2009년 차중순이 집필하였으나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교정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초고를 대폭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¹⁰⁾

이 책은 제주 초기의 역사를 이기풍 목사의 입도 이전에 이미 제주 현지인들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제주기독교의 100년의 역사를 이기풍의 입도 시기인 1908년에서 2008년까지가 아니라 김재원에 의해 ‘이호리신앙공동체’가 시작된 1904년부터 2015년까지로 그 시기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편 태생적으로 이 책 서술의 주체가 예수교장로회 통합 측과 한국기독교장로회이다 보니 역사 기술의 대상 역시 예장 측 제주노회와 그 산하 교회 중심으로만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관심의 테두리나 사료의 대부분이 선교사를 파송한 통합 측 장로교회와 인사들에게서 수집되었다고 하는 일방성을 가진다. 이것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제주의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함께 만들자고 한 본래의 취지와 배치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서성환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제주도의 선교 역사(宣敎歷史)를 다룬 책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제주 교회와 제주사회 사이에 발생한 비 선교적 균열

9) 한인수, 『제주선교백년사(濟州宣敎百年史)』, (서울:도서출판 경진, 2009), 6~7쪽.

10) 차중순, 『제주기독교 100년사』, (서울:쿰란출판사, 2016), 10~11쪽.

현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시각의 지평을 넓혀 다른 종교들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개신교 선교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몇 가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통하여 지적한다.

먼저 “왜 제주는 낮은 복음화율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주 선교의 과거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시도하였고, 제주에 공존하는 타 종교들의 과거와 현실도 비교하면서 선교정책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제주선교 100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앞으로의 제주선교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논제와 관점의 해석, 그리고 미래 선교를 위해 제안한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¹¹⁾

서성환은 기존 한국교회의 선교가 내부적으로는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점을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하면서 교회의 역사적, 사회적 책임의식이 선교에 매우 중요한 태도임을 제시한다.

연구논문

서정민은 연구논문인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에서 이기풍의 ‘선교사’ 호칭을 들어 제주도 선교의 의미를 찾고 있다. 1907년에 열린 제1회 독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 가운데 제주로 파송된 이기풍에게만 유일하게 ‘선교사’라는 명칭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제주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의 형식을 취한 데에는 그 자체로서, 이미 다른 지역의 개척전도와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²⁾ 이처럼 이기풍의 선교사 파송은 한국교회가 지닌 자발적 선교의지의 상징적 표상으로 거론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이 초창기부터의 남다른 특성을 지닌 제주도 기독교사에 중점을 두어 ‘선교’보다는 ‘수용’, ‘씨앗’ 보다는 ‘토양’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민은 광복 후의 좌익과 우익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극심한 고난과 격동의 세월을 마주한 제주의 독특한 환경과 기독교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제주에서의 기독교’, ‘기독교사에서의 제주’라는 관계적 의미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구하고자 했다.

11) 서성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13~31쪽.

12)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제28권, 2000, 176쪽.

박정환의 논문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1904~1930」는 1908년 이기풍 선교사에 의한 공식적인 선교에 앞서 김재원의 이호리 신앙공동체와 조봉호의 금성리 신앙공동체 등 제주도에서 발생한 자생적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제주 개신교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밀도 있게 연구하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 제주의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여 쓸고 닦고 광을 내어 마침내 새로운 눈높이에서 해석하고자 분투하였다. 박정환은 1904년부터 1930년까지의 시기를 제주도 교회사의 원형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1904년은 제주도에서 김재원이 자발적으로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던 시기이다. 이 ‘이호리신앙공동체’가 성장하면서 한국장로교회에 선교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독노회에서 이기풍 목사를 제주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논문 251쪽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같이 동일한 논문에서 모순되는 내용이 발견된 것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규명(緝明)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교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기풍 목사의 입도(入島) 전에 제주도에 자주적인 공동체 시작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여겼으며, 그 신뢰성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재원 가문에서 김재원 장로가 조선에 수교장로회 독노회에 제주도 선교를 강력하게 요청함으로써 노회가 이기풍 목사를 파송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¹³⁾

또 한 가지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핵심 인물인 김재원의 행적에 관한 것이다. 김재원이 서울 제중원에서 치료받고 회심하여 제주로 돌아와 활발하게 전도사역에 매진했다는 내용은 소상히 밝혀졌지만 정작 김재원의 활동 근거지가 되는 이호리의 생가, 신앙공동체의 장소 등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김재원이 말년에 고향 제주를 떠나 광주로 이주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배경, 사유 등에 관해서는 연구가 단절된 것 같이 보여 앞으로 꾸준한 연구가 요망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교회사를 서술하기 위하여 제주 현지인 시각으로 해석한 연구방법론은 제주 교회사 연구에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된다.

변창욱은 한국장로교 독노회에서 추진한 1907년 제주도 선교가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해외선교의 시작이라고 보았으며 제주도 선교는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결과

13)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1904~1930」,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51~255쪽.

로 표출된 선교행전의 시발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초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제주도 선교에 임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제주 선교는 처음부터 외국 자본이나 몇몇 교인에게 의지한 것이 아닌 교회 전체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선교비 일체를 감당하는 자립선교를 이루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변창욱은 제주 선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907년 당시 이기풍을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의 조력자로 이선광을 함께 파송했는데 이것을 ‘**여성을 위한 여성 사역**’의 효시로 보았다.¹⁴⁾

고민희의 논문은 먼저 제주도에 개신교가 전파되었던 초기 교회 형성과정을 다루고, 제주 출신 최초의 목사요 순교자인 인물 이도종의 삶과 행적을 바탕으로, 제주 현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제주교회의 실체에 관해 탐구하였다.

고민희는 제주교회의 역사가 어느덧 110년을 넘어섰음에도 제주 현지인들이 제주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은 이기풍 목사의 초기 선교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고민희는 지금까지 제주 개신교의 역사에서 이기풍 목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제주의 교회들을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의 노고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거나 무시되지 않았는지를 성찰했다.

지금까지의 제주도 교회사 연구는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라는 큰 줄기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교회를 제주인의 시각이 아닌 한국선교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런 틀 안에서 제주교회를 해석하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지역 교회사를 넘어 선교역사와 어떤 대상이라는 대상성만을 부여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노출했다. 따라서 고민희는 향후 제주 교회사의 올바른 정립과 이해를 위해서라도 제주가 중심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⁵⁾

이상과 같이 제주도 초기 개신교의 역사를 연구한 도서와 논문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하나 같이 제주교회를 주제로, 제주인의 관점에서 취급하는 제주 교회사의 서술 방법이 따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관에서 비로소 제주교회의 체험과 삶의 현상이 혈맥처럼 파동 쳐 올 것이다.

14)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 『선교와 신학(제19집)』(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7), 16~23쪽,

15)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 활동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2), 9쪽.

또한 제주선교 100년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역사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주지 하듯이 제주선교 100년은 곧 한국선교 100년을 의미한다. 지나간 114년의 역사를 정리 하고 향후 100년의 노정(路程)을 계획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교회의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전개되는 제주 개신교 역사 해석의 주체는 선교사나 중앙의 시각 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인 제주 현지인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서술되어야 한다. 선교의 역사는 선교활동과 관련 있는 수많은 당사자의 소리를 함께 듣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¹⁶⁾

사실 역사란 의미 없는 사실만으로 나열된 무미건조한 존재가 아니라 마디마디가 특 특한 의미의 고리들로 엮어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주도 개신교가 어떤 의미의 고리들로 엮어져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오늘을 있게 한 ‘제주 교회의 처음 역사’와 신앙의 흐름을 연 관시켜 초기 기독교인들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기풍 목사가 개척한 성내교회, 조천교회, 삼양교회 성읍교회, 법환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노력과 헌 신을 기울인 인물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제주 개신교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어 시대마다 어떻게 엮어지고 이어져 왔는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숨은 공로자들의 노 고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천교회의 첫 열매로 알려진 ‘천아나’는 아이 를 못나 두 번이나 소박을 당한 불행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57세에 이기풍 목사를 만나 신앙의 사람이 되고 자택을 헌납하여 조천교회의 모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천아나는 성읍교회와 법환교회의 창립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 은 제주 교회 초기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의 행적과 역할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를 서술한 김기봉에 의하면, “아래로부터의 역사”란 소위 역사가들이 재구성하는 공식적인 역사에 가려진 보통사람들의 기록 내지는 그들의 집단 기억을 발굴해서 그들의 역사를 되찾아주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의 경우 역사적 과정에 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집단으로서 소외와 고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곧 이 집단 경험을 그들 고유의 문화적 방식에 따라서 기억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역사를 보 존하였다. “위로부터의 역사” 즉 공식적인 역사가 현지인들에게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

16) 김영동, 「제주선교의 역사적 고찰 :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제주선교포럼자료집(제2회)』 (2011년 10월 5일), 5쪽.

서 그 역사적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망각으로서의 역사”라는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실재하면서 개인의 기억이나 기록을 매개로 보존되고 회자되는데, 바로 이런 구전 자료를 가능한 한 채록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한다.¹⁷⁾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주 개신교의 초기 형성과정의 배경이 되었던 신축교란이 일어난 1900년 초반부터 제주 개신교 신앙공동체의 인물인 김재원과 조봉호, 그리고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기풍 목사가 이입하는 1915년과 그 후 5년까지의 기간을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먼저 초기 제주 개신교의 역사를 장식하는 주인공들이 제주교회 형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그다음은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의 1915년까지의 활동과 그 이후 1920년까지의 제주 선교의 역사를 고찰해 볼 것이다. 연구 방법은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의 문헌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인물들과의 전화나 대담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차 사료인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 하권>, <독노회록>, <제주 동지방회 및 제직회의록(1914~1926)>과 이제까지 관심을 두지 못했던 향토지, 개교회 당회록, 녹취록 등을 가능한 한 수집 검토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난 제주교회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거나 전해 들은 개개인의 구술사를 채집함으로써 20세기 초반, 개신교를 이 땅에 뿌리 내린 신자들의 숨은 이야기와 그들이 초기 제주교회와 전통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술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첫째, 제주 교회사를 조망하는 데 있어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복음주의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영미에서 강하게 일고 있던 근대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 파송 받은 미국의 남 장로교회, 북 장로교회, 캐나다장로회, 호주 장로교회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개혁과 복음주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었고, 감리교 선교사들과 구세군 선교사들 역시 웨슬리안 복음주의 정신 속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파송된 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근대

17) <증언채록: 1914~1960까지 조천교회>, 증언자: 홍순희, 박동찬, 김금녀, 김은선.

복음주의 전통은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의 한국인 최초 목사들에게도 계승되었다. 한국교회가 어느 나라,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이 전 역사 속에서 뚜렷한 축을 형성하며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선교가 시작된 이래 복음전파,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복음의 대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책임은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였다.

둘째, 자연히 제주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과 그 신앙을 계승한 제주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전통을 소중하게 다루고자 한다.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그들이 사용한 선교 정책, 그리고 1900년대 제주교회가 형성되기까지의 도전과 응전은 이와 같은 신앙적 신학적 전통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셋째, 제주교회가 태동하는데 배경이 되는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위험성이 있지만 이 사건이 제주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이 운동이 이전의 한국교회와 이후의 한국교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890년 채택된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된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연합운동, 교회성장, 사회개혁, 민족복음화운동, 그리고 해외선교로 이어지면서 이후 제주교회 생명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넷째, 서술과정에서 제주 땅에 교회가 파종되는 시기는 헤이그밀사사건과 정미 7조약 등으로 인한 국운이 기우는 풍전등화의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그 당시 교회가 직면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구한말 조선을 침탈하고자 하는 열강들의 대립과 경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의 식민지배, 남북의 분단, 6·25전쟁은 때로는 교회의 존립까지 위협할 만큼 중요했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과 교회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관찰의 시기와 규모를 축소하여 제주도 교회사에 미시적(微視的)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동안 제주 개신교의 역사는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거대 담론의 우산 아래 놓여있었다. 따라서 피선교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장로교회와 중앙의 전도인들의 활동은 크게 부각되었다. 반면에 제주도 현지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선교활동은 그다지 조명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초기 제주도 교회를 이끌었던 현지교인들의 경험과 관계들을 가까이 들여다봄으로써, 제주도 교회의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하여 한국교회사 맥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록과 통계를 찾는데 1차 자료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백여 년 전의 제주 개신교’를 분석하는데 있어 더 없이 소중한 자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기』 같은 중요한 원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가능한 한 원문을 본문에 삽입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 다만 1차 자료만으로 정보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2 자료들이나 구술 등을 다양하게 수집해 활용하고자 한다.

II. 평양대부흥운동과 제주선교의 결정

1884년 알렌에 의한 한국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후 1908년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에 파송되기 전까지 약 25년은 제주선교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제주선교를 위한 준비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가 천주교의 선교였고, 둘째가 한국 개신교의 준비였으며, 셋째는 평양대부흥운동이었고, 넷째는 독노회 조직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에 일어난 이 네 가지 준비 작업은 제주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제주의 천주교 선교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별화를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한국 선교는 장차 제주선교를 가능케 한 분위기를, 평양대부흥운동은 가장 중요한 제주선교의 영적 동력을, 그리고 1907년 독노회의 결성은 제주선교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것을 교회 본연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다.¹⁸⁾

1. 제주 선교를 위한 움직임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의 제주 입도는 1908년이지만 한국 개신교 안에 제주 선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1년 평양의 장로교회는 6명의 선교사와 9명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북방의 모든 미전도 지역에 전도자를 파송”하기로 뜻을 모았다.¹⁹⁾ 사실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02년에는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회와 논의를 했다. 그 결과 만주로 처음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²⁰⁾ 1905년에는 장로교공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복음전도 사역을 담당할 선교위원회를 결성하여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를 위

18)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08), 94쪽.

19)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생명의 말씀사, 2008), 121쪽.

20) 장로회 공의회 회의록(1901), 15쪽.

한 준비를 시작했다.²¹⁾ 이런 가운데 평양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해외선교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기풍의 제주 파송이 해외선교 정책의 일환으로 파송된 것을 고려 할 때 그 준비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베어드의 제주선교(William Martyn Baird :배위량, 1862~1931)

한편 무엇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주선교 준비는 1890년 개신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가 부산을 거점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891년 1월에 내한한 베어드는 부산(1891~5), 대구(1895~6), 서울(1896~7), 그리고 평양(1897~1931) 지방에서 활동했던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부산지부와 대구지부를 개척하였고, 평양에 숭실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국교회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선교사였다. 특히 그는 부산지부를 개척하며 부산에 주재했던 최초의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동일한 시기 부산에서 일했던 호주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초기 부산과 경남지방기독교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베어드는 1891년 9월 초 부산으로 이주하여 1895년 12월 대구지부로 이동하기까지 4년간 부산에 체류했는데, 부산 체재 기간인 1892년 5월 18일부터 1895년 4월 27일까지 약 3년간 일기를 썼다.²²⁾ 또한 일기를 바탕으로 본인이 체험한 선교여행의 일정을 미국에 있는 형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²³⁾

이 일기는 순회선교여행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인 조력자들과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했던 4차례의 선교여행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 역시 기록으로 남겨 후대의 사료가 되게 하고자 했던 의도로 생각된다.

부산에 정착한 베어드는 자신의 선교사역을 4가지로 구상했다. **첫째**, 기독교 신자 가정을 찾아 이들을 보호, 후원한다. **둘째**, 사랑방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의 접촉과 유대를 강화한다. **셋째**, 성경과 기독교 문서의 보급을 통해 복음 전파와 문맹퇴치운동을 병행한다. **넷째**, 경상도 지역의 순회전도여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하며 한국인의 생활과 정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상의 4가지 영역 중에서 지역 답사를 위한 순회전도여행이 베어드가 가장 중시했던 영역이었다. 이것은 초기 개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런 관심이었을 것이다. 베어드가 반드시 이상의 4가지 원칙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광의적으로 볼 때 그의 선교활동은 이런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21) Charles Allen Clark,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 (서울: 기독교서회, 1993), 181쪽.

22) 이상규, 『숭실설립자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일기』 (서울: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174쪽.

23) 김용진 옮김, 『윌리엄 베어드 편지1(1885~1897)』 (서울: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순회전도

초기 개척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순회 전도는 가장 주요한 선교방식이었다. 베어드에게 있어서도 이 점은 동일했다. 베어드는 순회전도여행을 “**현지 탐사와 전도여행**”(exploratory and evangelistic journey)이라고 불렀듯이 선교대상 지역을 답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베어드가 부산에 체류하면서 네 차례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첫 번째 여행은 1892년 5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때 서상륜과 박재용이 동행하였다. 이때 이들은 김해, 진해, 창원 마산을 거쳐 고성, 통영지방까지 답사하였다.

베어드의 제2차 여행은 1893년 4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상도 북부지방을 순회하는 약 1,200리, 400마일의 여정이었다. 3차 전도여행은 1893년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육로여행이었다. 제4차 전도여행은 1894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빈 의사와 고서방과 마부가 동행했는데, 부산에서 울산, 울산을 거쳐 경주를 방문하고 다시 울산, 남창, 기장을 지나 부산으로 돌아오는 여행이었다. 이상과 같은 여행 기록이 그의 일기와 편지 속에 수록되어 있다.²⁴⁾

이처럼 1891년 부산에 거점을 마련하고 맹렬하게 복음을 전하던 베어드의 열정이 제주까지 이어졌는데 **해리 로즈**(Harry A. Rhodes, :노해리)에 의하면 “베어드 씨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길가에서 전도했고 항구에서 선원들에게 전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제주도까지 전해졌다.”²⁵⁾고 증언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파송되기 전부터 북장로회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를 통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이다.

알렉산더 피터스의 제주선교(Alexander A. Pieters: 彼得, 1871~1958)

그 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제주도를 방문한 인물은 ‘**알렉산더 피터스**²⁶⁾와 **알렉산더 켄뮤어**(Alexander Kenmure)’이다. 또한 개신교 선교사 최초로 ‘**제주도 여행기**’를 쓴 사람도 피터스 선교사이다. 특히 피터스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성경을 번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24)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8), 122쪽. 이와 같은 순회전도 결과 부산지역의 개척자 베어드는 경상도,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공주 지역에까지 순회전도를 실시해 이들 지역에 선교부가 설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5) 해리로즈, 최재건 옮김, 『미국북장로교 한국선교회사1, (1884-1934)』,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2013), 129쪽.

26) 1871년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한 피터스 선교사는 본명이 이삭 프룸킨(Itzhak Frumkin)이다. 그는 1895년 4월 일본에서 피터스(Albertus Pieters)로부터 세례를 받고 개명했다.

그들은 1899년 2월 18일 증기선 창룡호를 타고 제물포를 출발해 군산과 목포를 거쳐 2월 23일 제주에 도착했다. 1898년 대영성서공회 부총무로 임명받은 피터스는 대영성서공회의 권서사업(Field Work)²⁷⁾을 맡아 ‘매서전도인’으로 활동했다. 그가 제주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주도를 여행한 소감을 “제주도 방문”(A Visit to Quelpart)이란 기행문으로 남겼다.²⁸⁾

1899년 코리아 리포지터리(The Korea Repository)²⁹⁾에 수록된 그의 제주도 기행문에는 제주도의 풍물과 지리적 중요성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그는 제주도 기행문을 이렇게 시작했다.

(서구에 알려진) 켈파트 섬 또는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박사가 한국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그 섬을 두고 '한국의 시칠리아'라고 부른 곳, 제주도는 한국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본토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다.³⁰⁾.... 섬은 사방에 해안가로부터 중심을 향해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엔, 오클랜드 산, 즉 한라산이 우뚝 서 있다.³¹⁾

그는 기행문에서 제주 성에서 대정현으로, 대정현에서 정의현으로 그리고 정의현에서 제주 성으로 돌아오는 전 과정을 도보로 여행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고통스럽게, 때로는 유머러스한 필치로 묘사했다. 특히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아마존 여성에 비유한 것과 상대적으로 무능한 남성들에 대한 평가가 눈길을 끈다. 그중에서 물구덕을 통한 여성에 대한 묘사가 재미있다. “제주 여성들이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바구니(물구덕) 안에 넣고 다니는데 그 바구니(물구덕)는 양 어깨에 끈을 둘러 등에 짊어진 후 운반된다. 나는 조선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본토에서 여성들이 등에 무언가를 지고 운반한다는 것은 매우 불쌍사나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있었던 조선인들이 말하기를, 만일 본토에서 남자가 그의 부인에게 그렇게 시킨다면, 그는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라 했다. 켈파트 섬의 여성들은 조선의 아마존 인들이라 불릴지도 모른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수

27) 권서(colporteurs)는 책과 소책자의 반포인이나 판매인이다. 선교지부의 투표에 의해서만 임명되며 기독교인의 인격과 반포하는 책에 대한 지식과 사업 열성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을 때만 임명한다.

28) The Korean Repository, 1899. ; The Korea Review(May & June 1905)

29) 『The Korean Repository』는 “한국의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잡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여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적인 매체로 출발하였다.”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아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 (1892~1898)의 성격과 의미”, 2021, 10쪽.

30) 1899년 4월 13일, 20일, 27일, 3회에 걸쳐 『The Korean Repository』 연재되었던 이 글은 더 널리 소개할 목적으로 『The Korea Review』 1905년 5월, 6월호에 제주도 여행기 후편 부분만 재수록하였다.

31) 고영자 편역,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 1845~1926』, (제주:삼화상사인쇄소, 2013), 109쪽.

적으로도 남자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러니 거리에는 남자 한 명당 여자 세 명꼴이다. 그 이유는 많은 남자들이 배를 타서 멀리 갔기 때문이다.”³²⁾

한편, 거의 모든 일을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빈둥거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고 했다. 모든 섬 사람들의 살림 형편이 기막히게 가난하여 음식은 물론, 옷과 집들 모두 육지의 그것들에 비하면 정말 수준 이하라고 보았다.

상거래 수준은 유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의 생활방식 또한 매우 원시적이다. 섬으로 고립된 탓에 사람들은 본토인들보다 매우 무지하고 문명화가 덜 되었다.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곳곳의 섬사람들은 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 개의 고을 각각에 공자 사당이 있다. 각각의 문밖에는 현무암으로 깎아 만든 큰 신상이 6기 또는 8기가 서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주도 여행 중에 어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했는지, 어떤 선교의 열매를 맺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피터스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한 대영성서공회 총무 켄뮤어는 1899년 3월 30일 『The Bible Society Reporter』에 ‘Pioneering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선교소식을 보냈는데 이는 1899년 7월호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서구에 알려진) 켈파트 섬 또는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박사가 한국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그 섬을 두고 ‘한국의 시칠리아’라고 부른 곳, 제주도는 한국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본토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다.³³⁾.... 섬은 사방에 해안가로부터 중심을 향해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엔, 오클랜드 산, 즉 한라산이 우뚝 서 있다.³⁴⁾

당시 대영성서공회 총무 켄뮤어와 함께 부총무였던 피터스의 담당 업무는 ‘매서활동’, 즉 복음서를 판매하며 전도를 하는 선교사였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제주 방문 목적은 아마도 향후 성경 반포와 선교사역을 위한 정탐여행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제주도를 떠나며 가져갔던 복음서 60~70권을 제주도에 남겨 놓았다고 했다. 이처럼 1890년부터 간헐적이거나 제주사람 가운데는 육지인 또는 육지부와의 왕래를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찾기는 쉽지 않다. 개중에 간혹 복음을 접한 이들이 있어도 1901년 신축교란이 발생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 있다.

32) 고영자 편역, 위의 책, 113~116쪽.

33) 1899년 4월 13일, 20일, 27일, 3회에 걸쳐 『The Korean Repository』 연재되었던 이 글은 더 널리 소개할 목적으로 『The Korea Review』 1905년 5월, 6월호에 제주도 여행기 후편 부분만 재수록하였다.

34) 고영자 편역,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 1845~1926』 (제주;삼화상사인쇄소, 2013), 109쪽.

2. 평양대부흥운동과 한국교회의 성장

한국교회의 성령대부흥운동은 1903년부터 1910년까지 지속된, 주로 한강 이북지방에서 전개된 운동이었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한국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국가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의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1904년부터 일본 정부가 임명한 자문관이 한국의 각 부처에 상주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주권을 잃게 되었다. 1905년 11월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한국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삼아 일본은 한국과 ‘정미 7조약’을 맺어 사법권·행정권·관리임명권을 탈취하였다. 또한 고종을 퇴위시킨 후 순종을 등극시킴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1908년에 일본은 1904년부터 원하였던 서해안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황무지 개간권’³⁵⁾을 확보함으로써 곧바로 한국의 곳곳에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³⁶⁾가 들어서서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를 벌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성령대부흥운동이 1903년 8월 원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³⁷⁾ 1905년에는 평양, 서울, 경기지방으로,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³⁸⁾

1907년 1월 14~15일 양일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평양대부흥운동은 평안도 지역은 물론 1907년 6월까지 조선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부흥의 열기는 대단했고 광범위했다.

김명구는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은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의 고민을 일순간에 해결시켰고, 경이적으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 교육이나 의료선교를 통해서도 이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한국교회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확보되기 시작했고 자급과 자립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졌다. 세계 교회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도 기록되었고, 그 유례가 없어 세계로부터 이목이 집중됐다.”라고 평가하였다.³⁹⁾

35) 일제가 한국을 식량·원료의 공급지로 삼기 위해 관유지 개간권·삼림 채벌권 등을 요구했으나 보안회 등의 반대 운동으로 철회함.

36) 1908년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37)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67~169쪽.

38) 김인주, 『제주기독교 100년사』, 쿤란출판사, 2016, 30쪽.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한 개인과 교회와 교단은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민족복음화와 이웃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한층 북돋아 주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거룩한 소명의식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평양대부흥운동은 제주선교를 위한 배경과 토양과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역사 이래 우상과 미신의 습속에 놓여있던 제주 섬에 선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 영적 동력을 대부흥운동을 통해 공급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외형적인 틀을 다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선교를 여는 모멘텀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교세가 급성장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신분의 타파, 여권의 신장⁴⁰⁾, 남녀평등 사상, 교육의 균등기회제공,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는 평양대부흥운동이 가져다준 놀라운 결실이었다. 이기풍 선교사가 1908년 제주도에 파송되기 전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불길 이 제주까지 확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황상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양대부흥운동으로 인한 영적각성이 호남전역으로 확산되었을 때 그 영향이 제주선교의 토양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⁴¹⁾

성령대부흥운동은 또한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분수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를 대표하여 한국에서 20여 년 선교하면서 한국인들의 심성과 신앙을 잘 알고 있던 언더우드 부인(Mrs. Lillias H. Underwood)은 성령대부흥운동의 원인을 꼽으면서, 그 첫 번째가 정치적인 상황이 교회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나라의 민족적인 질병과 정치적인 붕괴, 즉 청일전쟁과 콜레라 엄습, 황후의 살해와 이어지는 어려움들, 독립협회 운동, 노일전쟁, 일본인의 강점과 식민지화 등 새로운 시련이 닥칠 때마다 교회로 나오는 숫자는 증가하였다.⁴²⁾

1904년 9월부터 목포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여 1905년 11월 광주에서 진료소를 시작하면서 성령대부흥운동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의료 선교사 놀란(J. W. Nolan)도 언더우드 부인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한

39) 김명구, 『한국 기독교사 1』,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294쪽.

40)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59쪽.

41)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8), 126쪽.

42) Mrs. Horace G. Underwood, “Concrete Christianity in Korea”, The Missionary, April 1909, pp.261~262.

다고 해서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거나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⁴³⁾라고 말하였다. 군산의 불(W.F. Bull) 선교사도 “한국인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고 또한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포획된 사슴과 같아서 제시되는 첫 번째 도피처로 곧바로 숨으려 한다.”⁴⁴⁾라고 하였다.

미국 필라델피아 신문사(The Philadelphia Press)의 기자로서 1906년에 한국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내한하였던 윌리엄 엘리스(William T. Ellis)는 이렇게 보았다.

나라 전체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익은 과일과 같다.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만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극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⁴⁵⁾

불 선교사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엘리스는 보다 더 부드럽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익은 과일과 같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모든 선교회와 선교사들이 1905~1907년에 이르는 2년 사이에 한목소리로 “지금은 한국선교의 대전환점이다”⁴⁶⁾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지만 한국 교계에서는 성령대부흥운동이 일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주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에도 대한 선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따라서 제주도 선교는 평양대부흥운동의 결실이며, 동시에 새롭게 조직된 신생 한국교회가 낳은 새 생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한국인 목사의 배출과 제주선교의 결정

1884년 9월, 알렌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이래로 한국교회는 꾸준히 발전하였다. 북장로회 내에서만 하더라도 1894~1895년 사이에 미조직 교회가 13곳, 조직교회가 1곳,

43) J. W. Nolan, “Korea Experience at Chunju”, The Missionary, October 1905, pp.496-497.

44) Rev. W. F. Bull, “Era of Great Things in Korea”, The Missionary, September 1905, pp.455-456.

45) The Editor, “The Open Door in Korea”, The Missionary, March 1907, p.102.

46)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대한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이 있었다. 영국 성공회 소속 성직자인 가스코인(William Gascoyne)은 1907년 10월 28일자 London Times에서 “..... 원래의 모임에 있었던 한국인들은 마치 웨슬리의 개종자들처럼 멀리 폭넓게 흩어져서 믿음을 선포하고, 웨슬리의 개종자들처럼 놀랍도록 성공하였으므로, 한국을 통하여 극동지방에 기독교의 빛이 전파되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수가 286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1904~1905년 사이에는 미조직교회가 418곳, 조직교회가 10곳, 성찬 참여 교인수가 9,756명에 이르렀다. 교인 수만 하더라도 34배가 증가하였으며, 비조직 교회 수는 32배, 조직 교회 수는 10배가 늘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선교사 및 한국인 협력자(지도자)들의 인력은 크게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운 네비우스 선교원칙에 따라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선교’(self-propagation) 원칙에 충실하면서 한국인 교역자 양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⁴⁷⁾

1) 네비우스 선교원칙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지푸(芝罘)에서 활동하던 북장로교 선교사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John Livingston Nevius)에게서 시작되었다. 이후 장로교회는 탁월한 선교 정책으로 알려진 '네비우스 선교방법(Nevius Method)'을 사용했다.

조선에 입국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방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교를 이어 나갔다. 네비우스 선교원칙은 보통 줄여서 3자정책(三自政策: Three Self Principles)이라고 부른다. 즉 자립(自立: Self-Support), 자치(自治: Self-Government), 자전(自傳: Self-Popagation)이다. 원조받지 않고 자기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 간섭받지 않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전도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자립선교·자립정책·자립수급의 3원칙에 따라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외국의 원조나 선교사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재정으로 세워지고, 유지, 발전해 나가는 토착교회 선교정책에 의해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⁴⁸⁾

2) 평양신학교(대한장로회신학교)

물론 초기에는 한국인 협력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사랑(舍廊)에서 한국인 지도자급에 속하는 소수를 상대로 성경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각 곳에 흩어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보게 하였다.

그러다가 이들에 대한 신학적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의 한국선교회는 각각 지역에 산재한 선교부에 ‘신학반’(theological class)을 두어서

47) 차종순, 『제주기독교 100년사』, 쿤란출판사, 2016, 33쪽.

48) Carles Alken Clark,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기독교서회, 1993, 181쪽. 재인용

신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신학반’ 가운데 하나가 평양선교부에서 마펫(Samuel A. Moffet)이 1901년 자기 사랑에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을 데리고 시작한 신학반이었다. 1901년 2명으로 시작한 평양 선교부의 신학반은 1902년에 6명으로 늘어나고, 1904년에는 19명, 그리고 1905년에는 3학급이 되면서 40명으로 학생 숫자가 증가 했다. 이에 따라 마펫은 1904년부터는 타 선교회에 교수 요원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평양선교부 소속 선교사들과 서울에 거주하던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남장 로회의 전킨(William M. Junkin: 전위렴), 캐나다 장로회의 푸트(W. R. Foote: 부두일) 등이 가세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물론 평양 선교부신학반은 한국 내에 있는 여러 장로교 선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신학반은 아니었으나, 타 선교회에서 신학반 학생의 교육을 의뢰함으로써 점차 신학반 교육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드디어 1907년 6월 20일에 평양선교부신학반은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⁴⁹⁾

졸업생은 이기풍(李基豊), 길선주(吉善宙), 한석진(韓錫晉), 송인서(宋麟瑞), 방기창(邦基昌), 양전백(梁甸伯), 서경조(徐景祚)이다. 조선 목사들의 등장은 한국교회의 토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⁵⁰⁾

이렇게 신학반 졸업생이 배출되는 때를 맞추어 4개 장로교 선교회는 평양 선교부 소속 신학반을 ‘대한장로회신학교’(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장은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평양 선교부신학반을 운영해 온 마펫 선교사에게 맡겼다.

3)독노회(獨老會) 조직과 제주선교의 결정

이렇게 평양선교부신학반을 졸업한 7명을 목사로 임직시키기 위해서는 장로교 헌법에 따라 노회(老會)창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교하는 4개 장로교 선교회(미국 남·북 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장로교)는 한국에서의 노회설립을 합의하고, 본국 교단의 허락을 얻어서 노회를 창립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1907년 9월 17일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대한 장로회 창립노회(獨老會)’가 조직된 것이다.⁵¹⁾ 이날 오전 9시 개회 시에 회집한 회원은 선교사 33인, 장로 36인(모두 한국인)이 모여 첫 노회장에 마포삼열 선교사가, 부회장에는 방기창 목사

49)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89쪽.

50) 한인수, 『濟州宣敎 百年史』, (서울:도서출판 경건, 2009), 20쪽.

5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311쪽.

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독노회에서는 이기풍(李基豊, 1868~1942), 길선주(吉善宙, 1869~1935), 한석진(韓錫晉, 1868~1939), 송인서(宋麟瑞, 1867~?), 양전백(梁甸伯, 1869~1933), 방기창(邦基昌, 1851~1911), 서경조(徐景祚 1852~1938) 등 신학교 제 1회 졸업생 7명을 목사로 장립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교회와의 유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국 장로교연합공의회에 독노회의 조직을 통지하고 그 명부에 기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석 대의원 가운데 북장로회 선교사가 24명, 남장로회 선교사가 6명,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가 2명, 호주 선교사가 1명으로 총 33명이었다. 이들이 선교하였던 구역으로 본다면 평안도가 10명, 서울이 9명, 함경도가 2명, 경상도가 6명, 전라도가 6명이었다.⁵²⁾

노회 설립 당시의 교세와 선교 활동을 살펴보면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서울을 포함한 이북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제1회 노회에 참석하였던 장로 38명 가운데서 서울을 포함한 이북 지역에서 27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라도에서 7명, 경상도에서 4명이 참석하였다. 따라서 1907년까지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 조직교회가 이북 지역에 훨씬 더 많았음을 말해 준다.

〈표 1〉 제 1회 독노회 대의원 명단

선교사				한국인 장로	
선교회별		근무지역별		출신지역별	
북장로회	24	평안도	10	평안도	17
남장로회	6	서울	9	함경도	2
캐나다장로회	2	함경도	2	황해도	5
호주장로회	1	경상도	6	서울/경기	3
		전라도	6	경상도	4
				전라도	7
	33명		33명		38명

(출처/제주기독교 100년사)

이와 같은 초기 이북 중심의 교세는 목사 임직을 받은 7명의 사역지(事役地)를 살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신학 졸업생 7명에 대한 문답을 통하여 저녁 7시에 회집한 예배

5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독노회록(1907)』,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0), 4~5쪽.

에서 이들에게 안수례를 통한 목사 임직식을 거행함으로써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한국인 장로교 목회자 7명이 탄생하였다.⁵³⁾ 독노회의 창립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전도회 의원 길선주 씨가 보고함이 여 좌하니,

1. 새로 장립한 목사 7인 중 1인을 선교사로 파송할 일
2. 이기풍 씨를 제주 선교사로 보내되 월급은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
3. 길선주 씨는 평양 장대현교회 목사로 정할 일
4. 한석진 씨는 평양, 장전, 미림, 이천교회의 전도목사로 정할 일
5. 송인서 씨는 증산, 한천, 외서장, 영유, 허리몰교회의 전도목사로 정할 일
6. 방기창 씨는 용강, 제재, 주달교회의 전도목사로 정할 일
7. 양전백 씨는 선천, 정주, 박천 등지에 위대모 목사와 같이 전도목사로 정할 일
8. 서경조 씨는 장연, 웅진 등지에 사우업 목사와 같이 전도목사로 정할 일⁵⁴⁾

이상 7명의 졸업생 가운데서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선교사로,⁵⁵⁾ 길선주 목사는 평양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로,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각각 해당 지역의 전도목사로 임직을 받았다. 특히 한국 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풍속이 육지와 상이하여 외지(外地)처럼 여겨지던 제주도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스스로를 “선교하는 교회”로 규정한 엄숙한 선언이었다.⁵⁶⁾ 이러한 사실은 독노회의 최대 관심사가 전도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제주선교에 대한 동력을 제공해주었다면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조직은 제주선교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도회 위원 길선주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일.
2. 선교사의 월급과 전도용비는 각 교회의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하게 부탁할 일.
3. 연보할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할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하고 그다음 주일에 연보할 일

53) 미 감리교 조선연회에서는 이미 1901년에 김창식, 김기범을 목사로 임직하였다.

5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독노회록(1907)』,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0), 18~19쪽.

55) 1917년 제7회 총회에서 외국인 선교목사를 선교사로, 내국인 선교목사는 선교사로 호칭하지 않고 전도목사로 호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할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원문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56) 한인수, 『濟州宣敎 百年史』,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9), 20쪽.

4. 제주선교사는 이기풍 씨로 전도인 한두 사람과 동반하여 파송할 일.
7. 제주선교사와 전도인 월급 밖의 내왕비와 가사비와 전도회 인허 특별비를 본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⁵⁷⁾

회장이 우 항의 7조를 일일이 물으시매 회중이 동의하여 ‘可’로 결정하다.

이 결정은 신속히 추진되었다. 새로 안수 받은 7명의 목사의 10가지 사역을 보고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도 파송을 일차로 언급했다. 이것은 독노회 조직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독노회의 진행과정을 "**한국선교현장**"(The Korea Mission Field)에 상세히 보도한 이눌서(W. D. Reynolds)선교사는 "**제주도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한 가지 결의는 그 원대한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새로 장립된 목사 중 한 분인 이기풍이 한국 남해안으로부터 6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 독노회의 '외지선교사'로 자원한 것이다. 그의 제안은 열광적인 지지로 채택되었고 '전도국실행위원회'의 위원들이 선출되었으며 한국선교사 및 그와 동행할 한두 명의 협력자들의 지원을 위해 감사헌금을 하도록 전국교회에 요청할 서신이 작성, 인쇄되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장로교회는 그 조직의 시초부터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계에 그 푸른 깃발을 높이 올렸다.”⁵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육지부에 비해 20여 년 뒤늦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방향에서 제주선교를 준비해 오셨다.

첫째, 천주교 선교였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 제주에 천주교 선교가 먼저 진행되었다. 천주교 선교는 천주교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성격의 선교였다. 천주교 선교는 복음의 준비를 긍정적으로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이었다. 그것은 정면 교사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반면(反面)교사로서의 준비였다. 한국기독교는 천주교 제주선교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천주교 제주선교의 실패와 성공은 한국기독교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7)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8), 128쪽.

58) 한인수, 『濟州宣敎 百年史』, (서울:도서출판 경건, 2009), 21쪽.

둘째, 1884년 알렌과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입국함으로 시작된 한국선교는 처음부터 한국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었다. 이 같은 선교하는 한국교회는 제주선교를 위한 영적 토양을 제공해주었다.

셋째, 평양대부흥운동이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복음의 빛진 자의 심령을 한국인들의 심령에 강하게 심어주었고, 은혜를 받은 이들은 민족복음화와 선교를 가슴에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제주선교는 형식적인 선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 성령의 기쁨부으심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비로소 사도행전적인 해외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노회(獨老會)의 조직이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1907년 그해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되었고, 이 독노회에서 제주선교를 결정한 것이다. 그 후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만주, 시베리아, 일본으로 파송했다. 한국교회는 처음 조직될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한 셈이다. 한국교회는 그 성령의 놀라운 힘을 독노회라는 교회의 제도적인 틀을 통해 선교의 장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주선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준비였다. 천주교의 제주선교와 신축교란은 장차 제주선교를 위해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하게 하심으로 실수없는 겸손한 제주선교를 착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선교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교훈하시려는 섭리이기도 하다.⁵⁹⁾

59)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8), 129~130쪽.

Ⅲ. 자주적 신앙공동체와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

1. 자주적 신앙공동체의 등장

1882년 7월에 체결된 한미통상수호조약은 은둔의 나라 조선에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885년 4월엔 미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H. Underwood)와 감리교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함께 내한하여 새문안장로교회와 정동감리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는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자주적으로 복음을 수용한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송천(松川)에 소래교회를 세웠는데, 창립연대를 살펴보면 새문안교회나 정동교회보다 더 앞선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복음사역의 주인공들로 자처하는 선교사들이 선교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자생 교회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교회의 역사가 진실인양 통하였다.

제주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수용된 역사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이기풍 목사가 선교사로서 제주 땅을 밟기 이전에 이미 제주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김재원과 조병호, 부상규 등이다. 공식적인 선교사가 제주에 오기 이전에 이들은 새로운 신앙에 경도(傾倒)되었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자주적인 신앙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다.

한국교회사 또는 제주 교계에서도 제주에 개신교가 도입된 것은 1908년 2월 이기풍 목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변창욱은 제주도 선교는 비록 동일문화권 선교이지만 “한국장로교회 독노회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해외선교의 시작이라고 보았다.”⁶⁰⁾ 박기호는 제주도 선교를 “한국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첫 번째 타문화권 선교”⁶¹⁾라고 평가하였다. 또 한인수는 “한국의 독노회(獨老會)는 특히 한국 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풍속이 육지와 상이하여 외지(外地)처럼 여겨지던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스스로를 “선교하는 교회”로 규정한 엄숙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⁶²⁾

60) 변창욱, 「한국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 『선교와 신학제19집』, 2007, 16쪽.

61)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43쪽.

근래 들어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제주도 개신교 선교활동의 시작을 제주토박이에 의한 주체적인 선교로 보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⁶³⁾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입도한 1908년 이전에 이미 자생적인 기도모임이 시작되었고 이들에 의해 우상과 미신이 만연된 제주 땅에 복음의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료가 있는데 전택부가 쓴 『토박이 신앙산맥 2』이다. 이 책은 제주도 개신교 자주적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에 대한 소개하고 있는데 자주적 신앙공동체 지도자들인 김재원, 김재선, 조봉호, 홍순홍 등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후손이나 지인들을 인터뷰하여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⁶⁴⁾ 또한 지난 201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노회에서 펴낸 『제주기독교 100년사』에서도 자주적 신앙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구전들을 짧게나마 소개하면서 제주도 교회의 역사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은 이기풍 목사의 입도(入島) 전의 “자주적 신앙공동체”의 시작은 근거 자료의 미비로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전만 가지고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한인수는 『제주선교백년사』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만일 조봉호가 이기풍 목사의 입도(入島) 전에 소위 "자주적인 교회"를 시작했다면 공식적인 기록인 『조선야소교장로회사기』에 "先時에 조봉호가 云云" 하는 글귀가 초두에 부가되어 있어야 한다. 『사기』에는 그러한 기록은 없고 “전도목사 이기풍과 매서인 김재원의 전도를 인하여”라는 문구만이 나와 있다. 이로 미뤄 보건데 조봉호는 비록 경신학교에서 신앙을 배웠다고는 하나 견고치 못하여 다년간 주위 환경의 영향 하에 있다가 이기풍 목사와 김재원의 전도를 받고 나서야 신앙이 회복되어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⁶⁶⁾

고 하여 조봉호의 신앙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토박이 김재원의 행적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해주는 선교사의 회고록이 있다.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올리버 에비슨(O. R. Avison)이 1940년 6월부터 1944년 10월까지 집필한 회고록 *Memories of Life in Korea*(한국에서의 나날들)에서 김재원의 치료과정과 회심 및 제주도의 자주적 신앙공동체의 존재를 서술하였다. 에비슨은 “**제주도 김씨 이야기**(Story of Kim of Cheiu)”라는 제목으로 김재원이 제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과 신앙을 받아드리는 상황, 그리고 현지인 신앙공

62) 한인수, 『濟州宣敎 百年史』, 도서출판 경건, 2009, 20쪽.

63)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9호, 2013, 190쪽.

64)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2』, 홍성사, 2016, 249~252쪽.

65) 차종순, 『제주기독교 100년사』, 쿤란출판사, 2016, 41~44쪽.

66) 한인수, 『제주선교백년사』, 도서출판 경건, 2009, 27쪽.

동체의 존재를 서술하였다.⁶⁷⁾ 이렇게 신앙공동체와 관련된 구전과 에비슨의 회고록으로 비교해볼 때 이기풍 목사가 파송되기 전에 제주도에 이미 자주적 신앙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인다.

1) 김재원의 이호리 신앙공동체

김재원은 1878년 10월 5일, 제주성 밖의 바닷가 이호리(梨湖里) 백개(白浦)마을⁶⁸⁾에서 부친 김진철(金進哲)과 모친 김인애(金仁愛) 사이에서 첫 아들로 태어났다. 살림이 비교적 넉넉해서 김재원은 어린 시절 거로(巨老)마을에서 수학했다. 제주 동쪽 화북동에 위치한 거로마을은 조선시대 유배인의 영향으로 학문이 융성했고 선비들이 많았던 마을이었다. 1900년 그의 나이 23세가 되던 해 뜻하지 않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늑막염에 걸려 옆구리에서 고름이 나고 심한 기침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고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지만 차도가 없어서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경성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소문에 의하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제중원(濟衆院)이라는 신식약방을 차려 병을 고치는데 거기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아버지와 함께 목포와 제물포를 거쳐 경성의 제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제중원 원장은 에비슨(O.R. Avison)박사였다. 환자의 상태를 살펴 본 에비슨은 고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치료 거부했다. 제발 살려 달라고 간청하는 김재원에게 에비슨은 “죽을 건 뻔한데, 죽기 전에 예수나 믿으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한 번 해봅시다.”라고 제안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김재원은 약속했다. 김재원은 이렇게 2년에 걸쳐 무려 일곱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는 에비슨과의 약속대로 세례를 받았다.⁶⁹⁾

에비슨의 회고록 『한국에서의 나날들』에는 김재원의 치료받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1903년경 서울 안의 옛 장소에서 아직 병원을 운영 중이었을 때, 한 젊은이가 오른쪽 가슴에 있는 농흉(膿胸)을 치료해 달라며 찾아왔다. 그것은 더러운 냄새가 나며 이미 여러 늑골이 침식된 오래된 만성이었다. 당연히 장기간 치료를 해야 했다. 우측의 모든 늑골을 제거해 흉곽이

67) O. R. Avison, *Memories of Life in Korea*, 박형우 편역, 『근대 한국 42년 1893~1935(下)』, 청년의사, 2010, 309~310쪽.

68) 현재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인근에 마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 이름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표기한 것으로서 '백'은 '백'의 제주방언의 음운이며 백사(白沙)를 뜻하는 것이다.

69) 전택부의 김재원 소개는 집안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증언에 의한 기록이다. 참조,

이찬영, 『격동기의 파수꾼: 해산 임기봉목사 전기』, (서울: 감람원, 2005), 156~159쪽.

임광원 서신, “제주성내교회 김재원 초대장로님에 대한 교회사적 입장에서 수정고찰을 건의합니다.”(1999년 4월 15일)

함몰되고 가슴 안쪽에 유착돼서야 회복되었는데 약 2년이 걸렸다. 치료받는 동안 그는 종교에 관심을 두게 됐다. 제주로 돌아간 그는 친구들에게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말했다.⁷⁰⁾

제중원과의 인연

김재원이 치료를 받았던 제중원은 1884년 갑신정변 당시 큰 상처를 입고 사경을 헤매던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알렌(Horace Newton Allen, 安連)이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1885년 4월, 고종 황제의 윤허로 홍영식의 집을 하사받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이었다.⁷¹⁾

이후 제중원은 초기에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었으며, 조선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는데, 아직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때에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제중원 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조선에서의 선교활동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제중원은 신분의 귀천과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의료 및 전도사업 본연의 목적을 펼쳤던 선교기관이었다.⁷²⁾ 이처럼 제중원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당시에 가장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녀자들을 위한 의료 및 전도 사업에 큰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그래서 서정민은 당시 제중원의 활동이 한국인들에게 경탄을 자아냈던 요소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병원이라는 역할과 함께, 의학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제중원교회⁷³⁾의 성립이라는 특성까지를 포함한 대표적인 선교기관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원은 이곳에서 치료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에비슨의 회고록에 의하면, 김재원은 수술받은 지 약 30여년이 지난 1930년, 제주도 대표로 평양에서 열리는 한국장로교 제19회 총회에 가던 중 서울에 들러 에비슨의 집을 방문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약 30년 전에 제중원에서 한 젊은이의 죽을 질병을 치료한 의사와 죽음의 한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환자의 극적인 재회였다.

그때 김재원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인이 제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활동했던 학생 조수들의 근황이 매우 궁금했다. 특히 백정출신 박성춘과 아들 박서양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김재원이 제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학생 조수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생 조수란 의학교육에 대한 능력과 열

70) O. R. Avison, 같은 책, 309.

7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엮음, 『세브란스독립운동사』, (서울: 역사공간, 2019), 11쪽.

72) 서정민, 「제중원 선교공동체의 성격」, 『신학논단』 제30집(2002), 261쪽.

73) 제중원교회는 후에 남대문교회가 되었다.

정이 남달랐던 에비슨이 1893년 11월 제중원에 부임한 후 자신과 병원 일을 도와줄 학생 조수를 뽑아 의학교육을 시행했는데⁷⁴⁾ 그중의 한 사람이 박서양이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당시 김재원은 차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인술을 베푸는 개신교 선교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중원에서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동안 김재원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 훗날 김재원은 이기풍 목사와 함께 제주도에 선교병원이 세워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었다.⁷⁵⁾ 이것은 자신의 질병 치료를 통해 체험한 영적인 깨달음을 나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공익적 차원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의 사회적 책임감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에비슨도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선교 병원이 어떻게 환자의 육신을 돌보면서 영적인 영향을 주어 처음에는 단지 육신의 병 때문에 내원한 사람들의 삶과 소망을 변화시켰나 하는 많은 예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의 많은 교회는 치료를 받는 중에 종교적 가르침을 받았다.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싹트던 자신의 신앙을 진심으로 전파하게 된다.⁷⁶⁾

서상륜과의 만남

김재원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 매서인(賣書人)으로 등장한다. 이기풍 목사는 매서인 김재원과 함께 조봉호를 전도했다고 소개한다.⁷⁷⁾ 『대한성서공회사(大韓聖書公會社)』에 의하면 김재원은 1910년부터 1911년 사이에 성서공회의 공식적인 매서인이었다.⁷⁸⁾ 김재원은 어떻게 매서인의 역할 및 자격을 부여받았을까? 집안의 구전에 의하면, 김재원은 경성의 제중원에서 고향 제주도로 올 때, 그는 쪽 복음서와 축음기를 들고 왔다. 그는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보고 경험한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다.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원의 아버지 김진철은 아들이 제주도의 토착문화전통을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고 할 정도였다. 매서인으로서의 김재원은 제중원 입원기간 서상륜과의 만남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에비슨 선교사는 1901년 6월 서상륜을 제중원의 조수로 기용하였다. 김재원은 제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서상륜의 헌신적이고 한결같은 봉사의 자세를 보면서 참된 신

7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엮음, 『세브란스 독립운동사』, (서울: 역사 공간, 2019), 12쪽.

75)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9호, 2013, 191쪽.

76) O. R. Avison, 같은 책, 311.

77)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 265~266.

78) 류대영·옥성득·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II)』, 228, 241, 499, 597.

양인의 삶과 전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

한국교회사에서 서상륜은 1882년 봄 만주 심양에서 로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아 개신교에 입교한 후 1884년에는 황해도 송천(松川)에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솔내교회를 세운 전도자요 권서인이었다.⁷⁹⁾ 또한 그는 1887년 9월부터 언더우드 의 조사로서 서울과 북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였다.⁸⁰⁾

김재원이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간은 서상륜이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김재원의 회심 배경에는 서상륜과의 만남에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고 전도인의 자세를 훈련했던 것이다. 김재원이 세례를 받고 제주도로 귀향하여 제주도 최초의 개신교 자주적 신앙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서상륜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있다.

토착 전통과의 갈등

김재원은 1903년 말경 제중원에서 제주도로 돌아왔다. 1904년 김재원이 27세 되는 해에 아버지가 별세하였다. 풍습을 따르다면 신주를 모시고 상식을 올려야 되는데, 김재원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문중에 큰 풍파가 일어났고, 제사를 거부하는 김재원을 불효자로 단죄하게 되어 명석말이 매로 다스리고자 하였다.⁸¹⁾

사태가 이렇게 험악하게 되자 어머니가 결사적으로 아들을 보호하였다. “무당귀신은 내 아들을 못 살렸지만, 예수는 내 아들을 살려 주지 않았느냐? 나는 뭐라 해도 아들 살려주신 예수만 믿지 다른 귀신 안 믿는다.”라고 강력하게 아들을 항변하였다. 위기를 벗어난 모자는 밭에서나 들에서 열심히 전도하였다.

김재원은 전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옷을 들어 올려 수술 자국을 보여주었고, 죽다가 살아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전도했다. 김재원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여 여성들을 신앙공동체로 인도했다. 또한 이호리 신앙공동체에는 김재원의 친구들도 합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예비슨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로 돌아간 김재원은 친구들에게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자신이 신과 그리스도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79) 이만열, 「서상륜의 행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기독교회사연구회소식(제19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8, 4~25쪽.

80)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와 역사(제16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25쪽.

81) 차중순, 『제주기독교 100년사』, (서울:쿰란출판사, 2016), 42~43쪽.

사이에 퍼졌고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한 무리의 신도들이 생겼다. 내가 알기로 그 때까지 제주도에서는 개신교의 전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⁸²⁾

이 같은 김재원의 병 고침과 회심을 통한 전도활동에서 현지인에 의한 이호리 신앙공동체가 생겨났다. 이 공동체는 어머니에 의해서 여성들이, 김재원에 의해서 친구들이 합류하였다.⁸³⁾

2000년 10월, 김재원 장로의 손자인 김영식 목사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며 할아버지인 김재원 장로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에서 지내던 김재원이 제주로 돌아오면서 쪽복음서를 가지고 왔었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목회자 없이 몇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데 어려움이 많아, 김재원은 급기야 자신을 치료해 준 에비슨 선교사에게 제주도에 목회자를 파송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줄 것과 동시에 전도도 해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에비슨 선교사는 이 사실을 평양의 마포삼열 선교사와 상의했다. 이런 연유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파송을 받은 최초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가 제주로 파송됐다. 이 증언의 핵심은 독노회의 이기풍 선교사 파송은 김재원의 발의로, 즉 제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⁸⁴⁾

이호리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 성내교회의 성립을 전하는 내용에서 그 답이 나오는데, 이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濟州道)성내교회(城內教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是)에 노회(老會)에서 파송한 목사 이기풍(李基豐)이 당지(當地)에 래(來)하여 산지포(山地浦)에서 전도(傳道)할새 경성(京城)에 기류(寄留)할 시(時)에 수세(受洗)한 김재원(金在元)을 봉착(逢着)하여 협력전도(協力傳道)한 결과 홍순흥(洪順興), 김행권(金行權) 등(等)이 귀주(歸主)함으로 기도회(祈禱會)를 시작하였고 일도리(一徒里) 중인문(重仁門) 내(內)에 초옥(草屋)을 매수(買收)하여 예배당으로 사용(使用)하고 전도인(傳道人) 김홍련(金弘連), 이선광(李善光) 등(等)이 전도(傳道)에 노력(努力)하니라.⁸⁵⁾

이후 이호리 신앙공동체는 1908년 이기풍 목사가 내도한 후 제주도 개신교 최초의

82) O. R. Avison, 같은 책, 309쪽.

83) 차중순, 『제주기독교 100년사』, (서울:쿰란출판사, 2016), 43쪽.

84) 박정환, 김인수, 『제주성안교회 100년』, (서울:맘에 드림, 2008), 93쪽.

85)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342쪽.

교회인 성내교회로 발전하였는데, 위의 인용문은 내용상·시간상으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선교사 이기풍 목사와 김재원의 만나 협력하여 전도함으로 제주도 선교활동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홍순홍, 김행권 등의 귀주(歸主)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홍순홍과 김행권 등이 귀주, 즉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최초 구성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은 최소한 어머니와 동생 김재순, 김재선 그리고 홍순홍, 김행권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기풍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깊은 기독교의 진리로 인도되었고,⁸⁶⁾ 차츰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다만 이호리신앙공동체가 언제, 어떤 계기와 형식으로 성내교회로 이어지고 발전이 되는지에 대한 촘촘한 인과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탐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어머니 김인애(金仁愛)

김재원의 어머니 김인애는 김재원이 제주도에 귀향하여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다.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새로 지은 이름이다. 그녀는 아들로부터 받은 복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여 여성들을 신앙공동체로 인도했다.⁸⁷⁾

동생 김재선(金在善)

김재선은 이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였다. 이기풍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후에 평양 숭실학교에서 수학하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1928년 목사로 임직되었다. 그는 1930년 제주노회가 설립될 때,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홍순홍의 딸, 홍마대와 결혼한 김재선 목사는 목포형무소 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국전쟁으로 순교했다.⁸⁸⁾

홍순홍(洪順興)

홍순홍은 일찍이 이호리 신앙공동체에 합류했던 현지인으로서, 제주에서 처음 전도 받고 예수를 믿어, 1909년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기풍 목사는 홍순홍을 “첫 열매, 첫 열매”라고 부르며 자랑하고 사랑하였다. 김재원, 김행권과 함께 이기풍 목사를

86) 홍성봉, 『제주 선교의 첫 열매, 첫 장로 홍순홍의 신앙과 삶』, (제주: 도서 출판 늘, 2008), 37~48쪽.

87) “제주 성내교회 김재원 초대 장로님에 대한 교회사적 입장에서 수정고찰을 건의합니다.” <임광원 서신>(1999년 4월 15일)

88) 김수진, 『양동제일교회100년사』, (서울: 쿠파출판사, 1997), 155쪽.

모시고 성내교회를 설립한 공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순교정신으로 제주선교에 임했던 이기풍 목사에게 홍순홍의 세례는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다.⁸⁹⁾ 그는 예수 믿고 생활이 변화되어 열심히 기도생활, 성경봉독에 열중하고 교회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았다. 그는 약품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조금 얻은 수익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구제하며 꾸준히 전도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다. 그의 봉사정신 때문에 1913년에 김재원 다음으로 두 번째 영수(領袖)가 되었고, 1917년 4월 5일에는 김재원과 함께 장로 장립을 받고 헌신했다.⁹⁰⁾

홍순홍은 성내교회가 설립한 영흥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 사회에서도 봉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문중의 꾀박과 자녀들의 교육 관계로 1924년 목포로 이사하였으며 그때부터 목포양동교회에 출석하면서 1925년 시무장로로 취임하였다. 1967년 9월 14일 향년 9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⁹¹⁾

홍순홍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그의 장녀 홍마대는 김재원 장로의 동생 김재선(金在善) 목사와 결혼하였다. 김재선 목사는 목포형무소 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국전쟁으로 순교했다.⁹²⁾

김행권(金行權)

제주 성내에서 이기풍 목사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한 사람은 김행권이다. 그는 1882년 제주도에서 출생했다. 평생토록 청빈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힘이 강하고 의협심이 많은 인물로 교회에서 중치는 일, 예배당 청소하는 일, 교인들의 어려운 일을 대신하면서 언제나 봉사하는 일을 주로 했다. 제주도 주민들이 이기풍을 극심하게 박해할 때 그를 지켜준 인물이기도 했다.

선교사 니스벳(J. S. Nisbet)은 김행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의 가장 큰 도시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심한 박해를 견뎌냈다.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서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 김행권을 만들어주셨는데, 김행권은 군중을 진압하고 이기풍 목사를 구해낼 수 있었다.”⁹³⁾

89) 홍성봉, 『제주선교의 첫 열매, 첫 장로 홍순홍의 신앙과 삶』 (제주; 도서출판 늘, 2008), 52쪽.

90) 이찬영, 『격동기의 파수꾼』, (서울: 감람원, 2005), 159~60쪽.

91) 홍성봉 앞의 책 102쪽.

92) 김수진, 앞의 책 155쪽.

93) J. S. Nisbet, "Meet My Friend - Rev. Yi Ki Poong, Korea Mission Field (Nov. 1928), Vol. XXIV, p. 229.

김행권의 일화 중에서 한번은 이기풍 목사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폭력배를 만났다. 그들이 “칼이 있으면 좀 빌려주시오”라고 시비를 걸자, 김행권은 “칼은 왜? 나무를 깎아야 하겠거든 이렇게 깎어”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생나무를 휘어잡아 깎았다. 그리고 큰 돌을 공치듯 발로 차면서 “길가의 돌이 방해가 되거든 이렇게 차버리라”고 말했다.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한번 덤벼보지도 못하고 달아났다.

기록⁹⁴⁾에 의하면 김행권의 집은 처음부터 성내교회 주변에 있었다. 정영삼 목사가 시무할 당시, 교회 앞뜰에 있던 김행권 집사의 주택이 교회에 양도되었다. 교회는 1963년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교회 앞뜰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당회원과 재정위원으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대교인 김행권 집사가 살던 곳을 매입하였다. 제주성안교회 주보에 따르면 “김행권 교우(97세)는 본 교회창립 당시 1908년에 믿기 시작한 분으로 1979년 4월 24일 별세하였다”고 전한다. 김행권 집사의 자녀로는 큰 아들 김득교(金得敎) 장로와 둘째 아들 김득삼(金得三) 목사가 있다.

2) 조봉호의 금성리 신앙공동체

조봉호는 1884년 5월 12일 구우면 귀덕리에서 아버지 조만형과 어머니 김진실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활달하고 지혜로웠으며 동기들 간에 신의가 두터웠고 곧은 성품을 지녔다. 그는 가족들과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며, 부농의 자제로서 넉넉했던 집안 형편 덕에 일찍부터 한학을 익힐 수 있었다. 계속되는 민란으로 인한 제주의 아픔을 보면서 그는 서울로 나가 유학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가족들과 상의한 후 1902년 상경한 그가 배우게 된 곳은 예수교중학교로 후일 경신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근대 교육기관이었다. 수학기간 동안 그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만이 아닌 자신이 믿어야 할 신앙임을 받아들이고 곧 귀의하였다. 이러한 신앙심은 그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귀향했을 때에도 이어졌다.

조봉호는 1904년 제주도로 내려와 모친과 동생 봉휴, 유승을 돌보았으며 1906년에는 조성벽과 혼인하였다.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경험했던 개신교에 대해 자기 가족을 포함한 제주 사람들과 나누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금성리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들 역시 이기풍 선교사가 도착한 이후, 신앙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민중계몽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된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금성리 신앙공동체의 지도자 조봉호가 어

94) 『성안교회 제직회록』, 1964년 12월 16일, 『제주성안교회 100년』에서 재인용.

떻게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이끌었던 조봉호가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사실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봉호가 수학한 것으로 보이는 1901~02년경, 언더우드 학당은 종로 연지동에 새로이 학교를 마련하고 교명을 ‘**예수교 중학교**(야소교중학교)’로 변경하였다.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이 교장으로 취임하여 중등과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1903년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게일이 “고상한 기독교의 이상(理想) 위에 학교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봉호는 이 예수교중학교에서 중등과 학생으로 신학문과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경신학교에서의 생활은 그의 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금성리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금성리 신앙공동체는 제주도 개신교 초기 교회인 금성리교회로 발전하였는데, 조봉호와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금성교회 성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濟州道) 금성리교회(錦城里教會)가 성립(成立)하다. 독노회(獨老會) 설립(設立) 당시(當時)에 파송한 전도목사(傳道牧師) 이기풍(李基豐)과 매서인(賣書人) 김재원(金在元) 등(等)의 전도(傳道)를 인(因)하여 조봉호(趙鳳浩), 이도종(李道宗), 김씨진실(金氏眞實), 조운길(趙云吉), 양석봉(梁石峰), 이씨(李氏), 호효(吳孝), 이씨자효(李氏慈孝), 김씨도전(金氏道田), 김씨유승(金氏有承), 좌징수(左澄洙), 이의종(李義宗)이 귀도(歸道)하여 조봉호(趙鳳浩) 가(家)에 회집기도(會集祈禱)하다가 이덕년(李德年) 가(家)를 예배처소(禮拜處所)로 작정(作定)하니라.⁹⁵⁾

위의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에 기록된 금성리 신앙공동체 구성원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이기풍 목사와 매서인 김재원이 조봉호 등 10인에게 전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서인 김재원의 인도로 이기풍 목사가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는 김재원이 매서인으로 언급된 사실이다. 위의 인용문이 1908년 금성리교회 설립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할 때, 김재원이 공식적으로 매서인의 자격을 언제부터 부여받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전도 활동의 처음부터 매서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의미한다.

95)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333쪽.

셋째는 김재원과 이기풍 목사의 전도를 받은 열 사람은 조봉호 가족과 이도종의 가족, 그리고 개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조봉호를 비롯한 10인이 모인 것은 신앙공동체의 초기모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⁶⁾

이도종

이도종 목사는 제주 출신 첫 목회자이다.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 유배 온 남강 이승훈을 통해 복음을 접했고, 금성교회가 제주 최초의 신앙공동체로 출발할 당시에 함께 한 8명 중 하나로 참여했다.

금성교회를 함께 섬기던 조봉호 선생의 1919년 독립군 군자금 모금 사건이 터졌을 때 연루된 인물로 체포당한 기록이 있을 만큼, 이도종이라는 이름은 초창기 제주교회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청년 이도종의 신실함과 사역자로서 가능성을 발견한 제주선교사 이기풍은 그를 평양으로 보내 숭실학교에 다니도록 한다.⁹⁷⁾ 한동안 모슬포교회 이경필 목사를 도와 제주 산남지방 전도인으로 활동했던 이도종은 1926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드디어 목회자로서 인생을 시작했다.

전북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뒤⁹⁸⁾ 김제 등지에서 목회하다, 1929년 고향 제주로 돌아온 이후부터 서귀포교회, 법환교회, 남원교회, 고산교회, 용수교회, 조수교회, 화순교회 등이 그가 직접 개척했거나, 담임하면서 성장시킨 교회들이었다. 그사이 세 차례에 걸쳐 제주노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노회장 재직 시절 제주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후, 그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교회들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다. 설상가상으로 일제는 제주의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 소개령까지 내린다. 자책과 실의에 잠긴 이도종은 목회를 그만두고, 귀농생활에 들어간다. 해방 후 동료 조남수 목사의 간곡한 설득으로 목회 일선에 복귀한 이도종은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시금 신앙과 사역의 고삐를 조인다. 제주에 남아있는 목회자가 거의 없어 두 사람은 무려 24개의 교회를 돌보아야 했다. 이도종 목사는 산북지방의 교회들을 담당하기로 했다.

1948년 4.3사건의 와중에 6월 13일 이도종은 한경면 고산리의 자택에서 자전거에 몸을 싣고 서귀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화순교회 등 남쪽의 교회들 안부를 확인하고 성도들을

96)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9호, 2013, 200쪽.

97)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랑을 던고』, (서울: 쿰란출판사, 2010), 74쪽.

98) 『전북노회 제 21회 회록』, 75쪽.

격려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목적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대정읍 무릉2리 인향동 부근, 속칭 ‘고린다리’라 불리는 지역에서 인민무장대에 붙잡힌 후 살해당하고 만 것이다. 제주 제1호 목사이자, 제1호 순교자라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안겨준 존재. 그렇게 이도중은 불멸의 이름이 됐다.⁹⁹⁾

이덕련

이덕련(李德連)은 박열선(朴烈先)과의 사이에 5남 3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에 대한 기대로 교육열도 높아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천자문에서 소학·대학·논어·중용에 이르기까지 한학 공부를 시켰고 아들들을 기독교학교에 진학시킬 정도로 신앙이 깊었다. 훗날 장로로 임직하였다.

1907년 이른 봄, 육지에서 경신학교를 다니던 이웃마을의 조봉호라는 청년이 금성마을 사람들에게 한양 소식과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전도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의 친척들과 이도중 가족 등 몇 사람이 양석봉씨 집에 모여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이 1907년 3월 10일 주일이였다.

여기서 기독교에 입문한 인물 중 **이의중, 이기중, 이관중, 이성중, 이효민, 이자민, 이공민**은 모두 이덕련의 자녀들이었다.¹⁰⁰⁾ 이중 차남, 의중과 삼남 기중은 정주 오산학교에 유학을 보냈고 사남 관중과 막내 성중은 일본으로 보내 침술을 배우게 하였다. 장녀 효민은 단기 성경학교 3년을 나왔고, 차녀 자민은 일본으로, 그리고 막내딸 공민은 목포로 유학 가서 매산중학교를 졸업했다. 이것은 당시 일반 가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육열이었다.

김도전

김도전(金道傳)은 이도중의 아내이다. 이도중이 18세 청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 이덕련은 중신아버를 세워 이웃 마을 귀덕리 김기용 씨의 3녀 김도전(金道傳)을 며느리로 삼아 결혼시킨다. 이날이 1910년 5월 16일, 치욕의 한일 합방이 선포되기 3개월 전이었다. 김도전은 이도중과의 슬하에 1녀(복순) 4남(창복, 영복, 원복, 태복)의 자녀를 두었다. 남편 이도중 목사 사후 29년을 홀로 보내면서 제주시 소재 제광교회 권사로 봉직하다가 1977년 87세를 일기로 소천하였다.

99) 기독교신문(<http://www.kidok.com>)

100)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량을 딛고』, (서울: 쿤란출판사, 2010), 129쪽.

양석봉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들어와 첫 교회를 세우기 전인 1907년 3월부터 조봉호, 이덕련 등 금성리의 자생적 기도모임이 시작된 장소를 제공한 인물이다. 이 기도모임으로 금성교회가 시작됐다.

이밖에 ⑤김진실(金眞實)-조봉호의 어머니, ⑥이승효, ⑦이자효, ⑧조운길, ⑨김유승, ⑩좌징수 등 금성리 신앙공동체 구성원의 행적은 꾸준한 자료 탐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3)부상규의 세화리 신앙공동체

한동리 켓골 출신인 부상규(夫尙奎, 1887~1933)는 일찍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목포와 부산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현대의술을 익히고 조수로 일하면서 의생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는 부산에서 1910년부터 10년간, 그리고 서귀포에서 1920년부터 병원의 일을 돕다가 1923년 세화에서 성제의를원을 개업하였다.¹⁰¹⁾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에 부상규가 신자가 된 경로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한동리에 살던 부상규가 목포 의사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후, 부산에 가서 선교사 왕길지에게 학습을 받았고, 산지포 목사 이기풍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¹⁰²⁾

이 신앙의 여정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서를 따라, 연대를 역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 받았다는 부분은 매우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기풍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자료 수집의 책임을 맡고서 자신의 기록이나 기억을 분명하게 반영했다고 본다.

삼도리에 사역의 터전을 마련하고 성내교회가 출발하기 이전에, 이기풍은 산지포에서 전도하며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상규는 서둘러 찾아가 이기풍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다. 이로써 부상규는 제주 동부 지역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¹⁰³⁾

부상규를 학습인으로 세운 왕길지는 앵겔 선교사(George O. Engel, 1864~1939) 이다.

101) 『제주도의사회 60년사 1945~2005』, (제주: 제주도의사회 2006), 137쪽.

102)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311쪽.

103)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 (금성문화사 2016), 437쪽.

그는 독일 태생으로 바젤 선교부에서 신학교육을 받았고, 미술을 공부하였으며,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에딘버러에서 수학한 후 인도에서 교육선교사로 사역하기도 하였다. 호주로 이민하여 교사로 일하다가, 호주 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1900년부터 1906년까지 부산에서 사역하였다. 부인이 사망하면서 실의에 빠져 일시 호주에서 지냈다. 일본 선교사인 브라운과 연결되면서 재혼하였고, 다시 선교지인 조선에 부임하였다.

왕길지는 1902년부터 평양신학교 강사로 신학교육에 참여하였다. 1906년부터는 매년 3개월씩 평양에 주재하였다. 1919년에는 평양으로 완전히 옮겨 신학교육에 전념하였다. 교육자로서 그는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 1913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제2대 총회장, 1917년에는 경남노회 창립노회장을 역임하였다.¹⁰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부상규가 부산에서 왕길지를 만난 것은 1906년 혹은 1907년 정도로 추정된다. 그때 부상규의 나이는 스무 살 정도였다.

그가 목포에서 만났던, 그에게 처음 복음의 길을 알려준 의사는 누구인가? 『**제주기독교 100년사**』에는, “구좌면 한동리 출신인 부상규가 목포에 주재하고 있는 의료선교사 ‘**포의사**’에게 복음을 받았고, 부산진 왕길지 목사에게 학습을 받았으며, 1818년 가을 이기풍 목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곳 초대 신자가 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1818년은 1908년을 잘못 인쇄한 것으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목포 의사를 布의사로 기재한 것은 특별한 뜻을 담고 있는가?

목포 선교부에서 사역한 의료선교사는 오웬(Owen, Clement Carrington, 오기원, 1867~1909)과 포사이드(Wiley Hamilton Forsythe, 1873~1918)가 있었다. 이들은 1904년 12월 25일에 임무를 교대하였다.¹⁰⁵⁾ 따라서, 목포의 의사를 포사이드로 이해한다면, 1905년에 부상규가 포사이드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포사이드는 미국인으로서 쿠바에서 다년간 의료활동을 하였고, 남장로회 의료선교사로 1904년에 내한하여 전주에서 사역하였다. 1907년부터 목포에서 일하다가 1912년에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한글 이름을 보위렴(保衛廉)으로 정했지만 흔히 ‘**보 의사**’ 혹은 ‘**포 의사**’로도 알려졌다.

그는 1905년 전주에서 밤중에 치료에 나섰다가 습격을 받고 귀가 잘리는 변을 당하기도 하였다. 무뢰배의 소행인지, 항일 의병이 오해로 공격한 것인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1909년에는 광주에 있던 동료 선교사 오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104) 『부산 복음의 증인들』, (부산노회 2010), 20쪽.

105)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6권 부산』, (기독교문사, 1992), 317쪽.

급하게 이동하던 중,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광주 나병원을 세웠으며, 이후의 나병 퇴치운동(구라사업)과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의 나병원을 세우는 선구자가 되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통하였다는 기록은 그의 품성과 헌신을 잘 말해준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여 있으면 소리 높여 설교하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포사이드를, 부상규가 목포에 있던 시절 만났다면 그로 인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하게 보이는 목포 의사를 포 의사로 고쳐 놓은 것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와는 다른 더 좋은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해석 혹은 그릇된 해독인지 현재로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스무 살 전후의 젊은 부상규는 목포와 부산에서 복음을 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오자마자, 그를 찾아 서둘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 받아 장도에 오르는 이기풍이, 이미 왕길지를 통하여 부상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능동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개연성도 있다.

1915년 11월 28일 한동리 부상규의 집에서 8명의 신자가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함으로 교회의 모태가 되었고, 1919년 임정찬 목사의 지도로 한동리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1920년 서귀포로 들어가 일본인이 운영하던 소천의원(小淺醫院)에서 보조자로서 선진 의학 습득에 힘썼다. 1922년 예배소를 세화리로 이전하고, 1923년 의생 시험(의생 7105번)¹⁰⁶에 합격하여 같은 해 9월 세화리에 성제의원(誠濟醫院)을 개업하니 이 고장에 현대의술을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1924년 그의 소유 토지 88평을 회사하여 세화교회가 신축되었다. 세화교회를 창건한 그는 1928년 초대 장로가 되었고 의술로써 대민봉사에도 힘을 보탰다. 만장굴을 발견한 부종휴(夫宗休)가 그의 아들이다.

106)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2. 이기풍 목사의 입도와 초기 선교활동

1907년 9월 17일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獨老會)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일곱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 사람, 이기풍 목사를 독노회 최초의 해외선교사로 제주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드디어 1908년 1월 11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 목사의 집례로 이기풍 선교사의 파송예배가 드려졌다. 평양을 출발한 이기풍 목사는 서울을 경유하여 목포에 머물렀으며, 목포와 광주에서 사경회를 인도한 후 2월 하순에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도는 선교사들에게 켈파트(Quelpart)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¹⁰⁷⁾ 인구 10여 만이 사는 제주도는 전주, 남원, 나주, 제주로 이루어진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 4개의 목(牧) 가운데 하나로, 많은 정치인들의 유배지였다. 또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언어, 풍습 등이 육지부와는 이질적인, 한국 민속의 보고였다. 그렇기에 기독교 전도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제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이기풍목사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1901년 신축교란(辛丑敎亂)이후 증폭된 외국인과 서양 종교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감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난을 겪었다. 차츰 제주도 내의 실정을 파악해 가던 이기풍 목사에게 전도사역에 큰 힘을 실어 주는 사건이 있었다. 몇 년 전 경성(京城)에서 세례를 받고 귀향한 토박이 김재원(金在元)과의 만남이었다. 이기풍 목사와 김재원의 협력전도로 홍순흥, 김행권 등이 동참하여 향교골 김행권의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제주도 첫 교회의 시작이다.

제주 선교는 이기풍 목사의 헌신과 함께 그와 협력하는 동역자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 1908년이 지나고 1909년을 맞이할 때에는 김재원을 비롯하여 윤함애 사모, 김홍련 전도인, 평양 여전도회에서 파송한 이선광 전도부인의 역할은 남달랐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했다. 본 장에서는 1908년부터 1915년까지 7년간의 이기풍의 초기 제주사역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07)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427~428쪽.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1630년에 동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배를 건조하고 그 배의 이름을 켈파트 드브 락(t' Galjodt Quelpart)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1642년에 제주도를 발견하고서 제주 도를 배의 이름을 따서 Quelpart라고 하였다. 그 후 하멜이 1653년에 8월 18일 제주도에 도착하여 해도에나 오는 좌표와 일치하는 것을 알았으며, 나중에 하멜이 자신의 표류기에 제주도를 Quelpart라고 기록함으로써 17세기 중반 이후로 서양인들에게는 제주도가 Quelpart로 알려지게 되었다

1)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이기풍 목사의 출생과 삶 그리고 목회 일상에 대한 기록은 막내딸 이사례 권사가 저술한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은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도 꽤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¹⁰⁸⁾

한국인 최초의 해외선교사인 이기풍은 1868년 11월 21일 평양부 순영리(巡營里)에서 태어났다. 이기풍의 출생일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에 1865년 12월 23일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다.¹⁰⁹⁾

그렇지만 이기풍 목사의 호적과 관계된 제반 자료들을 종합하면 1868년 11월 21일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호적은 메이지(明治) 원년(1868년) 11월 21일이라고 밝히며, 아버지는 이재진, 어머니는 김씨라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이기풍 목사는 회갑기념예배를 1928년 제주도 성내교회에서 거행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1928년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셋째, 『한국교회 회년 기념 설교집』에 이기풍 목사의 설교도 실려 있는데, 이기풍 목사의 약사(略史)를 기록하면서 1868년 평양부 순영리 출생이라고 썼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풍 목사는 1868년 11월 21일 평양부 순영리에서 태어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회심(回心) 이전의 삶

이기풍의 회심 이전의 직업에 대해 흔히 ‘석전 패거리의 우두머리’ 혹은 깡패 등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직업 없이 한량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만열 교수는 마펫선교사(Samuel A. Moffet: 마포삼열)의 글을 인용하여 이기풍의 직업이 ‘평양성 영문의 아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기풍은 1891년 평양 거리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며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때 영문의 아전(衙前)이었는데 원산으로 이사 가서 회개하고 1896년에 세례를 받았다. 그는 예수를 믿은 후에 소아론(Swallen) 목사의 밥 짓는 사람이 되어 그와 함께 지방으로 순회하고 아주 열심히 하여 전도에 힘썼다. 너무나도 열심히였기에 나는 그를 매서인으로 지명하였다. 얼마 후에는 그가 조사(助事)¹¹⁰⁾가 되었는데 지금 그는 새로 개설된 재령선교구의 지도자가 되어 활약하고 있다.”¹¹¹⁾

108) 이사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서울: 기독교문사, 2016), 27쪽.

109) 이사례, 위의 책, 27쪽.

마펏 선교사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1936년에 마펏선교사가 은퇴하고 한국을 떠난 다음 미국에서 자신의 선교사 생활을 정리하여 ‘초기 시절’(Early Days)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1891~1893년 사이에 나와 함께 게일(J.S. Gale), 홀(E.F.Hall) 그리고 리(Graham Lee) 등은 평양에 선교부를 개설할 목적으로 평양과 의주를 연속적으로 방문하였다. 1893년 봄에 리와 나는 토지를 샀으며, 첫 조직교회인 장대현교회를 창립하였다. 이것이 공직자들 사이에 대혼란을 초래했으며, 사람들을 충동시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명령을 분명히 내린 것으로 알 수 있다.....그날 아침에 우리는 서문통으로 들어갈 때 경찰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였으며.....그렇지만 우리에게 돌 팔매질을 한 경찰 가운데 한 사람은 언급할 가치가 있는데, 바로 이기풍이다. 그는 후일에 한국의 최초의 목사 임직을 받고 또한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 제주도로 갔으며, 그곳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였다.¹¹²⁾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기풍 목사는 1891년 이전부터 평양성 영문의 아전(police)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출생이 1868년이므로 당시의 관례에 따라 15~16세 즈음에 결혼하여 20세 즈음부터 포졸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펏 선교사는 1890년 1월 한국에 도착한 이래 평양을 선교지로 정하고서 1890년 8월에 그리고 1891년 봄에 방문하여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1892년 가을에는 선교부 후보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1893년에 평양성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성공하였고 첫 조직교회인 장대현교회를 창립하였다. 이 과정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1890년에 이르기까지 평양은 개신교 선교사가 단 두 번 방문하여 책을 전하였으나 개종자는 없었다.....1890년 8월 마펏이 가서 2주간 머물렀다. 그다음 해(1891년) 봄에 다시 찾았으며 5일간 있었다.....1892년 가을에 평양을 영구적인 선교부로 결정하고서, 그다음 해(1893년)에 마펏과 Mr. 리가 정착하기 위하여 찾아갔다. 2월에 토지를 구매했으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즈음 해서 사람들은 처음보다 훨씬 더 친근했으나 지방관과 외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물밑 작업을 진행하였다.¹¹³⁾

110) 조사(助事)는 선교사나 목사에게 부속되어 선교사의 사역을 특별히 조력한다. 한 선교지를 순회 전도하면서 교인들과 예배처소를 돌보았다.

111) 이만열, 『순교보』, “이기풍 목사의 행적”, 267쪽.

112) Samuel A. Moffet, 『Early Days』, Part I, The Korea Mission Field, January 1936, p.4. 재인용

113) Rev. H. Loomis, “Mission Work in Pyeng Yang, Korea”, The Missionary, May 1897, pp. 211~216. 『제주기독교 100년사』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기풍이 마펏 목사에게 돌을 던지면서 난동을 부린 연도는 1893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사례 권사는 이기풍은 회심 이전에 당시로서는 하위직이라 할 수 있는 포졸 직을 맡은 데 대한 울분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울분 혹은 불만이 가끔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됨으로써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로 알려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¹¹⁴⁾

청일전쟁(淸日戰爭)

평양성의 아전 이기풍은 괄괄한 성격이었으나 국내적으로는 탐관오리를 거부하고 국외적으로는 외국인 선교사를 거부하였던 나름대로 의식 있는 젊은이였다.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 이기풍에게는 못마땅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서양 귀신을 전하는 괴수 미국인 선교사를 평양에서 내쫓으려면 폭력을 가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회는 더욱 번성해지고 사람들은 더욱 몰려들었다. 교회는 장대재에 터를 마련하고 장대현교회를 크게 짓기 시작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이기풍은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짓고 있는 교회당의 기둥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목재에 불을 놓기도 하였으나, 물러갈 기미가 없었다. 이렇게 행패를 부려도 관가에 알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서양인들이 의아하기만 하였다.

그러던 중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청일전쟁의 평양성전투는 1895년 9월 15~16일 양 일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영국인 여행작가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은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평양시가 85% 이상 파괴되었다.”고 하였다.¹¹⁵⁾ 청국군은 대패하여 퇴각하였으며, 승리한 일본군이 성안에 진주하였다.

이기풍도 원산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국내에서 일어난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외세를 끌어드리는 현실에 온갖 회의가 밀려왔다. 이기풍은 원산에서 주먹 썩씨, 돌팔매 썩씨에 못지않은 수목화 썩씨를 자랑하였다. 그는 담뱃대에 인두로 그림을 그려 파는 장사를 시작하여 근근이 살아갔다.

이기풍의 회심(回心)

하루는 길을 걸다가 복음을 전하는 스왈튼(W. L. Swallen: 소안론) 선교사를 보았고, 문득 예전에 평양에서 자기가 돌로 친 마펏선교사 생각이 들어 특별한 감회를 느꼈다. 이때부터 이기풍의 양심은 괴로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지나가는

114) 이사례, 『이기풍목사의 삶과 신앙』, (서울: 기독교문사, 2006), 30쪽.

115) 김인수,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2008), 78쪽.

조선인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였다.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야단법석인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였다. 그러다 낮에 본 일로 인해서 심란한 상태를 추스르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상스러운 환상에 사로잡혔다. 이기풍 목사의 딸, 이사례 권사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무나도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생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던 아버지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이 되어 한없이 흘러내렸다.¹¹⁶⁾

결국 이기풍은 이것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열기 왕성한 젊은 시절에 잘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후 이기풍의 생활은 달라졌고, 마침내 1896년 초에 소안론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 이후 그의 삶은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일과였고, 일반인에게는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회자 되었다. 서양종교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그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변화된 이기풍은 평양성의 기적이었으며, 평양의 사도바울이었다.¹¹⁷⁾

이기풍은 1896년 세례를 받은 이후 소안론의 조사로 발탁되어 함경도 지방의 순회조사(助事, helper)로 활동하였다. 이 시절 그는 전도자의 필수 덕목인 철저한 헌신과 인내를 체득했다. 1901년 그는 소안론 선교사를 따라 평양으로 이주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펫선교사를 찾아가 지난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¹¹⁸⁾ 변화된 기풍의 모습에 접한 마펫선교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1902년부터 황해도와 충청도 서쪽 지역까지 돌보는 조사로 활동을 전개한 이기풍은 1903년 길선주, 양전백 송인서 등과 함께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재학 중 5년간 그는 황해도 지역에서 조사 직을 맡아 안악, 신천, 해주 등지를 누비며 사역했다.¹¹⁹⁾ 그리고 조선야소교 공의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여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쌓았다. 1903년 그는 아내가 출산 후 세상을 떠나는 비운을 맛보았다. 같은 해 이기풍은 평양 숭의학교를 졸업한 노처녀 윤함애와 재혼했다. 그녀는 평생 이기풍과 해로

116) 이사례, 위의 책, 33쪽.

117)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18) 한인수, 『제주선교백년사』,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9), 22쪽.

119) 한인수, 『호남교회 형성인물』,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0), 150~151쪽.

하며 충실한 아내요 동역자로 봉사했다. 1907년 9월 평양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그는 목사로 임직되었다. 그의 목사 안수식을 집례한 독노회의 창립회장은 기풍에게 턱뼈를 다쳤던 마펫 선교사였다. 말하자면 이기풍은 자신이 괴롭힌 선교사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목사로 임직된 것이다. 같은 날 독노회는 이기풍의 목회역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의를 했다. 그것은 이기풍을 복음의 불모지 제주도의 초대 선교사로 파송하자는 안을 이의없이 채택했기 때문이다.¹²⁰⁾

이기풍 선교사 파송예배

선교사로 택정된 후 수 개월간 이기풍 목사는 평양에 머물러 기도로 준비했다. 드디어 1908년 1월 11일, 제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의 결정에 따라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 목사의 집례로 이기풍 선교사 파송예배가 드려졌다.¹²¹⁾ 첫 선교사의 파송예배가 평양대부흥운동의 진원지인 평양에서, 그것도 부흥운동의 발원지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운동의 주역 길선주 목사에 의해 진행된 것은 뜻 깊은 일이었다.¹²²⁾ 파송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선포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기풍 선교사가 간단한 작별인사를 한 후, 길선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당신이 어떻게 평양의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는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설령 제주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이기풍 목사는 친구이자 동역자인 길선주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앉아 있었다.¹²³⁾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과거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이 마음 깊이 느껴져 흐르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길선주 목사의 메시지는 파송 받아 떠나는 이기풍 목사에게는 물론이고 장대현교회를 가득 메운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빛진 자의 사명을 새롭게 환기시켜 주었다.

제주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 후, 그가 평양을 떠나 임지로 향한 것은 1908년 1월 17일이었다. 그와 동행한 사람은 아내와 조사 한 사람이었다. 기차로 남대문에 도착한 그들은 연동교회, 송동교회, 그리고 새문안교회의 교우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

120) 한인수, 위의 책 152쪽.

121) Miss Julia Martin, "Three Pictures," The Korea Mission Field (June 1911), Vol.VII, p. 172. 재인용.

122)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34쪽.

123) 박용규, 위의 책, 137쪽.

다. 그들은 1월 24일 목조선을 타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목포로 갔다.¹²⁴⁾

<이 목사가 제주로 발정함.>

평양노회에서 택정한 제주선교사 이기풍 씨는 평양서 기차로 발정하여 제주도로 가는 길에 그 부인과 조사 일인을 거느리고 본월 십칠일에 남대문 밖 정거장에 도착하며 연동, 승동, 새문안 각 교회 교우들이 정거장까지 나아가 환영하고 승동교회에서 유하다가 24일에 발정하였으니 수록 원로에 태평히 도달하기를 축사하오며 그곳 어두운 백성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교회가 날로 흥왕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¹²⁵⁾

목포에 도착한 그는 프레스톤(John Fairman Preston, 변요한)과 폴시더(W. H. Forsythe)를 비롯한 그곳 선교사들과 교우들의 환영을 받으며 얼마 동안 그곳에 체류한 뒤 자신의 선교지 제주도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¹²⁶⁾

2) 이기풍 목사의 제주 도착

이기풍 목사의 수난

이기풍 목사는 풍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험을 무릅쓰고 1908년 2월 말 제주 산지포에 도착하였다. 그는 목포의 가족에게 “할렐루야, 무사도착”이라는 소식을 보냈다. 4일 만에 전달된 이 반가운 소식은 목포 선교부를 통해 평양의 마펫 목사에게도 전해졌다.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제주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제주도에 도착한 이기풍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싸늘한 냉대와 배척뿐이었다. 그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그의 딸 이사례는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통을 느꼈으며 천주교인 학살 사건이 있던 다음이라 모두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볼 뿐 전도하는 말에 응하려 하지 않고 더러는 맹렬히 반대하며 핍박했다.”¹²⁷⁾라고 전한다. 이기풍 목사가 필요 이상의 고난을 겪었던 것은 신축교란(辛丑敎亂) 이후 증폭된 외국인과 서양 종교에 대한 제주도 주민들의 반감 때문이었다. 평양에서 이기풍선교사 파송예배를 집례한 길선주 목사의 예견대로 제주선교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우상과 미신의 굴레에 매여 있었고 신축교란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주도 주민들은 선교사 이기풍을 처음부터 극심하게 박해하였다. 그러면 이기풍이 제주에 오기 7년 전에 일어났던 신축교란에 대하여 살펴보자.

124) 박용규의 책은 이기풍 목사가 목포행 기차에 올랐다고 전한다. 그런데 한국철도연혁에 의하면 호남선(대전~목포)은 1914년 1월 11일에 개통되었다.

125) 『예수교회보』, 43쪽.

126) 김인수,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2008), 80쪽.

127) 이사례, 위의 책, 47쪽.

신축교란(辛丑敎亂)

사실 제주도에 개신교의 역사는 그 출발에 있어 천주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제주도와 천주교의 부정적인 관계로 마무리된 1901년 신축년에 일어난 신축교란이라고 하겠다.¹²⁸⁾ 신축교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개신교회의 형성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는 천주교 전래의 과정을 살펴보자.

제주에 천주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886년 조불수호조약(朝佛修好條約) 체결로 신앙의 자유가 획득된 19세기 후반이다. 광무 3년 1899년 프랑스 사람 페네(Jean Charles Peynet, 裴嘉祿)신부와 김원영(金元永)신부가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읍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페네신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얼마 후 다른 지방으로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1900년에 프랑스신부 라쿠르(Lacrouts, 具瑪瑟)가 입도했다. 이어 그 이듬해 뭇세(J. G. Mousset, 文濟) 신부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세 신부가 제주에 入道함에 따라 제주 성내와 서흥리(西興里)에 교회당을 세우고 또 큰 마을에는 공소(公所)를 두어 천주교 포교를 시작했다. 처음 천주교의 제주선교는 쉽지 않았다. 외세의 압박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서양종교로 널리 알려진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은 곧 反탐라적, 反민족적 행위였다. 특별히 외세의 침략이 그치지 않았던 제주도 민중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처음 제주도민들은 천주교에 잘 귀의하지 않다가 조정에서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하고 보호하라는 특명이 내려오면서 달라졌다. 천주교가 세력화되고 여기에 합류하여 부역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천주교 교세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다. 박장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천주교의 교세가 갑자기 확대된 것은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 권력층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 누적되어 있었고, 숙명적인 빈곤과 삶, 역사적인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종 광무 초에 천주교가 처음 선교되기 시작하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 교우로 대우해 주는 천주교에 감격하여 입교하거나 또한 봉건적인 억압과 인습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것으로 생각하여 입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제주 목사와 군수들에게 돈을 강탈당한 사람들과 1900년경부터 봉세관(奉稅官)을 보내어 정부의 부족한 왕실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각종 잡세를 징수하는 등의 정치의 부패와 문란도 교세 확장의 이유였을 것이다. 즉 종교적인 부분 보다는 민생고에서부터 탈출구를 찾는 도민들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제주에 유배와 있던 학식 있는 자들이 천주교에 입교한 사실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¹²⁹⁾

128) 역사적으로 '교안(敎案)은 공식 박해가 끝난 뒤 일어난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여기에는 박해와 유사한 성격, 일반 민중과의 갈등, 외교문제 등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다.

이처럼 천주교의 초기 선교활동은 신자공동체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선교 개시 2년 여 만에 교세는 영세 242명, 예비자 700명으로 1천 명에 가까운 제주도민들이 천주교에 귀의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던 천주교는 제주 현지인과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신축년(辛丑年)인 1901년 5월에 발생한 민란으로 인해 교인 대부분을 잃는 참화(慘禍)를 겪게 된다.

신축교란(辛丑教亂)의 발생 원인

신축교란은 당시 천주교도들의 월권과 행패, 그리고 과중한 과세의 폐단에 반발한 민중들이 봉기하여 제주성에 입성하여 천주교도들을 색출, 처단한 사건이다.¹³⁰⁾

이 민란은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1901년 신축년에 천주교인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해서 **신축교란(辛丑教亂)**이라 불리고, 이재수(李在守)가 주동이 되었다고 해서 이재수 난이라고도 불린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들의 희생이 컸다고 해서 **신축교안(辛丑教案)**이라고 부른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민요(民擾)의 성격이 강하다 하여 **신축민요(辛丑民擾)** 혹은 **신축민란(辛丑民亂)**이라고 말한다. 이 신축교란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프랑스군과 일본 함대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제주통사에서 김봉옥이 지적한 대로 이 난은 “전도(全島)에 걸쳐 천주교도와 도민이 무력 충돌한 사건”이었고,¹³¹⁾ 홍순만의 주장처럼 “봉세관의 세폐(稅弊, 세금징수의 폐단)와 천주교의 교폐(敎弊, 천주교회가 현지인에게 끼친 폐단)”가 그 원인이었다.

신축교란의 발단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부터 지속되어 온 제주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수탈과 착취에 대한 저항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민란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교폐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과정이 발단이라며 지방관리의 부패와 수단에서 찾으려고 하는 천주교의 입장이다. 전통적인 민란의 성격으로 조명하든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든, 1901년 신축교란은 수탈과 착취에 대한 저항이었다.

한편 한인수는 신축교란의 배경에는 제주해역까지 진출하여 제주도 어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있던 일본인들의 책략적 행위가 숨어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앙의 세폐에 대한 토착민들의 반발의식을 암암리에 부추기면서 민란을 선동, 조종, 악화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향해있는 주민들의 반일적(反日的) 정서를 다른 곳에서 분출하도록 공작했다는 것이다.¹³²⁾ 결국 신축교란은 동족 간의 살육으로 끝을 맺게

129)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선교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7, 18쪽.

130) 홍순만 편, 『增補耽羅誌』, (제주: 제주문화사, 2005), 508쪽.

131)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189쪽.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은 제주도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신축교란의 양금은 후일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진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신축교란이 제주선교에 끼친 영향

1901년 신축교란은 몇 가지 점에서 제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한국정부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신뢰가 깨졌다. 재판관을 통해 민란을 주도한 이재수, 강우백, 오대현 등 민간인 책임자들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지만, 문제의 발단인 천주교 측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은 프랑스의 무법과 횡포를 보면서 한국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미약하여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째, 1901년 신축교란은 서양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다. 제주민중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곧 군림하여 지배하는 권력 집단으로 비추어졌다.¹³³⁾ 이 같은 서양종교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은 곧 시작될 이기풍의 제주선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축교란은 기독교가 제주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기독교가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섬김의 종교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¹³⁴⁾ 제주민란 이후 제주도의 토착문화전통은 더욱 폐쇄적으로 굳어져 갔으며 천주교로 대변되는 서양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했다. 이러한 상황은 ‘웬당’으로 대표되는 토착문화전통의 특수성과 열악한 자연환경과 극심한 가난이 다중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근대화 및 외부 세력에 맞서야 했던 제주도 현지인의 고통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엄혹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개신교 신앙공동체 지도자들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도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으며 현지인들의 종교적 갈망에 개신교가 응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주도 첫 교회 논란

이기풍 목사의 입도 후 제주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이 논란의 시작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사기를 기

132) 한인수, 『濟州宣敎 百年史』, 도서출판 경진, 2009, 16쪽.

133) 大板朝日新聞 1901, 12 17. 재인용. 이런 상황에서도 천주교는 제주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 1901년 12월 17일자 조일신문이 보도하는 대로 “선교사 2명 입도하여 포교에 힘쓰고 있으며, 조만간 제주성읍에 교당 하나를 세울 예정이고 소요 이전보다 더 크게 확장될 것 같다.”

13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200쪽.

술하기로 하고서 각 노회에 사기 집필위원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노회는 1918년 7월 6일 제2회 노회에서 이렇게 결정하였다.

교회 사기 수집 위원 배유지, 변창연, 이기풍, 변약한을 선정하다.¹³⁵⁾

이렇게 수집된 사료들을 중심으로 총회의 사기 집필위원들이 편찬하여 1928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를 발행하였다. 이 책은 사학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편찬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후대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일단 그 기록을 중시하고 문제가 된 점이 있을 때에는 오늘날에 확보된 추가적인 사료들과 교차 비교함으로써 수정된 견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금성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1908년 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제주도 금성리교회(錦城里教會)가 성립하다 독노회(獨老會) 설립 당시에 파송한 전도 목사 이기풍(李基豐)과 매서인(賣書人) 김재원(金在元) 등의 전도를 인하여 조봉호(趙鳳浩), 이도종(李道宗), 김씨 진실, 조운길, 양석봉, 이씨 승효, 이씨 자효, 김씨 도전, 김씨 유승, 좌징수(左澄洙), 이의종이 귀도(歸道)하여 조봉호 가에 회집기도(會集祈禱)하다가 이덕연 가를 예배처소로 작정하니라.¹³⁶⁾

이어서 1909년에 조천교회가 성립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제주도 조천리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노회에서 파송한 전도 목사 이기풍의 전도로 천씨 아라가 먼저 믿고 신자가 증가하므로 천씨는 자택을 예배당으로 기부하여 교회를 설립하니라.¹³⁷⁾

그리고 1910년 편에서 성내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제주도 성내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이기풍이 당지에 래(來)하여 산지에서 전도할새 경성에 기유할 시에 수세한 김재원을 봉착하여 협력 전도한 결과 홍순홍, 김행권 등이 귀주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일덕리 중인문 내에 초옥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전도인 김홍련, 이선광 등이 전도에 노력하니라.¹³⁸⁾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주에서 1908년에 금성교회, 1909년에 조천교회, 1910년 성내교회의 순서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고려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190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교육’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135)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295쪽.

136) 차재명, 위의 책, 상권, 265~266쪽.

137) 차재명, 위의 책, 상권, 268~269쪽.

138) 차재명, 위의 책, 상권, 274쪽

제주도 성내교회에서도 남녀 소학교를 설립하여 자녀를 교육하니라.¹³⁹⁾

성내교회가 1910년에 세워졌다면 1908년 성내교회에서 소학교가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써 성내교회가 예배당으로서 터를 잡기 전에 아동교육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월 말 혹은 4월 초순에 이기풍 목사의 부인 윤함애가 가족과 함께 도착하면서, 교육선교 사역이 출발하였을 것이다. 단지, 그 교육의 주체를 “이기풍과 윤함애” 등 사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를 주저하여, 대신 성내교회라고 소급하여 표현하였을 뿐이다. 제주도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제주도의 아동들을 모아 남녀반으로 나눈 후 남자반은 이기풍, 김재원, 홍순흥, 김행권, 김홍련 등이 맡아서 가르치고, 여자반은 윤함애가 맡아서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용한 대로 1908년 교육 부분에서 위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는 역사적 기록 자체에 대해 엇갈린 진술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서 최초 교회 설립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두 교회는 금성리교회와 성내교회이다. 현재 장로교의 교회 설립에 가장 권위 있는 자료는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이고 제주도의 선교지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독노회록』 이라고 할 때, 인용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한편 성내교회는 1917년에 장로를 임직하고 당회를 조직하면서 교회의 시초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다. 아래는 「제주성내 서문내교회 당회서문」의 첫 부분이다.

“일천구백팔년 2월부터 제주교회가 시작되야 점점 흥왕호는 중에 전라로회에서 제주 서문내교회당회를 조직호라는 승인을 가지고 일천구백십칠년 4월 1일에 전라로회 시찰원 윤식명, 남대리, 리기풍 3씨가 제주서문내 레비당에 새 장로장립예식을 거행호고.....”¹⁴⁰⁾

‘1908년에 제주교회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은 제주지역 선교의 출발 시점을 1908년으로 기록하는 이상의 뜻은 없다고 본다. 제주성내교회와 제주성안교회는 100년사를 편찬하면서, 이 제주교회 부분을 성내교회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이 제주교회를 성내교회로 국한하여 읽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라고 본다. 성내교회는 위 당회 서문에서 분명히 구분하여 ‘서문내교회’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이기

139)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권, 277~278쪽.

140) 『제주성안교회 100년』, 110쪽.

풍 목사의 ‘교회 설립’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이다. 독립적인 예배공간을 확보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회중이 모일 수 있을 때, 그는 교회가 성립했다고 표현한다.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롭게 신자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배당 혹은 기도처소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 이는 아직 교회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1908년의 성내교회는 아직 교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로, 김재원과 이호리공동체가 성내교회로 편입되고 교회활동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기풍은 그들의 자주적인 신앙공동체 성장을 자신의 사역의 성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는 교회사를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선교를 통해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신앙에 입문하거나 교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사실을 아우르는 교회사 서술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래의 모(母)교회 중심의 선교자료나 교회사 서술은 적절하게 비판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 2>에서 맨 왼쪽의 창립연대는 각 교회의 성립연대를 제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연대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정리하였다. 각 교회에서 기억, 혹은 기록하는 교회의 출발점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사역자의 파송 혹은 부임, 첫 결신자 및 세례 혹은 임직, 교회 예배 공간의 확보 혹은 건축 등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의 입장은 마지막의 교회 건물 혹은 예배 공간 확보라는 기준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교회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희망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교회의 으뜸 기능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공공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정기적인 예배가 꾸준히 지속되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창립연대를 정한 것이다. 참여 인원이나 연령층에 상관없이 그 예배가 면면히 이어져서 오늘에 이른다면 교회의 출발로 보려는 입장이다. 물론, 현행 교회법에 따른 교회의 창립과 설립의 기준과는 다른 의미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표 2〉 제주 교회 창립연대

	창립	사기	100년사	노회사	총감	보고서
성내	1904	1910	1908	1908	1908	1908
금성	1907	1908	1908	1907	1907	1908
조천	1909	1909	1909	1909	1909	1909
성읍	1910	1922	1909	1909	1909	1909
모슬포	1910	1912	1910	1910	1909	1910
중문	1915	1914	1914	1915	1914	1915
삼양	1915	1918	1908	1905	1915	1915
고산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용수	1918	1921	1913	1918	1913	1908

사 기 /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1928) 100년사 / 제주선교100년사(2016)
 노회사 / 제주노회사(2000) 총 감 / 제주교회총감. 제주기독신문사(2008)
 보고서 / 제140회 제주노회 보고서(2014)

3) 이기풍 목사의 교육 선교

1908년, 제주도에 도착한 이기풍 목사가 학교를 시작하는 것으로 제주도선교의 시작을 삼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크게 세 부분에서 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당시 구한말(舊韓末)에 신교육 바람이 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교육 강조의 진원지 가운데 한 사람인 박영효가 제주도에 귀양살이하면서 이기풍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셋째는,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정책이 교회에서 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구한말(舊韓末) 신교육 바람

견미사절단(見美使節團)으로 미국을 다녀온 민영익을 비롯한 일행은 1884년 6월에 고종에게 우체국과 학교 그리고 각종 서구식 제도를 건의하였다. 그 가운데서 우체국은 갑신정변으로 말미암아 개국하자마자 폐지되었다. 이어서 1886년 9월부터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대학원(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을 졸업한 세 사람, **허버트**(Homer B. Hulbert), **벙커**(Dalziel A. Bunker), **길모어**(Georege W. Gilmore)를 교사로 초빙하여 ‘**육영공원**’을 개원하였다. 양반의 자제들을 서양식 교육을 받게 하고 관리로 등용하려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학교는 재정난에 부딪혀 1894년부터 미국 북감리교 한국선교회에서 세운 배재학교에 이 교육의 일부를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95년 10월에 갑오개

혁(甲午改革)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관리등용의 문호를 반상제도와 관계없이 능력자에게 개방하자, 이제는 누구든지 서구식 교육만 받으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분위기는 곧바로 한국의 서민계층에게 서구식 학교를 선호하게 하였다. 한국 내에서 선교하던 각국 선교회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회 내에서 서구식 교육을 하는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박영효의 후원

이러한 서구식 교육입국의 기치를 부르짖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박영효였다. 박영효는 1861년에 태어나 1872년에 철종의 외동딸 영혜옹주와 결혼하여 금릉위(錦陵尉)가 되었다. 그는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을 접했으며,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일본에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일본을 통한 개화를 꿈꾸게 되었다. 그러다가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에서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참여함으로써 역적이 되어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 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 1894년까지 약 10년 동안 뼈아픈 망명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에 박영효는 1888년 미국선교회가 운영하는 메이지(明治)학원의 영어과를 졸업하고, 요코하마 미국교회에 참석하면서 동서양의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였다. 이 당시 박영효는 일본의 개화파 인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개화사상에 빠졌으며, 그들의 도움으로 1893년 말 도쿄에 교포 유학생들을 위한 친린의숙(親隣義塾)을 세워 운영하기도 하였다.

박영효는 1894년 8월 23일 친일인사의 영입에 따라 서울로 돌아왔으며, 12월에는 김홍집 제2차 내각의 내무대신으로 발탁되어 다시 정치 일선에 섰다. 그러다가 1895년 10월 을미왜변에 연루되어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것이 그의 제2차 망명이다. 이렇게 하여 박영효는 또다시 일본에서 10여 년을 보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박영효는 1907년 6월 초에 비공식으로 부산에 들어와 있다가 6월 13일에 고종의 특사를 받게 된다. 성대한 환영을 받으면서 서울로 복귀하여 7월에는 궁내부대신 직을 받았다. 그러나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밀려나게 되자,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과 강행하려는 세력이 맞설 때 박영효는 양위 반대파에 섰다. 그 결과 양위 찬성파를 암살하려 하였다는 죄목으로 제주도 1년간 귀양을 오게 된다. 그러나 해배(解配)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1910년 2월까지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제주도 개발 사업에 기여하였다.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907년 9월 3일/ 박영효 재작일 인천항에서 윤선을 타고 목포를 거쳐 제주 향발.
 1907년 9월 6일/ 박영효, 부인, 딸과 사위, 하인 등을 데리고 유배지 제주 도착, 제주 유지들 마중.
 1908년 1월 5일/ 제주 안치 박영효씨의 석방할 뜻을 내각에서 제의.
 1908년 1월 23일/ 박영효씨가 늑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민들이 굴나무를 작별하지 못하도록 함.
 1908년 6월 19일/ 제주 안치 박영효씨 해배되었다 함.
 1908년 7월 14일/ 박영효 제주 인사와 협의하여 설립한 의신학교가 개학 반년 만에 학생 수가 백여 명.
 1908년 8월 9일/ 박영효씨 해방 후에도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봄에 개간한 과수원을 돌보기 위해
 연말까지 머물 예정.¹⁴¹⁾

이렇게 박영효는 해배(解配) 후에도 제주도에 머물렀지만 1909년 7월에 이르러 신병이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활동을 중단하였다.

박영효는 제주도에 귀양살이하던 1907년 9월부터 1910년 2월에 이르기까지 이기풍 목사와 만나게 되었다. 이기풍 목사에게 그의 교육 입국론을 펼침으로써, 이기풍 목사의 선교는 먼저 제주도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교육으로 시작하게 했다.

박영효는 제1차 일본 망명 시절인 1888년 고종 황제 앞으로 ‘건백서(建白書)¹⁴²⁾’를 보냈다. 이 상소문의 제6조에 해당하는 “六曰教民才德文藝以治本”에서 박영효는 교육, 문화, 종교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였다. 먼저 박영효는 전통적인 유교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유교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구학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만일 四書三經과 諸子百家의 書를 읽고 외워서 문장깨나 지으면 비록 어리석고 썩어빠진 유생이라도 大學士라고 일컬어지고 士大夫에 올라 백성과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 여러 나라가 쇠퇴하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무는 학교를 크게 일으키고 博學 達理한 선비를 맞이함으로써 나라의 인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로는 세자 전하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입학시켜 공부하게 함으로써 천지의 無窮한 理를 밝힐 것 같으면”¹⁴³⁾

박영효는 위에서 인용한 대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에서 벗어나 서구의 새로운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한국에는 이미 1886년 9월부터 육영공원이 세워져 있었으며, 미국에서 초빙한 선생들이 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박영효는 종교에 대해서도 “.....무릇 종교란 것은 인민의 자유 신분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간섭해서

141) 고창석·강만생·박찬식, 『제주사 연표 I』, (제주: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5), 344~354쪽.
 142)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가 1888년(고종 25년) 2월 24일 고종에게 개화 정책을 제안한 상소문.
 143) 강제언 저, 정창렬 역, 『한국의 개화사상』, (서울: 비봉출판사, 1981), 285쪽에서 재인용.

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 一. 소 중학교를 설립하여 6세 이상의 남녀가 모두 입학하여 수학하도록 할 것.
- 一. 장년 학교를 설립하여 한문 혹은 언문으로 정치, 재정, 내외법률, 역사, 지리 및 산술, 이화학대의 등의 서를 역하여 소장의 관인을 가르치고
- 一. 먼저 인민을 가르침에 국사 및 국어 국문으로 할 것.
- 一.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민을 가르침에 법률, 재정, 정치, 의술, 공리 및 제 재예로써 할 것.
- 一. 활자를 주조하여 종이를 만들고, 인쇄소를 많이 설립하여 서적을 많이 간행할 것.
- 一. 동서양 제국의 어학을 크게 일으켜 교신을 편하게 할 것.¹⁴⁴⁾

그 밖에도 박영효는 박물관 설치, 대중 연설과 계몽 활동, 신문사 설립, 종교의 자유 허용 등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박영효가 제주도에 머물던 기간 중 1908년 7월 14일에 “박영효가 제주도 인사와 협의하여 설립한 의신학교가 개학 반년 만에 학생 수가 백여 명”이라고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기록에서 보듯이,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도착과 더불어 학교를 통한 선교의 의지를 굳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로회 선교 공의회 교육 장려

또한 동시에 남녀 소학교의 설립은 1893년 1월 장로회 선교 공의회(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에서 선교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결정한 일이다. 이때 결정한 선교 정책은 다음과 같다.

- 一. 선교의 목표를 상류층보다는 노동 계층에 두는 것이 낫다.
- 一. 부녀자와 청소년 전도를 특수 목표로 한다.
- 一. 군 소재지에 초등학교를 세워서 그 가운데서 남학생을 교사로 양성하여...
- 一. 이른 시일 안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다.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07년 노회에서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의 ‘교과 과정’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1908년 노회 때부터 학무 부와 학무위원을 둬으로써 정규화될 수 있었다. 학무 부는 서울 주재 언더우드(H.G. Underwood) 목사를 국장으로 하고, 각 지방 대리회에 지방위원을 두어 중앙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학습 과정, 교과서 등 모두 사무를 관장케 하였다.¹⁴⁵⁾ 이러한 학무국에서 정한 학습 과정은 소학교(초등

144) 강제언 저, 정창렬 역, 『한국의 개회사상』, (서울: 비봉출판사, 1981), 287~288쪽에서 재인용.

145) 독노회록 제2회, 1908년, 17쪽. 노회록은 이렇게 기재한다.

학교) 과정과 중등 과정이 있었는데, 소학교 과정의 학습 과정은 다음의 표와 같았다.

〈표 3〉 소학교 학습 과정

	성경	국문	한문	습자	사기	격치	산학	지리
일년급	십계명 습독 주기도문 습독 요절 습독	초학언문 성경 문답	초등소학 일권 몽학첩경초편 상혹류합					
이년급	산상보훈 습독 요절 습독	천로지귀 국문독본 국문자고서	초등소학 이권 몽학첩경이편 상 심상소학 일이삼권				획자	
삼년급	마가복음 요절 습독	훈아진언 구세진전 국문자고서	초등소학 삼권 몽학첩경이편 하 삼자경	작문			함감법	오주사양 형편
사년급	마태복음 요절 습독	복음요사 인가귀도 국문자고서	초등회도몽학과본 수집 요동천자 일권 후 삼요록	작문			송소분법 굴산	아세아 각국산천 대한지도
오년급	누가복음 요절 습독	장원상론 예수행적 구세론 국문자고서	고등소학 소박물학 회도몽학과본 이집	작문			대등 제등법 굴산	중지지
육년급	요한복음 요절 습독	성경도설 국문자고서	유동천자 삼권 회도몽학과본 삼집 덕해입문 행심수도	초서	동국역사	전례공용 문답 혹 위생	기공성수 소공배수 굴산	대한지지 사만필지 시작

출처 『제주기독교 100년사』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의 첫출발을 교육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풍 목사는 조선 사회의 시대적 요청, 교육을 통한 입국을 강조하는 박영효와의 만남, 그리고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의 교육 정책 등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제주도 선교에서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는 사업부터 착수하였으며, 이는 곧바로 결실로 이어졌다. 이것은 비록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제주의 대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책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08년 이기풍의 부인 윤함예는 34명을 사택에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다. 1910년에는 삼도리 예배당에서 6년제 영흥(永興)학교가 설립되어 남녀학생 수십 명이 교육을 받았다. 조봉호(趙鳳鎬), 좌징수(左澄洙), 김동선(金東善), 김세라(金世羅), 강규언(姜奎彦), 김봉주(金鳳周), 홍마대(洪瑪大), 홍마리아(洪瑪利亞) 등이 교사로 섬겼다.¹⁴⁶⁾

그리고 김재선, 김세옥, 이인전, 윤진실, 윤신실, 김옥성, 김광삼, 윤정애, 신재홍, 정상조, 홍보영 등이 합세하였다. 성내교회의 영흥학교는 1920년 가을 윤식명 목사에 의

(1) 학무국 권한: ① 과정 ② 규칙 ③ 청원식 ④ 보고식 ⑤ 교과서 검열 ⑥ 교섭 ⑦ 재정
146) 姜文昊, 文泰善, 『濟州宣敎 70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8) 46쪽.

해 출범한 모슬포교회의 광선의숙(光鮮義塾), 원용혁 조사가 청소년들을 모아 교육에 힘썼던 협재(挾才)의 영재야학부(英才夜學部), 그리고 1924년 4월 성내교회의 관인 중앙유치원 개원에 이르면서 제주 개신교 교육의 맥을 형성하였다.

남강 이승훈

성내교회 영흥학교는 박영효의 직간접적인 도움과 함께, 짧은 동안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남강 이승훈의 영향도 받았다. 남강 이승훈은 ‘남만주무관학교사건’(일명 안명근 사건)의 연루자로 1911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조천읍 조천 포구에서 유배 생활을 한 일이 있었다. 이승훈은 짧은 동안이지만 제주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민족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조그만 숙소에 유숙하면서 낮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도왔고 밤에는 등잔 아래서 성경 공부와 기도로 날을 보냈다. “그는 곧 교회와 학교로부터 강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용동 동네 사람들에게 하던 것처럼 민족주의의 고취와 민족성 개조에 관한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¹⁴⁷⁾

이 기간 동안 남강 이승훈과 영흥학교에 재학 중인 이의종(李義宗)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 이의종은 이도종의 형으로 16세 때 남강 이승훈이 재직하던 평북 정주 오산학교에 유학하여 졸업한 후에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성내교회의 영흥학교는 예배 의식과 종교의식을 가르침과 아울러 교회와 민족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이기풍 목사는 한편으로는 제주시에서 김재원, 홍순흥, 조봉호 등과 함께 교육 선교에 힘썼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홍련, 이선광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전도함으로써 금성리, 조천리 등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기풍 목사는 1908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모인 제2회 노회에 김홍련과 함께 참석하여 이렇게 보고하였다.

“전도국 위원 김찬성 씨가 보고함이 여 좌하니”

- (2) 통신원을 두어 제주전도 형편을 편지대로 신문에 게재함.
- (3) 선교사의 월급은 매삭 20원, 전도인의 월급은 매삭 15원으로 지출한 일.
- (8) 제주 전도하는 일은 잘 되옵는데, 원입인 아홉 사람이오며 매 주일 모이는 사람은 이십여 명이오며.¹⁴⁸⁾

147) 김기석, 『남강 이승훈』 (서울: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94), 170~71쪽.

148) 제2회 독노회록 (1908), 6~7쪽.

제주도의 교육기관

그렇다면 제주도에 공교육 혹은 사교육기관이 없었는가? 조선 왕조는 1895년에 공립학교령을 발령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에 학교를 세우게 하였는데, 제주도는 비교적 늦게 학교가 세워졌다.

제주도의 공립학교는 1906년 8월(광무 10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 윤원구(尹元求)가 제주목 객사로 사용하던 영주관(瀛洲館)을 개축하여 ‘**제주공립보통학교**’라 하였다. 하지만 교원이 확보되지 못하여서 개교를 미루다가 1907년 2월에 지홍유(池弘遊)가 부교원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4월 19일자로 윤원구 목사가 학교장을 겸하는 발령을 받음으로써 개교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일본이 이미 한국의 각 분야에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1908년 1월에 일 본인 하시구치 류타로(橋口龍太郎)를 훈도 겸 교감으로 발령하고, 1909년 6월에는 고마쓰 겐기치(小松兼吉)가 훈도로 발령을 받음으로써 공립학교의 교육은 전적으로 일본인 교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09년 3월에는 정의군에도 ‘**정의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고, 대정군에서는 1908년 10월에 ‘**사립한일학교**’로 출발하였다가 1911년에 정의공립보통학교에 흡수되었다. 한편 사립학교는 1909년 10월에 천주교 신부 구마슬이 ‘**신성학교**’를 설립하여 여성 교육에 힘쓴 것이 처음이었다.¹⁴⁹⁾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주 목사 윤원구는 박영효의 도움으로 정부의 학교 설립 지원금 8천원으로 굴림서원의 자리에 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신학교**’(義信學校)를 세워 1907년 연말 혹은 1908년 1월에 개교하였다. 그러다가 1910년 5월에 2년제 공립 간이농업학교로 개편되었는데, 이것이 후일 ‘**제주농업고등학교**’가 된다.¹⁵⁰⁾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공립교육 진행은, 특히 일본인 교사 위주로 발령 받은 것 등을 볼 때 이 당시 제주도에 귀양 와 있었던 박영효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개신교 계열에서도 제주도의 선교를 위해서 학교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기풍 목사와 제주도 출신으로서 출도(出島)하여 육지에서 선진문물을 보고 배운 초기 지도자들의 노력과 헌신을 결코 빠뜨릴 수 없다. 이들은 바로 김재원과 조봉호이다.

이 기간의 교회와 학교 설립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149)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 제주문화), 1987, 202쪽.

150) 『제주통사』, 202쪽. 그렇지만 “제주사 연표”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보도를 이용하여 의신학교의 개교는 1907년 말 혹은 1908년 초로 말하고 있다. 이 학교의 설립에는 박영효의 중앙정부와의 연결이 크게 작용하였다.

제주도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단체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와 조선 왕조의 근대화 이행이었다. 이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은 1901년 ‘신축교란’으로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개신교는 선교 초기부터 학교와 교육으로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함으로써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구별된 입장에서 선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표 4〉 1907년~1910년 제주도 학교 설립 현황

	교회 설립		학교 설립				비고
	개신교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	공립학교		
					초등	중등	
1907년					제주 공립 보통학교	의신학교	
1908년	금성교회		성내교회 (남/여학교)		사립한일학교 (대정군)		1911년에 정의공립보통 학교에 흡수됨
1909년	조천교회			신성학교 (여학교)	정의 공립 보통학교 (정의군)		
1910년	성내교회					농업간이 학교	의신학교를 개편함

4) 이기풍 목사의 의료선교

미국 남장로회 의료 봉사

조선 왕조는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각 정부(목, 현)에 이르기까지 의생(醫生)을 두어서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여 왔다. 특히 ‘혜민서’(惠民署)는 거의 무료로 가깝게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 이러한 조직에 따라서 제주도에도 의료인이 상주하였다. 1672년(현종 13년)에 최초로 의료인을 파송하고, 1720년(숙종 46년)에는 약국을 설치하여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에서도 약국을 운영하였다. 약국의 요원은 제주목에는 감관(監官) 2인, 의사 14인, 약사 20인이 있었으며 정의, 대정현 약국에는 의사 2인, 약사 8인이 있었다.¹⁵¹⁾

조선 왕조시대에는 질병이 자주 발병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제주도에는 1770년(영조 46년)에 역병이 돌았고, 1824년(순조 24년)에 콜레라가 만연하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886년(고종 23년)에도 역병으로 많은 목숨을 잃었

151) 『濟州島誌』, 제3권, 2006, 483쪽.

다.¹⁵²⁾ 그리고 1909년 초에 “제주 지방에 괴질로 삼천여 명이 사망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¹⁵³⁾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속국으로 복속시킨 후 한국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조선 왕조에서 운영해 오던 각 지방의 ‘혜민서’를 ‘자혜의원(慈惠醫院)’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원한 것이다. 제주도에 1912년 10월 14일부터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자혜의원’이 개원하였으며, 일본인 아리카와 토오루(蟻川亨)가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 의원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는 제주도에 의료선교를 시도하였다. 목포, 전주, 군산, 광주의 의료선교사들이 매년 한 차례 이상씩 제주도에 가서 15일에서 30일 동안, 심지어는 두 달 동안 제주도민의 각종 질병을 치료한 것이다. 이는 초기 교회 정착에 큰 힘이 되었다.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는 연례대회에서, 매년 1월 혹은 2월에 제주도에 성경학교와 의료 봉사를 할 선교부를 순번제로 할당하였다.

이 가운데서 포사이드(William H. Forsythe: 보위럼)와 윌슨의 의료선교 사역에 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1910년 5월에 광주 선교부의 목사 프레스턴(John F. Preston: 변요한)과 목포 선교부의 의사 포사이드는 전남노회가 모인 다음에 제주도로 돌아가는 이기풍 목사와 동행하여 제주에서 각각 영적 부흥과 더불어 의료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8월 광주에서 개최된 미국 남 장로교 한국선교회 연례대회에서 목포 선교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프레스턴 목사와 한 주간의 제주도 여행을 하였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치료 받으러 나오는 모습은 어린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과 더불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는 간절한 필요를 가슴 아프게 증언해 준다. 우리는 의료선교 여행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목포 진료소 소속의 의학생들이 두 달간 치료 여행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1천 건의 치료를 행하였다. …… 목포와 제주를 합하여 17,800여 건의 치료를 베풀었다.¹⁵⁴⁾

152) 『濟州島誌』, 제3권, 2006, 483쪽.

153) 『제주사 연표 I』, 350쪽.

154) Mokpo Station Report, Station Reports to the Nineteenth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910, p.51. 재인용

〈표 5〉 미국 남장로회 의료선교

	선교부	선〈표 5〉	기간	효과
1909년				
1910년	목포	Rev. Preston 목사 Dr. Forsythe	· 의료선교는 2개월 동안 지속 · 조수를 남겨둠	· 18,000여 건 치료 · 매일 4~5백 명 치료
1911년	목포 광주	Miss. Graham Mrs. Nisbet	· 가을에 방문	
1912년	광주	Dr. Wilson과 한국인 조수들	· 5월 방문	· 오전 60~70명 진료 · 저녁 3~4건 수술
1913년	광주	Dr. Wilson	· 1월 한 달	· 총회에서 제주 선교는 전라노회가 전담하기로 하다.
1914년	전주 목포	Rev. & Mrs. Tate Rev. & Mrs. Nisbet	· 2주간 지속	· 남녀 성경학교 운영 · 매일같이 저녁 부흥회 개최, 250~400명 참석

출처 『제주기독교 100년사』

목포 선교부는 포사이드 의사의 활동을 부드럽게 표현하였지만, 동료 선교사로서 옆에서 지켜보았던 프레스턴 선교사는 포사이드의 열정과 활동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포사이드는 프레스턴과 함께 근래에 제주도를 방문하였으며, 날마다 진료를 실시하여 400명 이상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그곳에 조수를 몇 명 남겨둠으로써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포사이드 의사는 자지도 먹지도 않고, 거의 모든 시간에 치료하고 전도한다.¹⁵⁵⁾

동료 선교사들은 자기네들보다도 복음 선교에 더욱 열중하는 의사 포사이드에 대하여 크게 부담스러워하며, 질투심이 담긴 표현까지 보여주고 있다. 1910년 5월부터 1911년 5월까지의 목포 선교부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의료사업에서는 포사이드 의사가 한 해 동안 놀라운 일을 하였다. 그는 새로운 병원 건물을 희망한다. 의사는 진료소의 젊은이들을 훈련 시켜서 돕게 한다. 그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그곳에서도 의료 지소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병원에서 전도에 열을 올림으로써 병원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이다.¹⁵⁶⁾

포사이드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의 질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1910년 5월에 호남 대회를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이기풍 목사와 함께 제주도에 와서 전도와 치료에 전

155) Notes from Quarterly Report, "From April to June at Mokpo", The Missionary, Nov. 1910, pp. 558.

156) The Editor, "Korea Mission", The Missionary, May 1911, pp. 240~241.

넘하였다. 동료 선교사 프레스턴이 동행하였다.

남장로교 목포 선교부 소속 목사와 의사의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목포 진료소에서 양성하는 의학생들이 두 달간 성내교회를 중심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의료 및 선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곧바로 변요한 목사와 포사이드 의사가 당도하여 각각 2주간 그리고 1주간씩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내교회는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봉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교회가 급격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제주도의 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자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천주교 측에서는 이기풍 목사를 위협하거나 간접적으로 회유하기도 하면서 개신교 선교활동을 중지시키려 하였다. 코이트(R.T. Coit: 고라복)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선교는 제주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선교사는 그곳에 가톨릭의 고위직 사람으로부터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고위직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며, 거절하면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¹⁵⁷⁾

제주도 선교병원의 불발

포사이드 선교사와 더불어 제주도선교에서 의욕을 보이며 활발하게 제주도의 의료 선교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윌슨(Robert M. Wilson: 우월순)의료선교사이다. 그는 1912년 5월에 아내와 조수(최홍중 장로)를 대동하고 제주도에서 활동하였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한다.

우리는 3년 동안 제주도에 병원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5월에 방문하였으며, 우월순 의사는 아침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밤에는 찬양(예배)을 인도하였다.치료받으러 너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 네 사람은 이들을 잠잠케 하였다.두 번째 날에 나는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둘러 따라갔는데, 그는 도로상에 의식도 없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다. 거의 죽은 것과 같았지만 마지막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인공호흡과 힘든 조치를 하여 반 시간 뒤부터 숨 쉬게 되었다. 사람들은 몰려들고 나의 조수(최홍중 장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그 자체가 위대한 설교였다. 아침에는 50~7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오후에는 3~4건의 수술을 하였다.¹⁵⁸⁾

이기풍 목사로서는 교회의 기틀이 잡혀가고 이곳저곳에서 인력의 지원이 지속해서

157) R. T. Coit, "The Presbytery of Korea", 1, 1911, pp. 29~30. 재인용.

158) R. M. Wilson, Medical Report of Kwangju St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Oct. 1912, pp. 292~293. 재인용.

이루어짐으로써 원하는 선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병이 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선교 병원을 갖는 일이었다. 병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제주도 도민의 안타까운 처지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월슨의 글에서도 보듯이 제주도선교를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이기풍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즐기차게 선교 병원을 세우려 하였지만, 미국 남 장로회 한국선교회는 재정과 선교 인력의 부족으로 제주도에 선교 병원을 세우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한국인 의료선교사 오공선 박사도 1913년에 이렇게 지적하였다.

제주 사역은 밝으며, 이 목사가 일한다. 지난봄에 Dr. Wilson이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진료하였다. 그곳에 선교 의사가 상주하기를 바란다.¹⁵⁹⁾

그러나 제주도의 선교병원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꿈은 1972년 카딩톤(Herbert A. Codington: 고허번) 의료선교사가 광주기독병원에서 선교사역 20년을 끝내고 방글라데시로 가기 전에 다시 시도하였으나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5. 이기풍 목사의 대외활동과 협력목회

제주도의 초기선교사역은 이기풍 목사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였다. 이기풍 목사의 연중 일정은 다음과 같다.

매년 1~2월에는 호남지방 각 선교부에서 개최하는 남자반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성경 공부 및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다. 때로는 3월에 목포와 광주의 선교학교에서 시행하는 졸업식에 참석하여 설교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4월 혹은 5월에는 전라 노회/전남 노회 혹은 각 지역의 노회에 참석하여 제주도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제주도로 돌아갈 때는 미국 남 장로회 소속 호남지방의 5개 선교부에 소속된 목사와 의료선교사들과 동행하여 한두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부흥 집회와 의료선교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9월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 혹은 총회에 참석한 다음에 목포 선교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한 다음에 제주도로 돌아가곤 하였다. 이때에도 또한 호남지방 5개 선교부 소속 목사와 의료선교사들과 동행하여 제주도로 돌아가서 부흥 집회와 의료선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서 선교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한다

159) Dr. K. S. Oh, "Progress of the Kingdom in Korea", The Missionary, April 1913, pp. 470~471.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후원이었다. 둘째, 한국 노회에서 총회로 이어지는 교계와의 긴밀한 유대관계이다. 셋째, 자신의 출신 지역인 평양 지방 교회와 학생들의 협력이었다. 넷째, 특히 미국 남 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었다. 다섯째,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이었다.

1) 재정자립을 위한 대외활동

선교사들과의 교류

이기풍 목사는 미국 남 장로회, 북 장로회와 더불어 타 교단의 사람들에게도 이미 유명 인사였다. 특히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회 소속 선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평양에서 신학 공부할 때 가르쳤던 스승들이었다. 따라서 이기풍 목사는 선교사들과 폭넓은 교제를 통하여 이들의 후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미국 북 장로회 평양 선교부 소속 마펫(Samuel A. Moffet: 마포삼열) 선교사의 개인적인 후원과 지도는 물론 이려니와, 미국 남 장로교 한국선교회는 1908년부터 이기풍 목사의 제주도선교를 지원해 오다가 1914년부터 전남노회가 제주도선교를 전담하게 되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기풍 목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원 가운데서도 의료선교사와 아동 및 부녀자 선교를 위한 독신 여성 선교사의 파송은 제주도민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바꾸어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봄과 가을에 제주도를 찾아와서 이기풍 목사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가톨릭 선교사들과 그들의 횡포를 맞보았던 제주도민들은 더욱더 새로운 태도로 이기풍 목사를 대하게 되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주도에 유배 와 있었던 철종의 부마 박영효와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제주도에 초등학교 과정을 세워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이기풍 목사의 폭넓은 대인관계의 결과였다.

이기풍 목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유력 인사들과의 사귀는 제주도민들로부터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인정받아서 '신축교란' 이후로 배척받아 오던 기독교가 제주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노회와 총회 참석

이기풍 목사는 봄철에 전남노회에 참석하고 가을에는 총회에 참석하여 제주도의 특별상황과 선교의 가능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였고, 전국의 모든 총회 대의원들

앞에서 제주도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1908년 9월 서울 연동예배당에서 모인 제2회 노회에 참석하여 제주도의 선교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주 전도하는 일은 잘 되옵는데 원입인 아홉 사람이오며 매 주일 모이는 사람은 20여 명이오며 선교사 이기풍 씨가 제주 전도 형편을 대강 설명하매 회중이 박장 감사하니라.....길선주 씨가 제주 전도인 김홍련 씨의 설명 듣기를 청원하매 회중이 가로 결정하다. 제주 전도인 김홍련 씨와 전도 국장 길선주 씨가 설명하여 전도사를 확장하자고 청원하니라.¹⁶⁰⁾

이기풍 목사와 전도인 김홍련씨의 설명을 들은 후 노회는 선교사 스왈튼(W. L. Swallen: 소안련)과 방기창 목사의 동의로 제주도의 여성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헌금을 할 것과 여성 전도인 한 사람을 파송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 선교를 위한 헌금을 노회에서 취합하여 속히 전도국에 납부해 줄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¹⁶¹⁾ 이렇게 하여 제주도에서 이기풍 목사와 더불어 여성들의 선교에 전념하게 된 여전도인은 이선광씨이며, 이선광씨의 전도 비용은 평양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감당하기로 하였다.

1909년 9월 3일에서 8일까지 평양에서 모인 제 3회 노회에서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 상황을 보고한 것을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기풍 목사: 제주도 선교사와 그의 조사는 그의 사역에 관한 보고를 했다. 언어와 관습이 다르다. 자신이 어떻게 학대받았으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뒤에서 돌을 던졌는가를 보고하면서, 이는 자신이 15년 전에 평양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마켓에게 돌을 던진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으며 몇 군데에서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¹⁶²⁾

이기풍 목사의 이상과 같은 보고를 듣고서 노회는 몇 가지 결정에 이르게 된다.

전도국장 길선주 씨가 보고함이 여 좌하니,

1. 이기풍 목사와 김홍련 전도사는 열심히 전도하였사오며
2. 평양성교회 자매들이 연보하여 이씨 선광을 제주 여 전도인으로 파송하여 저간에 부인네 중에 열심히 주를 믿는 자매들이 생겼사오며
3. 평양 대중학교 학도들이 연보하여 대학도 김형재씨를 제주 전도인으로 파송하여 녀 달간 열심히 전도하였사오며

160) 제2회 독노회록 (1908) 7-10쪽.

161) 제2회 독노회록 (1908) 11쪽.

162) The Editor, "The Korean Presbytery", The Missionary, Dec. 1909, p.605.

4. 제주 전도된 형편 이온즉 열심히 믿는 형제들이 생겼사오며 또 주를 위하여 핍박 받는 형제도 있사오며
5. 성서공회에 교섭하여 제주에 매서인 한 사람을 두되 제주에서 믿는 형제 중에서 택하기를 경륜이오며
12. 제주 여 전도인 이씨 선광을 일 년 동안 또 보내기를 작정하였사오며

선교사 이기풍씨가 제주에 전도되는 형편을 일일이 설명하시며 평양 대중학도로 파송된 김형재씨의 열심과 부인전도회로 파송된 리씨 선광의 수고하심을 일장 감사하매 회중이 방기창 리치수 양씨의 기도함으로 찬송 감사하다..... 소안론씨가 제주 전도인의 설명 듣기를 동의하여 加(가)로 결정하다. 제주 전도인 김홍련씨가 제주 300여 동리에 20만 명 되는 동포 중으로 내왕하며 전도하던 형편과 그 풍속의 이동됨을 설명하매 회중이 박장답사하다. 김필수씨가 제주 형제들에게 노회에서 감격한 편지하기를 동의하여 가로 결정하다.¹⁶³⁾

이기풍 목사의 노회 활동은 지속되었으며, 1910년 제4회 노회에서도 ‘**제주도 전도인 1명을 더 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파송된 전도인이 김창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목포 선교부의 마틴(Miss Julia Martin: 마울리) 여선교사가 여전도인 두 사람의 선교비를 부담함으로써 1910년부터 1911년까지 선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과 아동 담당 선교에서는 이기풍 목사의 부인 윤함애, 이선광 조사, 그리고 마틴 선교사가 보낸 두 사람을 합하여 총 네 사람이 전도 활동을 전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1911년 제5회 노회록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제주전도 형편

1. 선교사 이기풍 씨는 열심 전도이오며
2. 전도인 김창문 씨를 6개월간 보내어 전도하였사오며
3. 목포에 계신 미국 마 부인의 연보로 여 전도인 두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는 중이오며
4. 평양 대중학교 학도의 연보로 대학도 강병담 씨를 보내어 전도하는 중이오며
5. 평양 여전도회에서 이씨 선광을 또 보내어 전도케 하오며
6. 예배당은 3곳이요, 또 예배 처소가 2곳이며, 교인은 160여 인이오며 연보 낸 돈은 81원 57전 6리 이오며
7. 믿는 형제의 열심 기도로 이적이 많사오며.¹⁶⁴⁾

163) 제3회 독노회록 (1909), 12~17쪽.

164) 제5회 독노회록 (1911), 9~10쪽.

예배당 3곳은 성내교회, 금성교회, 조천교회를 말하며, 예배 처소 2곳은 모슬포와 성읍리를 가리킨다. 1911년에서 1913년에 이르는 선교의 진전되는 모습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선교는 그 성장이 뚜렷하였다. 매 주일 출석하는 교인이 2년 사이에 16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13년 9월 총회 당시 예배당이 있는 세계 교회는 같지만 기도회 처소는 6개로 확장되었다. 1908년 2월 제주선교가 시작된 이래 1913년까지 5년 동안 제주도에 9개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표 6〉 초기 제주선교 현황

연도	1911년	1912년	1913년
보고	제5회 독노회록	장로교총회(창립)	제2회 총회
주일 출석	160여 명	300여 명	400여 명
예배처소	예배당 3	예배당 3	예배당 3
	기도 처소 2	기도 처소 5	기도 처소 6
학교	재학생 17명	남 8명, 여 4명, 교사 1인	
성경공부		사경회 85인 공부 주일 아침 120인 공부	
소아회			소아회 시작 80인
교인		세례인 50인, 학습인 57인	세례인 82인, 학습인 84인
연보	81원 57전	225원 31전	570원 95전

출처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이렇게 제주도 선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전도국 소관으로 선교사업을 추진하다가 1912년 9월 전라노회는 평양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주도 선교사업을 전담하기로 결의하였다.¹⁶⁵⁾ 이는 실로 전라노회로서는 대단한 결단이였다. 코이트(R. T. Coit: 고라복) 목사는 전라노회의 이 결정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 선교부의 교회들은 제주 선교에 관심을 보였다. 이 일은 6년 전에 노회(지금은 총회가 되었다)에 의하여 시작하였으며 우리 전라노회에 임무가 넘어왔다. 광주 성경학교에서 이 목사의 가장 진지하고 열정적인 호소에 따라 오는 해에 300엔 이상을 약속하였다. 노회는 지혜롭게도 일 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하였다. 이곳의 사역은 한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놀라운 축복을 거두고 있다. 이 목사는 돌에 맞고 홀대를 받고 박해당하고 쫓겨났지만, 이제는 자기희생적인 헌금으로 교회당까지 세우게 되었다. 한때는 무섭고 게으르고 무식했던 사람들이 학식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밖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 내로도 돌려서 축호전도하며, 전도쪽지를 들고 단순한 복음을 선포한다. 광주, 1912년 2월 8일.¹⁶⁶⁾

165)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 164쪽.

이 보고에 따르면 이기풍 목사는 1912년 2월 광주에서 실시하는 겨울성경학교에 강사로 참석하여 제주도 선교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역설하였으며, 1912년 노회 이후로 한 해 선교비로 300엔 이상을 약속받았다. 이에 전라노회는 1912년 봄 정기노회에서 제주도선교비로 이 금액 정도를 편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선교비를 집행하다가 부족할 때에는 총회에 지원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1913년 1월 8일부터 18일까지 광주 양림동 송일중학교에서 개최하는 도사경회에 김상중 조사와 함께 참석하여 창세기, 사도행전, 요한복음을 강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교회보』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이 목사와 김 조사가 제주도 상황을 설명한 후에 만당 형제자매가 열심히 연보하여 300여 원이 된지라.....어느 여학생은 지환을 빼놓고 혹 시계도 끌러 놓으며 보성 무만동 형님 김일현 씨는 작년 사경회에도 참석했다가 제주를 위하여 25원으로 전도인 몇 달 월급을 감당했다. 이날 밤에 제주 백성이 전도를 듣고 모이기는 잘하는데 집이 없어 걱정이란 말과, 전도인이 다 기한이 되어 돌아가게 되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금 50원으로 예배당 일좌를 어느 촌에 사게 하고 36원으로 전도인을 반년 동안 세우게 하였다.¹⁶⁷⁾

이 보도에 의하면 이기풍 목사의 강의와 설교를 통하여 참석자들이 감동을 받았다. 한 여학생은 자신의 은반지를 헌물로 내놓았고, 보성 무만동교회의 김일현 장로는 감동적인 헌신을 보여 주었다.¹⁶⁸⁾

제주선교, 전라노회에 이양(移讓)

이기풍 목사의 사역은 전라대리회의 사역으로 진행되었다. 1911년 전라노회가 창립되면서, 그는 노회의 사역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1912년과 1914년에는 부노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전라노회가 제주도 선교 사역을 전담하기로 한 것은 이미 1912년 8월 25일 전라북도 공말교회에서 회집한 제2회 노회에서 결정되었다. 전라노회 전도국장 유서백(John Samuel Nisbet) 목사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¹⁶⁹⁾

166) Rev.R.T. Coit, "Notes from Kwangju", The Missionary, June 1913, pp.646~647. 재인용

167) 광주사경회, 『예수교회보』, 1913년 2월 11일자.

168) 김일현 장로는 보성군 무만동교회의 설립자로서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다. 기록에 의하면, 김일현 장로는 1912, 1913년에 이어서 제주도선교에 적잖은 후원금을 쾌척하였다.

전도국 위원이 제주 전도할 일에 대한 보고가 여 좌하니

1. 1914년 5월부터 본 노회가 제주 전도할 일을 담당함.
2. 경비는 연년이 미리 모집함.
3. 본 노회가 전도비로 부족한 것은 총회에 청원하여 도움을 받음.
4. 본 노회에 속한 교회에서 600원을 명년 노회 안으로 모집함.¹⁷⁰⁾

1913년 8월 제3회 전라노회록에서는 더 진전된 계획을 유서백의 보고를 통해서 볼 수 있다.

1. 금년 총회로부터 제주를 본 노회에서 맡기로 하되 지금 들어온 돈은 560원 가량이오니 만일 전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도와달라고 헌의 하기로 할 일.
2. 제주를 위하여 도와줄 마음으로 열심히 연보하게 하되 사사로이 직접으로 하지 말고 본 전도국으로 보내어 예산 가운데에서 쓰게 할 일.
3. 각 교회에서 춘투로 한 번씩 전도 일을 위하여 연보를 하여 본 전도국 회계 전주 마로덕(L.O. McCutchen) 목사에게로 보낼 일.
4. 회계가 이 돈을 다 수합하여 10분의 1은 총회전도국으로 보내고 10분의 9는 제주 전도비로 쓸 일.
5. 춘투로만 할 뿐 아니라 각처 목사는 위원으로 더불어 형편을 보아서 기회 있는 대로 연보할 일.¹⁷¹⁾

이 계획에 따라 1913년 9월 총회에서 전라노회는 제주도 전도사역을 전담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제주 일을 돌아보는 것은, 전라노회에 맡겨서 전도국 일년회의 경영과 예산을 하여 주는 대로 하게 하였습니다.”¹⁷²⁾ 일 년 동안 선교비는 총회와 전라노회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기에도 총회의 의안을 정리하면서 1913년 전도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2. 본 지방 전도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각 노회 구역 내 미전도 지방에 전도하는 사업은 각 노회 전도회에 위임하니라.....
4. 제주 전도사업은 전라노회에 위임하니라.¹⁷³⁾

제주도 선교를 전담할 전라노회와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는 1914년 여름을 이용

169) 유서백(John Samuel Nisbet, 1869~1949)은 1907년부터 전주에서, 1911~1940년에 목포에서 사역하였다. 순천선교부를 세우는 일에도 노력하였고, 전남지역의 농촌선교에도 힘을 기울였다. 제주선교가 총회로부터 전라노회로 이양되는 일을 주도하였다.

170) 제2회 전라노회록, 1912, 26~27쪽.

171) 제3회 전라노회록, 1913, 22쪽.

172) 제2회 총회록, 1923, 25쪽.

173)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15쪽. 해외선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국인 선교와 한인교포의 선교를 구분하였고, 함경도가 시베리아와 북만주를, 평안도가 만주 서부를 담당하였다.

하여 전주의 테이트(L. B. Tate: 최의덕) 부부와 목포의 니스벳 부부가 함께 제주도에서 7일 일정으로 전도집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최의덕 선교사의 부인(Mattie Ingold Tate)은 이 방문사역과 현지의 인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제주 여성들이 육지와는 달리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구분하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8곳의 예배 모임처와 90명의 세례교인이 있다. 니스벳 부인과 나(테이트 부인)는 49명의 여성반을 가르쳤다. 니스벳 목사와 테이트 목사는 25명의 선발된 남자반(제직)을 가르쳤다. 매일 저녁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부흥집회에는 250~400명쯤이 질서 있게 열심히 들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더워, 집회는 교회의 뜰에다 차일을 치고 그 안에서 진행되었다. 신자들이 열심히 불신자 친구들을 찾아 데려왔다. 그들 중에서 결신자가 생겼다. 교회는 아주 좋은 공동체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남겼다. 제주 사람들은 이교적 습관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결심을 내리면 낙심하여 이탈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¹⁷⁴⁾

선교사 일행과 이기풍 목사는 특별집회를 성공적으로 가진 다음에, 1914년 8월 제4회 전라노회에 참석하여 제주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기풍 목사가 보고하는 제주 교회의 형편에서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있다. 즉 제주의 초기 교인들이 주민들로부터 “인심을 얻어……믿는 형제자매의 성질이 굳건하여……”¹⁷⁵⁾ 등의 표현이다. “인심을 얻어”라는 표현은, 제주도 초기 교인들의 도덕성이 제주도 일반인들의 표준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뜻이다. 이는 초기 한국교회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의 우월한 도덕성이 선교와 전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던 점과 통한다. 또한 “형제자매의 성질이 굳건하여”라는 표현은, 제주도의 토속적이며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대한 토착민들의 반발, 가족들로부터의 배척 등 기독교인이 되는 데 따른 각종 불이익을 잘 견디어 냈다는 의미이다.

1914년 8월 15일 제4회 노회가 광주군 양림동 송일학교에서 개최하니……제주 전도사업은 노회가 담당 경영하되 전도목사 1인을 가파(加派)하여 1인은 제주에서, 1인은 대정에 위치를 정하게 하고, 경비는 1천여 원으로 예산하고, 노회 경내 교회 감사 연보 중 3분의 2와 성탄주일 연보금으로 충당하게 하니라.

동시에 1914년 8월 전라노회는 총회로부터 제주선교를 단독으로 위임받은 상태이므로 첫해부터 예상하였던 933원을 모금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무사히 이 액수를 채울 수 있어 안심이었으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했다. 전라노회는 1914년

174) Mattie Ingold Tate, “The Cheiju Work”, The Korea Mission Field, 1915, p.58.

175) 제4회 전라노회록, 1914, 12쪽.

9월에 회집한 총회에 헌의하여 “제주선교의 완전 위임과 감사절 연보의 3분의 2를 제주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¹⁷⁶⁾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기풍 목사 혼자서 제주도 전역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과중한 일이었다. 해마다 육지에서 열리는 노회 및 총회, 그리고 각종 사경회에 수시로 다녀오는 여행,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접대, 전 지역에 걸친 교회들의 순회, 설교 및 유치원 운영, 야학과 달성경학교 운영 등 다양한 중노동은 결국 이기풍 목사를 과로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증가하여 일은 갈수록 쌓여 갔다. 1912년의 제주도 선교사역을 통계적으로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1912년까지만 해도 선교의 초창기였으므로 선교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예배당이 있는 교회도 성내, 대정읍, 조천 3곳에 불과하였다. 1913년에 이르러 교회의 숫자와 기도처(6곳)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다만 “피택장로 1인과 영수 3인, 집사 2인”이라는 점은 제주 교회가 점점 조직교회로서 자리 잡혀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7> 1912년의 제주도 선교사역

교인			직분	예배 처소		학교		연보		성경공부		
1912년	누계											
세례	17	58	조사	1	예배당	3	학교	1	조사	120원	사경회	1회 80명
유세	2	5	영수	1	기도처	5	남학생	8	주일 연보	45원 94전	매일성경 읽는 자	120명
학습	35	57	집사	2			여학생	4	학교 연보	59원 37전 7리	주일아침 성경공부 참여자	120명
신입	200	410					교사	1	도합	225원 31전 7리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성내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형편인데, 학생 숫자는 1913년에도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 균졸한 중 근근 유지하오며”라고 보고한 내용으로 보아서 제주도의 학교 사업은 첫 출발에서부터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사람 선교사와 두세 명의 협력자들이 제주도 전역을 선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 과중한 사역이 결국 선교사 이기풍의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176) 제4회 전라노회록, 1914, 14.쪽 총 수입액은 834원 40전으로서 예산액 933원에 99원 60전이 부족하였다. 노회는 당석에서 제주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하여 90원 54전을 모금하였다. 녹스(Robert Knox: 노라복) 선교사는 선교 구역에서 약속하였던 13원을 추후에 납부하여, 1914년 전라노회는 총회로부터 제주 선교를 단독으로 실시하기로 위임받은 데 따른 재정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기풍 목사의 1914년 활동을 정리해 보자.

이기풍 목사는 1914년 3월에 목포 정명학교와 영흥학교의 졸업식에 참여하여 설교한 다음에, 목포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 제주도의 선교 현황을 알림으로써 제주도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목포 정명학교 교장이었던 니스벳 목사의 부인은 1914년 3월에 진행된 졸업식과 이기풍 목사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3월은 졸업장을 주기에 거북스러운 달이지만, 일본의 모든 학교가 이 시기에 졸업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학교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한다. 니스벳 앞에 있는 신사는 제주도의 이 목사이며, 이 목사는 여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주도 사역을 이야기한다.¹⁷⁷⁾

1914년 7월에는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고, 8월에는 전라노회에 참석하고, 9월에는 총회에 참석하는 등 너무나도 벅찬 업무였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기풍 목사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선교사역, 이기풍 목사의 건강 약화 그리고 총회로부터 제주 선교사역을 전담하게 된 전남노회와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부담감 등이 제주도에 선교사 한 사람을 더 파송하도록 결정하게 된 주요인이었다.

이기풍 목사의 사임과 최대진 목사의 부임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도착하여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다. 그동안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제주도 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잦은 출 육을 통한 활동까지 겹치니 이기풍 목사는 건강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 그리하여 1913년 5월부터 5~6개월간 휴가를 받아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예수 교회보』는 이렇게 전한다.

전라남도 제주군 선교 목사 이기풍 씨가 제주 각 지방 교회를 여러 곳에 설립하고 수고 많이 하시다가 올해에 오륙 개월 쉬어 가시려고 그 부인과 자녀 3명을 데리고 상경하여 5월 3일에 연동교회로 들어와 그 밤 3일 기도회인 고로 예배당에 가서서

177) Mrs. J. S. Nisbet, 『What is in a Name?』, The Missionary Survey, July 1914, pp.532~535.

178) 그리스도 신문 예수교 신보 예수교회보 색인자료집, 『예수 교회보』, 1913년 5월 13일 자.

연동교회가 남녀 중학생과 여러 형제의 의복과 물품을 보내신 것으로 제주에서 큰 사랑과 큰 유익을 받았으니.....새로 믿기로 나와 지금껏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가 60여 명이 되어 전에 90인이 모이든 회당은 지금은 150여 명이 예배 보고.¹⁷⁸⁾

이기풍 목사는 1913년 5월부터 연말에 이르기까지 휴식하였으나 진정한 휴식이 아니었다. 이기풍 목사는 황해도와 평안도 여러 지역의 교회에 다니면서 제주도의 형편을 보고함으로써 선교비 후원받아냈다. 『예수교회보』는 이렇게 기록한다.

저간에 제주 이 목사가 평양에 돌아와서 쉬는 동안에 각 교회를 시찰하며.....황주 교회에서 50원과 중화교회에서 24원을 제주 전도비로 연보 하였는데.....평양 여 중학교에서 제주를 위하여.....40여 원이라 하며 평양 교회 여전도회에서 연전에 오랫동안 제주서 열심히 전도하고 나오신 이선광 씨를 다시 제주에 보내기로 작정된 일이다.¹⁷⁹⁾

이기풍 목사가 휴식 기간에 얻은 소득은 여전도사 이선광씨가 다시 제주에 상주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지원을 얻어낸 것이다. 이기풍 목사가 평양에서 휴식하는 동안에 8월 15일에 회집한 제3회 전라노회는 제주선교를 위하여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1913년(癸丑) 8월 15일 제3회 노회

제주 전도사업은 금년을 위시하여 총회가 본 노회에 위임하게 하되 전도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도와주기를 헌의하고, 제주 전도를 위하여 각 교회가 춘추로 1회씩 연보하여 전도국 회계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노회 당석에서 연보한 금액이 160여 원이더라.¹⁸⁰⁾

전라노회의 결정은 1913년 9월 제2회 총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기풍 목사는 평양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제주도 선교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성내교회, 모슬포교회, 조천교회라고 하였다.

이기풍 목사의 사임

이기풍 목사는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의 파송을 받아 제주도 선교사로 1908년 2월 말에 도착하여 사역하기 시작한 이래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신축교란의 여진이 가시지 않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제주도에선 선교활

179)위의 책 1913년 7월 8일자.

180)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 165쪽.

동을 지속하기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기풍 목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또한 성내교회 안에 남녀 소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운함에 사모와 여전도사들의 활동으로 제주도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건강과 위생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선교사와 목사들,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제주도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 이상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이기풍 목사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소리가 나오지 않는 ‘성음 부족증’이라는 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써 이기풍 목사는 노회에 청원하여 일 년간의 병가를 얻었다.

이렇게 이기풍 목사가 떠나게 되면서 성내교회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의지하며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는 심정으로 이기풍 목사를 떠나보낸 교우들은 모든 면에서 약해져 있었다. 190명까지 모였던 교인의 숫자가 120명으로 줄어들었다.

1915년에 이르러 제주 선교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우선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숙제였다. 전라노회는 재정적인 한계로 제주 선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14년, 1915년 연속하여 전라노회는 총회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총회의 배려를 요청하였다. 총회 전도국은 전라노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총회로 보낼 감사연보 중 2/3를 제주 선교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은 이기풍 목사의 선교사직 사임이었다.

이기풍 목사는 1915년 5월 1일 조천교회를 방문하여 세례와 학습문답을 실시한 후 더 이상의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성대에 이상이 생겨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실음(失音)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5년,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선교사역에서 일단 손을 떼고 광주군 효천면 지한리(현 광주시 남구 방림동)에 있는 김윤수 장로의 집 옆에 안식처를 마련하여 치료와 휴식에 전념하기 시작하였다.

이기풍 목사가 더 이상 제주도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문제를 위임받은 광주지방 시찰 위원은 1915년 9월에 이기풍 목사를 대신하여 최대진 목사를 파송함으로써 제주 선교에 공백을 메우도록 하였다.¹⁸¹⁾ 그 후 이기풍 목사는 광주에서 1년간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1916년 광주 북문 안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그곳에서 2년여 동안 열심히 사역하던 이기풍 목사는 1918년 또다시 건강을 잃게 되었다. 이기풍 목사는 다시 휴직하고 건강회복을 위해 요양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1919년 10월

181) 전남노회 75년사 139쪽.

부터 순천읍교회 (현 순천중앙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였다. 1920년에는 전남노회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1921년 제10회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최대진 목사의 부임

이기풍 목사는 1908년 봄에 제주도에 내려와 제주선교를 시작한 이래 만 7년 동안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여 제주도 각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제주선교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하지만, 1915년 봄부터 건강 문제로 더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이기풍 목사가 휴직을 청원하자 제5회 전라 노회는 그의 휴직을 허락하고 ‘이기풍 씨가 한양(閑養)하는 동안에 최대진 씨를 청하여 일 년간 제주에서 전도목사로 시무’하게 하였다. 이기풍 선교사 대신 제주 산북 지방의 선교사로 선정된 최대진은 제주 선교사역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제주도로 내려와 1년 동안 시무하면서 제주 동북 지방에 산재해 있던 교회들의 틀을 다졌다.

'윤식명, 최대진 양 씨는 선교사의 자격으로 생명 구원의 책임을 그 몸에 지고 두 지방을 나누어서 최대진 씨는 제주 동북으로 성안과 조천(朝天)과 한동(漢東)과 정의(旌義) 모든 교회를 관리하고 윤식명 씨는 서남으로 수원(水原)과 대정(大靜)과 모슬포(慕瑟浦)와 중문(中文) 모든 교회를 담임 시무'하였다.¹⁸²⁾

최대진은 제주 산남 지방을 맡고 있던 윤식명 목사와 협력하며 제주선교의 사역을 순조롭게 감당하였다. 최대진은 1916년 8월 25일 전주 동문외교회에서 열린 제6회 전라노회에 제주에서 1년 동안 수행한 선교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최대진이 산남지방의 윤식명 목사와 연합하여 대전도운동을 전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남북에 있는 두 전도목사와 남녀 전도인들 그리고 성도들이 다수 동원되어 1916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70일간 계속한 전도운동을 통하여 40명의 결신자를 낸 것을 보고했다. 이 70일 전도운동에 대해서 1916년 7월 12일 자 기독교신보는 장로회통신(長老會通信)에서 ‘제주 전도 형편’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금년 삼월로 위시하여 5월 30일까지 칠십일 간에 한라산 남북편 교역자가 합하여 전도를 행했는데 최대진 윤식명 선교사 양씨와 남녀 전도인 수인과 날 연보하여 전도로 도와준 형제자매가 매일 역사하였는데 혹은 일삭 간 혹은 세 주일간 혹은 두 주일간

182) <기독교신보>, 1916. 4. 12.

혹은 삼 일간 하였는데 그 인원수는 190명이요, 매서한 것은 복음 2,946권이요, 전도지는 만여 장 이온데 동서 수백 리 되는 섬에 이십만 명 인구에 대하여 오히려 비례가 될 수 없더라. 183)

한편, 최대진 목사는 1년간 제주 전도목사로 활동하고 5개월 동안은 자급 생활을 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부득이한 사세로 출륙하였다. 당시 전도국 보고에 ‘교우 중 생활의 곤란으로 육지로 나온 이가 많사오며’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대진 목사가 계속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당시 제주도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최대진 선교사가 제주에서 떠나자 제6회 전라노회는 김창국 목사를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여¹⁸⁴⁾ 최대진의 전도구역이던 제주 산북지방과 동지방을 맡겼다.

3. 윤식명 목사의 부임과 산남지역 선교활동(1914년 9월~1921, 10월)

윤식명은 1870년 11월 17일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¹⁸⁵⁾ 1896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1909년 40세에 제2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¹⁸⁶⁾ 목포양동교회에서 열정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전라노회에서 제주도 산남 지방 전도 사업을 위해 파송을 결의하자 윤식명 목사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제주도행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14년부터 8년간에 걸쳐 대정읍에서 성산읍까지 이어지는 산남지역을 맡아 선교에 전념하였다. 이기풍 목사와 전도인들이 씨를 뿌린 산남지방 선교는 1912년 모슬포교회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윤식명 목사가 활동할 즈음의 제주도 기독교의 교세는 <표 8>과 같다.

<표 8> 1920년까지 제주에 세워진 교회와 목회자

	제주지방(산북)	대정지방(산남)	정의지방(동지방)
교회	성내교회 금성교회 삼양교회	모슬포교회 용수교회	성읍교회 조천교회 세화교회

183) <기독신보>, 1916. 7. 12. '제주전도 형편'.

184) <전라노회록>, 37쪽, 전도국 위원 보고.

185) 다른 자료에서는 윤식명 목사가 1871년 11월 11일 목포 양동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186) 한기장 제주노회, 『제주선교 100주년 제주노회 연혁』, (제주:제주노회 연혁출판위원회, 2008), 11쪽.

	한림교회	고산교회 법환교회	
기도처			연평기도처 김녕기도처
목사	이기풍·최대진·김창국	윤식명	임정찬
여전도사	이선광, 마틴이 보낸 2명의 여전도인		
남전도인	김형재, 김창문, 강병담, 이재순, 김영진		

그 밖에도 내도교회, 중문교회, 고산교회, 두모리교회, 등의 교회들이 1920년에 이르기까지 설립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목사와 남녀 전도인을 포함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1918년에 광주 봉선리교회에서 파송한 원용혁 전도사와 광주 여전도회에서 파송한 김경신 여전도사, 그리고 자부담으로 전도에 전념하였던 강진 출신의 최대현 전도인이 있었으며, 윤식명 목사와 함께 협력하였던 목포 양동교회 출신의 김영진 영수 등이 있었다.

1918년 윤 목사와 원용혁 등 일행이 서귀포에서 모슬포로 오는 도중 하원리에 이르자 보천교(普天敎) 교도들이 외세반대와 서양종교 배격을 외치며 기독교인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부득이 서귀포로 돌아가 상처를 치료하고 선편을 이용하여 모슬포로 돌아왔다. 이때 윤 목사는 한쪽 눈이 실명당하는 불행을 맞았다. 중문 법정사를 중심으로 민족종교 보천교의 교세가 왕성, 1918년 유명한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으나 늘 기독교와 반목, 갈등이 심했다.

1919년 3·1운동으로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5월 서울의 비밀 결사 조선독립희생회에서 파송한 김창규가 제주도에 내려와 최정식, 조봉호와 접촉하여 독립희생회를 제주지역에 조직해 줄 것과 회원 1인당 2원씩을 군자금으로 모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윤식명 목사는 성내교회 김창국 목사, 성읍교회 임정찬 목사 등과 협력하여 4,450명으로부터 1만 원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윤식명 목사는 기독교의 전파와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 1920년 모슬포에 광선의숙을 개설하였다. 이 사숙은 4년제로 초등교육을 담당, 기독교의 밖에 사상을 바탕으로 운영하였다. 광복 조선, 즉 '조선(朝鮮)을 광복(光復)한다.'라는 뜻으로 광선의숙이라 명명하고, 또 모슬포교회 부설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였는데 교사들은 독립운동가 강규언,¹⁸⁷⁾ 정을규, 최정숙, 원용혁, 정동수, 정신경 등이 담당하였으며 이들은 철저한 기

독교인들이다. 1920년대 초 대정골에서 강문석이 창설한 한남사숙, 가파도에서 김성숙이 설립한 신유의숙과 함께 대정지방의 민족구국교육을 실현한 삼대 사숙이라고 통칭하였다. 윤 목사는 광선의숙을 설립하고 1921년 타도로 진출하였다.¹⁸⁷⁾

윤식명 목사의 산남지방 선교

윤식명 목사는 노회의 결정에 따라 목포 양동교회를 사임하고 제주도로 내려왔다. 그가 맡은 선교 구역은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대정 지방이었다. 1914년 과송될 당시의 윤식명의 공식적인 명칭은 ‘대정지방목사’ 였다. 당시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제주, 대정, 정의 3군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제주지역은 산북지방, 대정지방은 산남지방, 정의 지방은 제주 동지방이라고 불리었다. 이 지역의 중심지는 원래 대정성이 있던 곳이며 읍 소재지였던 대정골이었지만, 포구가 있는 모슬포로 주요 기관들이 하나둘씩 이전함으로써 차츰 모슬포가 지역의 거점이 되기 시작했다.

이기풍 선교사가 이 지방 교회의 개척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초석을 놓은 인물은 윤식명이었다. 1914년부터 1921년까지 윤식명(尹植明) 목사는 모슬포에 거점을 마련하고 강병담(康秉談), 이재순(李載淳), 조창권(趙昌權), 김진성(金振聖), 원용혁(元容赫), 김경신(金敬信) 등 전도인의 협력을 받아 ‘한라산 남쪽 지방’을 개척했다. 1925년까지 제주 산남지방에 설립된 대표적인 교회는 모슬포교회, 법환교회, 용수교회, 고산교회, 두모교회, 협재교회 등으로 윤식명과 이경필이 맡아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윤식명 목사가 제주도에 도착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1914년 10월 15일 이전에는 입도(島)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주 동지방회회록』에는 1914년 10월 15일 대정지방 목사 윤식명이 전도인 이재순과 함께 성읍리교회 예배당에서 추계 세례문답을 실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⁸⁹⁾

윤식명 목사의 선교 활동 범위

윤식명 목사가 제주 산남지방 선교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선교거점이라 할 수 있는 모슬포교회를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했다. 윤식명 목사가 부임할 당시 모슬포교회에는 이미 이기풍 목사와 함께 제주 산남 지방에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

187) <기독신보>, 1926년 9월 1일자. 강규언은 중문교회 초기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1919년에는 군 산 영명학교에서 학생으로 재학 중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제주도 성안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숙에서 조봉호와 함께 교사로 활동하였다.

188) 김찬흡, 『제주항일인사실기』, (제주:대경인쇄사 2003), 422쪽.

189) 임희국, 김석주 편역, 『제주교회 동지방회록』,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8), 23쪽.

재순, 강병담, 최대현 전도인이 있었으며 그들의 전도로 강홍주, 정용호, 신창호, 김씨 나홍 등의 신자가 있었다.¹⁹⁰⁾

후기에는 광주 봉선리교회(나환자 교회)에서 파송한 전도인 원용혁과 광주 부인 여전도회에서 파송한 김정신 여전도인과 협력하여 전도에 힘썼다.

한편, 윤식명 목사는 제주 산남 지방 전도목사, 또는 대정지방 목사로 전라노회에서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의 목회 대상이 모슬포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모슬포교회 외에도 멀리 제주도 동지방의 교회도 돌보아야 했다. 동지방 교회 중에서도 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본 곳은 성읍리교회였다. 『제주도 동지방회록』에는 “1914년 10월 15일 하오 4시에 대정지방목사 윤식명 씨가 성읍리교회 사무를 위하여 전도인 이재순 씨와 같이 본 예배당에서 기도로 개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날 윤식명 목사는 교인 4명에게 세례문답식을 거행했다.

1914년 9월부터 1915년 5월까지 진행된 선교 상황과 제주교회의 모습에 대해 마로덕(L. O. McCutchen)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금년은 제주도 선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해였다. 뛰어난 사역자 이기풍 목사 외에도 윤식명 목사가 이 섬에서 선교사역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슬포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 지역을 선교지로 할당받아 일하고 있다. 그의 사역은 잘 진행 중이다. 지역교회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 견고해지고 있다. 두 목회자와 매서 겸 전도인들 그리고 여전도인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두 곳에 예배 처소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각각의 회집 성적은 고무적이다. 기존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했다. 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고 있다. 귀신 들린 남녀들이 치유를 받고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병자들이 영생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교회는 그 신실한 형제애, 즉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교제와 동지애를 통해 모든 방문객들을 감동시키고 있다.¹⁹¹⁾

윤식명 목사의 선교활동 보고

모슬포에 부임하여 낯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활동을 펴던 윤식명 목사는 부임 약 1년 후인 1915년, 전라노회에 세례인 16명, 학습인 17명, 주일 연보 17원임을 보고¹⁹²⁾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전주군 서문의 예배당에서 회집한 제4회 총회에서 ‘제주도 형편’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90)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 171쪽.

191) Rev. Charles Allen Clark, “Korean Foreign Missions”, The Missionary Survey, November 1914, p.878

192) 한인수, 『호남교회 형성인물』, 178쪽.

윤식명 씨가 제주에서 전도되는 형편을 들어 보고하기를 그곳 인민의 풍속은 육지와 부동(不同)하여 남자는 편하고 여자는 수고함으로 범사(凡事)에 권리가 여자에게 있고 전도하기가 극난(克難)하되 믿는 자 중에 진실한 자가 많고 장래의 희망도 점점 좋아짐으로 위로를 많이 받는다 하고¹⁹³⁾

포교소 설립계 제출

교회설립과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일제가 국권피탈 이후 합법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종교를 탄압했다는 사실이다. 일제의 종교탄압은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완전하게 통합하기 위해서 반일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특히 그들이 주목했던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그것은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대부분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1912년에 일어난 ‘105인 사건’ 이후 일제는 종교단체들을 좀 더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1915년 10월 1일, 전문 19조로 된 ‘포교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이 규칙은 교회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특히 제4조, 제9조, 제12조가 문제가 되었다.

조선 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또는 포교관리자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4조): 종교에 필요한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 등을 설립코자 하는 자는 ...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 조선총독은 종교의 용도로 설립된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 등에서 안녕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설립자나 관리자에게 그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제12조)¹⁹⁴⁾

교회의 설립을 허가제로 명시한 이 조항은 기독교 선교를 일제의 통제 아래 귀속시킴으로써 교회개척사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말았다.¹⁹⁵⁾ 이 ‘포교규칙’에 따르면 교회당이나 설교소, 강의소를 설치할 때, 그리고 교회의 유급직원인 관리자를 둘 때는 반드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1915년 10월 이러한 포교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포교계, 포교원, 포교자 명단, 포교관리자 설치계, 포교설치원, 신도 수 등의 여러 양식이 제정되었다. 실제로 당시 일제가 취한 태도에 대해서 박은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에서 전도사업,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청원하게 되면 고의로 질질 끌어 해가 지나

193) <제4회 총회록>1915, 17쪽.

194) 유동식,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1884-1992』, (서울:기독교대한감리회,1994), 347~348쪽.

195) 『한국기독교 100년사』, (서울: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1992), 156쪽

도록 허가하지 않는다. 전도회, 사경회, 부흥회, 기도회, 예배와 강연 회에는 반드시 순사를 파견하여 감시한다.”¹⁹⁶⁾

윤식명 목사는 1915년 12월 14일에 포교자 윤식명의 명의로, 모슬포교회의 포교소 설립계를 제출하였다.

보천교(普天教) 사건¹⁹⁷⁾

제주 대정지방 목사 윤식명과 전도인들은 대정에서 중문 인근의 모든 교회를 시무하는 한편 지역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사이 제주선교 구역은 한 차례 변화를 겪었다. 우선 제주선교를 담당했던 전라노회가 전남과 전북 노회로 분리되면서, 산북지방은 전북노회가 그리고 산남지방은 전남노회에서 맡아 선교하기로 결정되었다.

제주선교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황해노회의 뜻이 받아들여지면서, 1917년에는 황해노회 소속 선교사로 임정찬 목사가 파송되었다. 제주도 전도 구역은 크게 3구역으로 재편되어, 제주도 동편의 신좌와 구좌를 비롯한 우면 등 6개면은 황해노회의 전도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우면에 포함되어 있던 법환리는 자연히 황해노회 전도구역으로 편입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황해노회에 속하게 될 전도구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환리와는 동떨어진 조천리에 신자 5,6명 그리고 정의지역에 신자 10명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대정면 모슬포에는 신자 40여명으로 이루어진 모슬포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지리상으로 윤식명 목사가 오가는 편이 더 좋겠다는 판단 아래 전라노회는 황해노회와 교섭에 들어갔고, 결국 법환교회는 윤식명 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1918년(戊午年) 10월 6일, 윤식명 목사와 광주 봉선리(鳳仙里)교회에서 파송한 원용혁 조사, 김진성 조사, 여성으로는 천아나, 김나명(金拿鳴)이 동행했는데, 법환리로 전도를 나가는 중이었다. 그렇게 하원리 부근 일명 ‘도래물 골챙’에 당도했을 때 윤식명 목사의 눈에 떨어진 것은 깃발을 휘날리며 운집해 있던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을 보고 그저 전도하기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다가갔던 윤식명 목사 일행에게 그들은 갑자기 적의를 드러내며 공격해 왔다.

그날이 마침, 그 지역에 번성한 증산교파의 일종인 보천교도¹⁹⁸⁾가 “불무황제(佛務皇

196)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上)』, 남만성 역 (서울: 서문당, 1975), 118쪽.

197) 한기장 제주노회, 『제주선교 100주년 제주노회 연혁』, (제주: 제주노회 연혁출판위원회, 2008).

198) 일명 선도교(仙道敎), 태홀교(太乙敎)로 불리기도 하며 1921년에는 보천교(普天敎)로 개명하였는데 교인이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증산교의 교주인 강일순이 1909년 죽자, 1911년 9월 19일에 그의 부인 고관례(判禮)가 증산의 제자 중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한 바 있는 차경석을 데리고 창립한 것이

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일본인 관리(官吏)를 죽이고 상인들을 축출하자”고 선동(煽動)하며, 봉기군 400여 명이 2개 대열로 편성하여 호미 낫 팽이 엽총 등을 들고 서귀포에 지소가 있는 제주도지청으로 진격하는 거사 당일이었다.

그날 흥분한 그들은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장과 일본인 경찰 3명을 포박하고 구금자 13명을 풀어주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가 마침내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 와중에 기독교나 서양종교를 배격하는 그들이 윤식명 목사 일행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했던 것이다.

그날 윤식명 목사와 원용혁 조사가 혼절(昏絶)하고, 선혈이 낭자하여 쓰러진 것을 현장에 도착한 경찰 등이 구조하였다. 이들은 서귀포 소천의원에 1개월 이상 입원시킬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그 후유증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천아나는 몽둥이로 맞았으나 피신하여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법환리교회는 이런 핍박을 뚫고 세워진 교회다.

당시 이런 급박한 상황을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8년(무오) 10월 6일(음력으로는 9월 2일)에 제주도 법환리교회에서 전도에 종사하는 목사 윤식명이 원용혁, 김진성, 김씨나명, 천씨아나로 더불어 본리에 전도하러 나오는 도중에 다수한 태을교도(太乙教徒)가 방포1성(放砲1聲)에 석(石)으로 매장(埋葬)하자는 소리를 지르며 각기(各其) 목봉(木棒)으로 무수히 난타하니 김진성은 다행히 피신하여 중문리 천제연수중에 들어가서 재석구명(載石求命)하였고 김나홍, 천아나는 1, 2차 목봉을 받고 피신하였으며, 윤식명, 원용혁 양인은 중상하여 혼도(昏到)하니 상처가 분열(分裂)되어 선혈이 림난(淋難)한지라 중문리 주재소 경관과 면직원 일동이 야중에 현장에 래도하여 양인을 담성(擔成)하며 서귀포 소천(小川)의원에 입원하여 1개월간 치료 후에 간신히 기동(起動)케 되어 모슬포로 래(來)하는 선중(船中)에서 목포수비대에게 체포되어 압거(押去)중에 있는 태을교도 68명을 봉착케 되매 윤, 원 양인은 자기의 고통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절(切切)히 該교도에게 대하여 전도하니 該교도 중 전일 자기의 난폭한 행동을 각오(覺悟)하고 감동되어 낙루(落淚)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순사 박덕우(德佑)는 믿기로 작정하였다. 기 후에 치료가 불완전하므로 목포병원에 래하여 완치되었으나 결국 윤식명은 우완(右腕)이 병신이 되고 원용혁은 두골(頭骨)이 병신 되어 항시 불인(不仁)케 되니 그는 제주에 교회설립된 후 초유 핍박이었다.¹⁹⁹⁾

다. 1922년 일제의 회유에 의해서 친일단체인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을 결성하며 전국순회 시국강연을 통해 일본의 대동아공영을 지지하기에 이르렀으며 1922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제주도의 보천교도는 2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었고 강정에 있는 법정사(法井寺)가 그 사찰이었다.
199)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 323쪽.

IV. 제주교회의 설립과 확산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1908년 2월 말이었다.²⁰⁰⁾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도착하였으나 앞서 1901년에 이미 일어났던 “신축교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주도민들은 이기풍 목사를 푸대접하였다. 처음에는 잠도 채워주지 않고, 음식도 팔지 않다가, 이기풍 목사가 미치광이를 잠잠케 하자 가까워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기풍 목사는 이때부터 제주 목(牧)의 우면(右面)의 중심지인 명월 등지와 조천관(朝天館)이 있는 좌면(左面)과 제주읍에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첫해의 결실로 1908년 9월 조선 독노회에 “원입교인 9명과, 회집교인 20명, 그리고 제주 토박이 김흥련이 전도인으로 자청하였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조천리의 주민 천아나와 장용식, 그리고 금성리의 11명의 신자와 제주 읍내의 몇 명의 주민을 통틀어 약 30명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1908년 후반기에는 9명의 원입교인과 20여 명의 예배참석자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기풍 목사의 사저와 그가 가는 곳마다 2~3명만 모여도 곧 기도모임을 시작하여 제주도의 각 지역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1909년부터는 열심을 내어 믿는 신도들이 늘어났고 배도(倍道)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신자들도 나타났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 즐거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나오게 된 것이다.²⁰¹⁾

이런 초기의 복음을 향한 노력의 결과를 사료를 통해 찾아보면, 1911년 『전라노회 제1회 통계보고』에는 예배당 3처, 예배처소 2처, 세례교인 41명 교인총수 160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때까지 설립한 교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의 기록대로 금성리교회(1908), 조천리교회, (1909), 서문내교회(1910)가 확실하며 예배처소는 여러 가지 기록을 대조하여 볼 때 대정의 모슬포교회와 정의의 성읍리교회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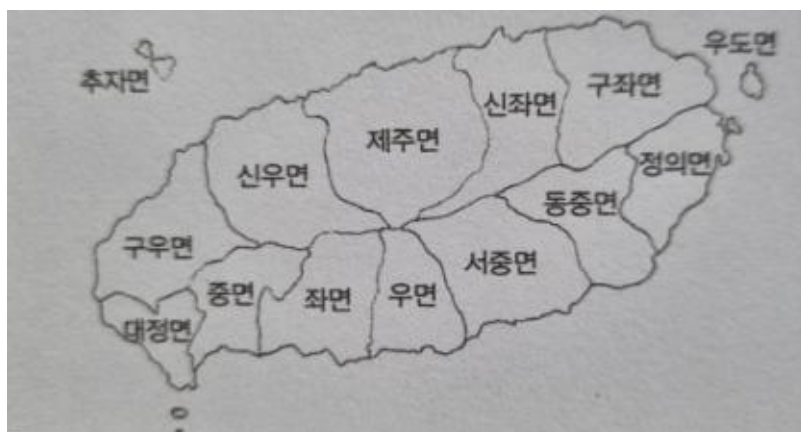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를 근거로 따져 볼 때 이기풍이 제주도에 직접 설립한 교회는 성내교회, 금성교회, 조천교회, 모슬포교회, 성읍교회 등 다섯 교회이며, 교회설립의 기초로 교인들을 확보하여 씨를 뿌리며 교회설립의 기틀을 놓고 교인을 확보는 하였으나 이기풍의 이임 이후 비로소 추수하여 설립된 교회로는 삼양교회(윤보원의 3명 전

200) 『양림교회 90년사』, 381쪽.

201)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로회록』, 3회록 13쪽, 5회록, 10쪽.

도), 세화교회(부상규에게 세례), 법환교회(전도의 씨를 뿌렸으나 추수한 이는 윤식명), 용수교회(김기평 부부에게 전도), 고산교회, 한림교회로 여섯인데, 이를 합하여 지금까지 교회로 남아 있는 곳을 전부 찾아보면 11개의 교회가 된다.

〈표 9〉 1920년 代 제주 행정도



제주도 선교지역 분할

그동안 이기풍 선교사가 홀로 담당하던 제주선교에 1914년, 윤식명 목사가 부임하면서 제주선교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었다. 윤식명의 파송은 제주 사역의 확장과 관련된 파송의 의미도 있지만 이면에는 이기풍이 건강 악화로 제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주선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도 있었다. 이기풍이 1915년 제주를 떠남으로 이기풍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제주선교의 시대가 열렸다.²⁰²⁾

1917년에 이르러 전라노회가 전남노회와 전북노회로 발전 분리되고 황해노회가 제주선교에 동참함에 따라 제주선교는 이제 전남노회와 전북노회 그리고 황해노회가 연합하는 판도로 재편되었다.

전라남북노회 연합협회에서 결의한 제주 전도구역을 3분 하여 제주 동편 신좌, 구좌, 동중, 서중, 정의, 우면 등 6면은 임정찬 목사의 황해노회 관할구역으로, 산북지방은 김창국 목사의 전북노회 관할구역으로, 산남지방은 윤식명 목사의 전남노회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 보고하여 채용하니라.²⁰³⁾

제주도 선교는 산북지방(제주면·신우면·구우면)은 전북노회에서, 산남지방(대정면·중면

202)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08), 223~224쪽.

203) 『전남노회록』, 1918년 7월 6일.

·좌면)은 전남노회가 맡았으며, 1918년부터 산남지방의 동쪽 여섯 개면(신좌면·구좌면·정의면·동중면·서중면·우면) 지역은 황해노회가 맡았다. 이즈음에 이기풍 목사의 후임으로 제주도에서 자업 선교에 전념하던 최대진 목사가 1917년 5월에 전라북도 노회로 이전하였다. 대신에 김창국 목사가 부임하여 선교사로 사역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주도에는 대정지방(산남 서쪽)의 윤식명 목사, 제주지방(산북)의 김창국 목사, 그리고 정의지방(산남 동쪽)의 임정찬 목사가 제주선교에 대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제주지역을 3개로 나누었다.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해 남 전도인 최대현, 이재순, 여 전도인 이선광 등이 사역하였으며, 1918년부터는 광주에서 파송된 남전도인 원용혁과 여전도인 김정신 등이 협력하여 전도하였다.

본 장에서는 윤식명이 부임하고 황해노회가 제주선교를 중단하기 전까지 산북과 산남지방, 그리고 정의지방으로 삼분 되어 진행된 제주선교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산북지방(성내·금성·삼양·한림교회)

당시 행정구역상 제주도는 제주군, 대정군, 정의군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주를 셋으로 분할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주군은 제주읍을 거점으로 하고, 대정군은 대정읍 모슬포를, 그리고 정의군은 성읍을 거점으로 삼아 제주선교를 분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제주에 있는 3개의 군은 각기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군은 산북지방으로, 대정군은 산남지방으로, 그리고 정의군은 동지방으로 통했다. 제주에 전남노회와 전북노회가, 그리고 황해노회가 선교에 동참하면서 제주지역을 위 분류원칙에 따라 산북지방, 산남지방, 그리고 정의지방으로 삼분하여 선교지 분할을 하게 되었다.

1908년 입도하여 제주지역 전체를 담당하던 이기풍 목사는 1915년 이임하였다. 그 후 산북지역은 이기풍의 후임으로 최대진(崔大珍) 목사와 김창국(金昶國) 목사가 부임하면서 산북지역의 중심교회인 성내교회와 삼양교회를 중심으로 삼양에서 한림까지 이르는 구역을 맡아 제주선교를 지속했다.

1) 성내교회

1908년 2월, 천신만고 끝에 제주도에 도착한 이기풍 목사가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은 신축교란 이후 가중된 외국인과 외국종교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밤을 지새우며 지혜와 능력을 구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가 제주 도내의 실정을 파악하면서 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제주 토박이 김재원을 만났다. 이기풍 목사와 김재원의 협력전도로 홍순홍, 김행권 등이 함께 동참하여 향교골에 있는 김행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성내교회의 시초가 되었다.

성내교회의 설립

제주선교에서 성내교회의 설립은 제주도 선교사 상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 최대의 도회지인 제주읍에 개신교회의 선교 거점이 구축(構築)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내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삼아 산지포 일원과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上)』는 성내교회의 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성내교회가 성립하다. 선시(先是)에 老會에서 파송(派送)한 목사 이기풍이 當地에 來하여 산지포에서 전도할새 京城에 유(留)할 시에 수세(水洗)한 김재원(金在元)을 봉착(逢着)하여 협력 전도한 결과, 홍순홍(洪淳興), 김행권(金行權) 등이 귀주(歸主)함으로 기도회(祈禱會)를 시작하였고, 일도리(一徒里) 중인문 내에 초옥(草屋)을 매수(買收)하여 예배당(禮拜堂)으로 사용하고, 전도인 김홍련(金弘連), 이선광(李善光) 등이 전도에 노력(努力)하니라. 204)

1908년 2월, 향교골 김행권의 집에서 시작한 성내교회는 1909년 일도리 중인문(重仁門) 안에 초가 여섯 칸의 초가집 두 채를 매입하여 한 채는 목사 사택으로 한 채는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이 초가집이 1910년 구(舊) 출신청(出身廳) 건물을 매입할 때까지 사용된 성내교회의 처음 예배당이였다. 중인문 안에 초옥을 매입하여 성내교회의 처음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된 데에는 선교사들의 방문과 이기풍목사의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포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이기풍 목사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으며, 향교골 기도처는 이로 인하여 큰 힘을 얻었다.

204) 차재명,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上)』,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342쪽.

김홍련 전도인은 향교골에서부터 교회를 섬겼으며, 교회가 중인문 안 예배당으로 옮길 때에는 평양여전도회의 파송을 받은 이선광 전도인이 합류하였다. 김홍련, 이선광 전도인은 이기풍 목사를 도와 전도에 힘을 쏟았다.

성내교회의 성장

1910년에 이르러 성내교회는 한 번의 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숙 영흥학교(永興學校)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일도리 예배당이 삼도리 구(舊) 출신청(出身廳) 건물을 매입하여 예배당을 옮기게 된 것은 사숙의 확장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였고 후학 양성에 관심이 많은 철종의 부마인 박영효가 100원²⁰⁵⁾을 헌금했기에 가능했다. 교회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박영효는 교회가 제주도 주민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성내교회와 영흥학교의 확장은, 1910년 국권을 잃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탄압을 받던 시기에, 한국의 남단 제주도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다.

성내교회의 두 번째 도약은 1912년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비단 성내교회뿐 아니라 전 제주선교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제1회 총회록(1912)에는 “**교인 중에 권능을 받아 병 고치는 자가 많고 전도인이 전도함에 문이 크게 열렸사오며**”라는 기록이 보인다. 같은 보고서에는 1912년에 새로 들어온 교인 수가 200여 명이라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제주도의 총 교인 수가 410명임을 감안할 때 이는 교인 수의 절반이 한 해 동안 교회로 물려온 것을 뜻한다.

성내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성도들의 질적 성숙과 주민들이 복음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오해의 불식, 그리고 전도인들의 열성에 기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직원을 선발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기풍 목사는 곧바로 김재원을 영수(領袖)²⁰⁶⁾로 선발하고 서리집사 4인을 임명하였다.

성내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정점으로 장로로 피택된 김재원 영수와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였다. 그동안 이기풍 목사는 외교적 재능을 발휘하여 전라남북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처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주의 선교 상황을 보고하고 동시에 교회의 증축을 위한 건축헌금과 복음 전파를 위한 도움을 호소하였다.

성내교회는 화합과 일치에 힘쓰며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탔다.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열심을 내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이 나타났다. 교인들이 헌금하여 조사(전도인)

205)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일 때, 쌀 한 말 값이 9원이었다.

206) 영수(leaders)는 선교지회(sub-station)의 회중이 선택하거나 담당 선교사가 임명하는 본토인 교인으로, 정기예배 인도자가 없을 때 예배를 인도하며 선교지회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임무를 지닌다.

연보를 위한 헌금이 전체 연보의 절반을 넘었다.

성내교회의 당회 조직

성내교회가 급성장하여 도(島)내 중심교회로 우뚝 선 것은 1913년 초반이었다. 그 후 성내교회는 이기풍 목사의 병고로 일시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내교회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1917년 8월(제7회 노회)에 보고 된 통계를 보면 성내교회는 세례교인 74명, 학습교인 21인, 그리고 원입교인 56인 등 160명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내교회의 재정은 교회의 규모에 비해 미약했다. 일 년 결산이 2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조사 1인의 봉급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상비를 지불하기에도 힘에 겨운 실정이었다. 1910년에 설립된 영흥학교를 어떻게 해서든 발전시켜보려는 바람은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 1915년 이기풍 목사가 실음증으로 제주를 떠날 때쯤 되어서야 겨우 독립된 교사(校舍)를 마련했을 정도였다.

제5회 노회록의 “교실이 없어 4, 5년간 곤란히 지내다가 학교에 여재가 있어서 집한 채를 사서 교수의 편리하게 됨을 감사함.”²⁰⁷⁾이라는 보고는 이러한 형편을 반영한다. 초가집 하나를 교사로 마련하긴 했으나 이기풍 목사가 떠난 후 학교의 운영은 난관에 봉착했다. 학교 용비(用費)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존폐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1917년 성내교회는 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학교 형편은 교회 내 남녀학생을 양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를 유지할 방침이 없어 보통학교로 보냈사오며”²⁰⁸⁾라고 말하며 영흥학교의 폐쇄를 애석해했다. 학교의 문을 닫을 당시 재학생들의 총수는 22명이었다.

이기풍 목사의 뒤를 이어 1915년 9월부터 ‘자업 전도목사’로 부임한 최대진 목사는 산남지방의 윤식명 목사와 협력하여 1916년 3월부터 5월까지 70여 일에 걸쳐서 제주도 전역에 2천여 권의 복음과 1만여 장의 전도지를 배포하는 등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40여 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최대진 목사²⁰⁹⁾는 제주도 선교에서 산북지방을 맡아 성내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1917년, 제주도 최초로 김재원과 홍순홍을 장립시키고 제주도 최초의 조직교회를 세웠다. 1912년 12월 말경 장로 피택을 받은 김재원의 장립이 늦어진 이유는 김재원이 노

207) 제5회 전라노회록 (1915), 10쪽.

208) 제7회 전라노회록 (1917), 19쪽.

209) 한인수, 『호남교회 형성 인물』,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09), 77~82쪽.

회 시취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홍순홍은 1915년 말경 장로 피택을 받고 김재원과 같은 날 장로의 장립을 받았다.

제주를 떠나 광주 북문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기풍 목사는 1917년 4월 윤식명 목사, 남대리 선교사와 함께 성내교회를 찾아 부흥사경회를 인도한 후 김재원과 홍순홍의 장로장립식을 친히 주재했다.

김재원과 홍순홍을 장로로 세움으로 성내교회는 창립 7년여 만에 당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당회가 구성되자 성내교회는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되었다.²¹⁰⁾ 그런데 최대진 목사 본인이 당회장을 맡은 것이 아니라 윤식명 목사를 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 이는 최대진 목사가 머지않아 제주도를 떠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제주 최초의 조직교회 당회장이라는 명예를 사양한 것이다.

최대진 목사는 자비량(自備糧) 전도로 제주도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다가 1917년 5월에 전라북도 익산군 신덕리교회로 떠났다. 그후 1917년 8월 24일 제7회 노회에서는 김창국 목사를 제주도 전도목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²¹¹⁾

김창국 목사 부임

김창국(金昶國) 목사는 1917년 9월에 선교사로 부임하여²¹²⁾ 성내교회를 중심으로 산북지방의 여러 교회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1918년에 삼양리교회와 세화리교회, 그리고 1919년에는 내도리교회 설립에 기여했다.

김창국 목사는 성내교회에서 당회장으로서도 중요한 일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교회의 종이 없었는데 교인 홍영진 씨가 50원을 현금함으로써 미국에 주문하여 종을 구매하였으며, 이기풍 목사가 선교 초기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중단된 사숙 영흥학교를 다시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²¹³⁾ 사숙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는데, 남학생 사숙은 1924년까지 진행하고, 여학생 사숙은 교회의 재정 부족으로 1918년에 중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고자 김창국 목사는 1920년 말에 김익두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김익두 목사를 통한 은사체험은 제주도 성내교회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

210) 기독교신보, 1917년 6월 6일 자.

211) 성내교회는 이기풍 목사가 치료를 끝내고 다시 부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기풍 목사는 1916년 8월에 광주 양림교회의 당회장으로 부임하였다.

212)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169~170쪽.

213) 사숙의 교사는 조봉호, 좌형수, 김재선, 김세옥, 강규언, 김봉주, 이인전, 홍마태, 홍마리아, 윤진실, 윤신실, 김대봉, 김광삼, 김옥성, 신재홍, 정상조 등이다.

였다.

1921년을 새롭게 출발하였지만, 김창국 목사의 목회는 탄력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김창국 목사 자신도 변화를 추구하던 즈음에 광주 양림교회의 청빙이 있어서 1922년 3월에 이임하게 되었다. 이는 성내교회 당회장으로서의 활동과 맞물려 1919년에 일어난 3.1만세운동과 이어서 발생한 군자금 모금 운동과 관련된 체포와 재판과 형 선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의욕을 잃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내교회의 처음 교인들

김홍련 전도인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에서 꼭 기억되어야 할 사람은 전도인²¹⁴⁾ 김홍련(金弘連)이다. 김홍련은 아마도 이기풍 목사 가족과 함께 평양에서 경성을 거쳐 목포까지 동행한 조사였을 것이다. 이기풍목사가 목포에 있는 가족에게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냈을 때, 그 연락을 받고 김홍련 전도인은 윤함애 사모와 함께 1908년 4월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기풍목사를 섬기면서 제주 삼백여 동리를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김홍련이 등장하는 자료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와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언급되고 있다. 먼저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를 살펴보자.

1905년(乙巳), 맹산군(孟山郡) 용덕리교회가 성립하다 초에 김홍련의 전도로 박정병, 김화순 양인이 믿고 초가삼간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교회가 점차 진흥되야 석실로 6간 예배당을 증축하니라.²¹⁵⁾

위의 기록에 의하면 김홍련은 전도인이다. 그는 제주도로 가기 전에 이미 1905년 맹산군 용덕리교회 설립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 협력자로서, 독노회의 부름을 받아 1908년 초기 사역부터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홍련

214) 당시 전도인은 조사의 다른 명칭이었다.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조사(助師, Helper)란 원래 목사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생긴 조력자로서, 역할은 현재의 전도사의 범위를 넘지 못했다. 조사의 원래 직무는 지방을 순회 전도하는 선교사를 보조하는 일이었는데, 적은 수의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교회를 일일이 돌면서 주일마다 설교도 하고 심방도 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들 조사들과 함께 교회를 맡아보도록 조치한 것이다. 한 조사가 맡은 교회 수는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개 5~6개 처소를 담당하였다. 참조 :항목 “조사”, 기독교대백과사전.

215)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142쪽.

은 성내교회에서 평양 여전도회의 파송을 받은 이선광과 함께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김홍련의 역할을 소개한 제2회 독노회록에 의하면 김홍련은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이기풍 목사와 함께 제주선교에 동참했던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제주 전도인(조사)²¹⁶⁾이었다.

이선광 전도인

이기풍 목사의 제주선교는 그를 돕는 협력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중에서도 평양여전도회에서 파송한 이선광(李善光) 전도인의 역할은 남달랐다. 그녀에게는 여선교사라는 공식적인 타이틀도 주어지지 않았고, 화려한 조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오래 제주를 섬기며 제주교회의 초석을 놓았다.²¹⁷⁾

선교현장에 전도인을 동반시킨다는 결정에 따라 독노회와 한국교회는 이기풍 선교사 외에도 다른 사역자들을 장·단기적으로 제주도에 파송하여 이기풍 목사와 동역하도록 했다.

이기풍 목사는 1908년 경성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2회 독노회에 전도인 김홍련과 함께 참석하여 제주도의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설명하였다. 이 설명을 듣고 독노회는 방기창 목사의 발의로 “전도부인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²¹⁸⁾

이렇게 제주에 파견된 최초의 여전도사 이선광은 제주에서 5년간 사역했다. 성내교회가 향교골 기도처에서 중인문 일도리에 예배처소를 마련할 무렵부터 이기풍 목사와 같이 동역했다. 이기풍 목사가 제1차 제주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주도를 떠난 뒤에도, 이선광의 헌신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선광 전도인은 1910년 말 2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평양으로 잠시 돌아갔으며, 1911년 제5회 독노회의 파송을 받아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다. 1908년부터 1913년까지는 평양 여전도회 파송 여전도인으로, 1913년부터 1917년까지는 전라노회에서 파견한 여전도인으로, 이후 1925년까지 제주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다.²¹⁹⁾

216) 조사(助事 helper)는 선교사에게 부속된 기독교인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특별히 조력한다. 한 선교지 부를 순회 전도하면서 선교회와 예배처소를 돌보았다.

217) Margaret Best, "The Korean Woman's Missionary Society of Pyeng Yang, The Korea Mission Field(November, 1909), Vol. V, pp. 187~88.

218) 『제3회 독노회』, 1980, 15~16쪽.

219) 『기독신보』, 1925년 6월 24일.

윤함애 사모

제주선교 사역에 참여한 인물 중에 이기풍목사의 부인인 윤함애 사모²²⁰⁾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녀는 22세에 고향을 떠나 평양 이길함(Graham Lee) 선교사의 집에 거주하였으며, 평양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법과 여러 가지 의학적인 신교육을 배웠다. 이때 배운 기초적인 산과기술은 제주도 복음 전도의 귀중한 도구가 되었다.

윤함애 사모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던 이기풍을 설득하여 제주도 선교사를 자원하게 하였다.

제주에 와서도 윤함애 사모는 동네 사람들의 출산을 돕는 산과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동네 사람의 시신을 꺼리지 않고 정성껏 처리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동네에 있는 문맹 부녀자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는 등의 사역을 하였다. 제주선교 첫해인 1908년 윤함애 사모는 34명을 사택에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다.²²¹⁾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선교 25주년 기념행사 때 만든 자료들을 근거로 호남지역의 초기 선교역사를 기록한 니스벳(Anabel Major Nisbet) 여사는 윤함애를 '박해 속에서도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준 여인'으로 소개한다.²²²⁾

신학생 이기풍과 윤함애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주선으로 만나 1903년 결혼예식을 올리게 되었다.²²³⁾

제주도에서의 첫 사역 8년 동안 윤함애 사모는 남편을 도와 훌륭하게 사역했다. 그녀는 제주도의 여인들에게 복음(福音)뿐만 아니라 위생과 가정관리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었다. 1915년 이기풍 목사의 성대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들은 치료를 위해 목포에서 1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후 이기풍 목사는 광주 북문안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고 그곳에서도 정성으로 남편을 도와 사역하였다. 이후 1927년부터 1933년까지 5년간 제주도에서의 두 번째 사역을 포함하여 이기풍 목사가 총 13년간 제주에 9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윤함애 사모는 최선을 다해 내조에 힘썼다.

220) 한인수, 『호남선교 초기 역사(1892~1919)』,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8), 156쪽. 윤함애 사모의 이름은 세례를 받을 때 주어졌다. '함나'라고도 불린 이 말은 '조화롭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전에 가졌던 그녀의 모든 소망, 욕망 그리고 생각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조화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221)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08), 176쪽.

222) 한인수, 앞의 책, 150~155쪽.

223) 이기풍 목사는 윤함애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결혼했었다. 그 연대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부인에게서 큰아들 이사온을 낳았다.

선교 협력자들

제주선교 초기에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기풍목사와 협력한 동역자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전도인 김홍련, 여전도인 이선광 외에도 여러 전도인이 있었다.

김홍련 전도인이 신학 공부를 위해 1910년 말 평양으로 떠난 후, 김창문 전도인이 6개월간 제주에 들어와 금성리교회와 조천리교회 등을 맡아 이기풍 목사를 도왔다. 또한 김형재와 강병담은 평양 숭실학교에서 과송을 받아 사역한 학생들로 김형재는 1909년 5월에, 강병담은 1911년 후반기에 제주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

이선광 전도인이 1910년 말 2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평양으로 잠시 돌아간 시기에 목포의 마틴(Julia A. Martin: 마울리) 선교사의 도움으로 여전도인 두 사람이 제주도에 파송되었던 기록도 보인다.

1912년 12월 성탄축하 부흥사경회에서 12원을 헌금하였던 최대현은 본래 전라남도 강진사람이었다. 제주도에 들어와 성내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가 전도하여 이기언, 강규언, 김성하 3인을 얻었다. 최대현은 1915년 이기풍 목사, 기재순 조사와 광주 봉선리교회에서 파송한 원용혁과 광주 부인전도회에서 파송한 김경신 등과 열심 전도하여 중문리교회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²²⁴⁾

2) 금성교회

1907년 이른 봄, 한양에서 기독교학교인 경신학교를 다니던 조봉호가 금성리 사람들에게 한양 소식과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전도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의 친척들과 이도종 가족 등 몇 사람이 양석봉의 집에 모여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이 1907년 3월 10일이었다.

여기서 기독교에 입문한 인물 중 이도종, 이의종, 이기종, 이관종, 이성종, 이효민, 이자민, 이공민은 모두 이덕련의 자녀들이었다.²²⁵⁾ 전술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된 금성리 신앙공동체는 제주도 개신교 초기 교회인 금성교회로 발전하였다.

금성교회의 설립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上)』에서 조봉호와 금성교회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224)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173쪽.

225)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량을 딛고』, (서울: 쿰란출판사, 2010), 129쪽.

확인할 수 있다. 금성교회 시작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濟州道) 금성리교회(錦城里教會)가 성립(成立)하다. 독노회(獨老會) 설립(設立) 당시(當時)에 파송한 전도목사(傳道牧師) 이기풍(李基豐)과 매서인(賣書人) 김재원(金在元) 등(等)의 전도(傳道)를 인(因)하여 조봉호(趙鳳浩), 이도종(李道宗), 김씨진실(金氏眞實), 조운길(趙云吉), 양석봉(梁石峰), 이씨호효((李氏昊孝), 이씨자효(李氏慈孝), 김씨도전(金氏道田), 김씨유승(金氏有承), 좌징수(左澄洙), 이의종(李義宗)이 귀도(歸道)하여 조봉호(趙鳳浩) 가(家)에 회집기도(會集祈禱)하다가 이덕년(李德年) 가(家)를 예배처소(禮拜處所)로 작정(作定)하니라.²²⁶⁾

위에 기록된 금성리교회 구성원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이기풍 목사와 매서인(賣書人) 김재원이 조봉호 등 열 사람에게 전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서인 김재원의 인도로 이기풍 목사가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음은 김재원이 매서인으로 언급된 사실이다. 위의 인용문이 1908년 금성리교회 설립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할 때, 김재원이 언제부터 공식적인 매서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제주로 귀향하여 전도 활동의 처음부터 매서인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재원과 이기풍 목사의 전도를 받은 열 사람은 조봉호 가족과 이도종의 가족, 그리고 개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조봉호를 비롯한 열 명이 모인 것은 금성리신앙공동체의 초기모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²⁷⁾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반론을 펴는 주장도 있다. 『제주선교백년사』를 집필한 한인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1950년에 작성된 『조선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당회록』에는 교회의 창립일을 1907년 3월 둘째 주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연유는 이러하다. 조봉호는 1902년 경성에 유학하여 경신학교에서 수학했다. 1904년 부친의 사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동리 청년 몇 사람에게 전도하여 믿게 했고 1907년 3월에는 양석봉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²²⁸⁾

『금성교회당회록』의 상기 내용은 교회가 설립된 지 십수 년이 지난 후 전승에 따라 기록된 “금성교회 주일회록”(1924)에 의거하고 있어 그 사실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同 문서의 내용이 1928년에 출판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上)』와 상충된다는 점은 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일 조봉호가 이기풍 목사의 입도(入島) 전에 소위 ‘자주적인 교회’를 시작했다면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는 반드시

226)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상)』,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333쪽.

227)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9호, 2013, 200쪽.

228) 한인수, 『濟州宣敎百年史』, (서울:도서출판 경건, 2009), 26~27쪽.

“先時에 조봉호 가”하는 글귀가 첫머리에 부가되어 있어야 한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는 그러한 기록은 없고 “전도목사 이기풍과 매서인 김재원의 전도를 인하여”라는 문구만 나와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조봉호는 비록 경신학교에서 신앙을 접하기는 했지만,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 여전히 믿기 이전의 관습대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이기풍 목사와 김재원의 전도를 받고 나서야 신앙이 회복되어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교회설립에 있어 논란이 있으나, 그런데도 금성교회는 일찍부터 제주도의 초기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금성교회의 처음 교인들

이덕련

금성리교회의 구성원 중 이도종의 아버지 이덕련은 금성리에서 12년간 연속하여 경민장(이장)으로 일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가산을 내어 마을 바닷가에 치수장(治水場)을 건립하고 금성과 귀덕, 광지 등 마을 간에 시끄러운 어장 분쟁을 놀라운 기지로 잘 수습하였다. 처음으로 고구마 모종과 땅콩 씨를 구입하여 금성리에 보급하기도 하였다. 마을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는 그의 능력과 실적은 관읍장(官邑長)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이덕련은 1923년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헌납하였고 1928년에는 금성교회의 장로로 임직받으면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1930년에는 이 장로가 사재를 헌납하여 초가를 걷어내고 양철지붕의 예배당 66㎡(20평)를 신축하게 되니, 금성교회가 예배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발전해 나가게 된다.

이도종

이도종 목사는 제주 출신 첫 목회자이다.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 유배 온 남강 이승훈을 통해 복음을 접했고, 금성교회가 제주 최초의 신앙공동체로 출발할 당시에 함께 한 8명 중 하나로 참여했다.

금성교회를 함께 섬기던 조봉호 선생의 1919년 독립군 군자금 모금 사건이 터졌을 때 연루된 인물로 체포당한 기록이 있을 만큼, 이도종이라는 이름은 초창기 제주교회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양석봉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들어와 첫 교회를 세우기 전인 1907년 3월부터 조봉호, 이덕련 등 자생적 기도모임이 시작된 장소를 제공한 인물이다. 이 기도모임으로 금성교회가 시작됐다.

좌징수

이기풍 목사의 선교 시작 시기인 1908년에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금성리 교회의 조봉호와 이도종 조운길 등과 더불어 처음 11명의 신자 중 한 사람이다. 이후에는 제주의 지역교회를 다니며 이기풍 목사를 돕는 조사가 된 것으로 보이며 성내교회의 영흥학교의 교사로도 재직하였다.

『제주동지방 제직회록』에서는 1914년 4월 26일²²⁹⁾ 조천리 교회에서 이기풍 목사와 더불어 조사의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 현장의 증인으로 참석하였으며 1915년 이후의 조선총독부의 관보에는 그가 1915년 12월 23일 조천교회의 포교자(주소지는 용담리 6-8)로 기록되어 있다.

3) 삼양교회

삼양교회의 역사는 교회창립 전후(1915년)와 그 후 1948년까지의 운영내용은 1949년 1월 4.3사건의 여파로 예배당이 소실되면서 당시의 모든 기록 역시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아 자체의 기록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 기록은 지금까지 발간된 타 교회의 100년사와 제주노회의 기록과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을 인용하였다.

특히 삼양교회는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교회창립일이 1908년, 1918년 등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들은 1915년 10월 1일을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고수하고 있다.

한국교회 초기역사를 정리하면서 교회설립의 기준은 일관되게 예배당 혹은 예배 공간의 확보였다. 예배를 위해 구분된 집 혹은 방이 분명하게 마련된 시점을 기준으로 교회의 설립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독립된 예배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229) 임희국, 김석주편역, 『제주교회 동(편)지방회 및 동지방제직회 회록』 (서울:도서출판 케노시스 2018), 21쪽.

하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면면히 이어진다면 이를 오히려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삼양교회는 1915년 10월 1일을 교회의 창립일로 지키고 있다.

삼양교회의 설립

(1918, 무오년) “1918년(戊午) 제주도 삼양리교회를 설립하다. 선시(先是)에 파송한 전도 목사 이기풍이 전도하여 윤보원(尹寶元), 윤옥경(尹玉敬), 문만여(文晩汝), 박춘선(朴春先) 등이 신종(信從)하여 박춘선 가에서 기도회를 집회하더니, 전라노회에서 파송한 전도목사 최대진이 내도하여 전도한 결과 이선일, 오주병, 신평석, 문명옥 가족이 상계신종 하였는데, 오주병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하여 회집하였으며, 기후 윤식명, 김창국 등이 차제 시무하니라.²³⁰⁾

삼양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기록상 1918년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이기풍 목사의 초기선교사역 시절부터 복음 전도는 삼양에서 꾸준히 시도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²³¹⁾ 홍순희 권사(1905~1953)는 삼양이 고향으로 법환교회 현우남 장로의 어머니이다. 성장 과정에서 홍순희는 열 살쯤 되던 해에 신앙을 받아들였다 하는데, 1914년 혹은 1915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삼양에도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아직 교회가 없던 시절이어서 성내교회 혹은 조천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1918년 7월 24일 자 기독교신보의 기록에 의하면 공식적인 설립에 이르기까지 30여 명이 예배드린 것으로 보아서 산북지방 선교사와 전도인들이 삼양리를 순회구역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다가, 1917년 12월에 이르러 오주병 씨의 변화가 교회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신보>는 이렇게 말한다.

삼양교회는 작년 12월경에 비로소 설립된 교회로 남녀 30명이 이르러 재미가 많이 있는 중에 그것도 형제의 집에서 모이는데 새로 믿는 오주병 씨는 이왕 술객으로 허망한 일을 많이 하던 것을 다 온전히 회개하고 믿는 날부터 열심히 믿는 형님이올시다. 오십원 가치 되는 자기의 집을 바쳤는지라. 성내교회와 수원, 금성 양 교회가 그 형님의 열심히 성의를 하례하는 중 이십여 원을 당장 연보하여 수리비로 도와주어 ... 지금은 새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²³²⁾

230)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 (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311, 12~15쪽

231) 송중용, 『삼양교회 100년사』, (제주:태안인쇄사, 2020), 48쪽.

232) <기독교신보>, 1918년 7월 24일 자.

오주병 장로

오주병은 본래 표선면 신평리 사람이었고 침구사 등으로 봉사하였으며, 삼양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부흥회를 통하여 기독교 복음을 체험하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교인이 되었다. 어느 부흥회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대진 목사의 자비량 집회로 추측된다. 함께 개종한 사람들은 이선일, 신평석, 문명옥 가족들이었다. 윤식명 목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삼양이란 곳에 오주병 씨는 40여 세에 득남하고 자기의 집을 기도회 처소로 정하고 모이는 일도 있사오며” 라고 보고하였다. 사실상 오주병은 예수 믿고 삼양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현지 교인이 되었고 1923년 삼양교회 유치원을 세우고 책임자가 되기도 했다.²³³⁾

오주병은 1924년 8월 6일에 장로로 임직받아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교회가 완전 당회로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목회자를 단독으로 모실 수 없었다. 성내교회의 김정복 목사를 삼양교회까지 겸하는 동사무회자로 청빙하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김정복 목사

김정복 목사는 부임할 때부터 성내교회와 삼양교회를 같이 맡는 것을 전제로 부임했기 때문에 성내교회와 삼양교회 두 교회의 당회장이었다. 그가 삼양교회에 부임한 후 삼양교회는 활력이 넘쳤다. 교회가 부흥하자 1918년에 지은 예배당에 4칸을 확장 시켜야 했다. 이 확장 공사는 일본 오사카로 떠났던 교우들이 헌금을 보내오으로써 가능하였다.

제주삼양교회는, 9년 전에 전북노회에서 김창국 목사를 파송하여 열심 전도한 결과 교회의 기초가 완전히 되는 금년 봄에는 제주성내교회와 연합하여 김정복 목사를 위임동사 목사로 청빙하고 지금은 8칸 예배당이 좁아서 증축 예산으로 6월 29일에 일반교인의 출연한 금액이 227원 60전 인고로 불일 내로 4칸을 증축하기로 작정하였더라.²³⁴⁾

당시 교인들이 227원을 헌금했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삼양교회 출신들도 고향교회를 위해 헌금을 주저하지 않았다. 특별히 생활이 어려워 일본 오사카에 가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던 삼양교회 출신 교인 14명은 정성을 다해 본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한 것이다. 1924년 9월 24일 기독교신보에는

233) 송중용, 『삼양교회 100년사』, (제주:태안인쇄사, 2020), 48쪽.

234) 기독교신보. 1923년 6월 13일 자.

“삼양교회의 연”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실었다.

제주 삼양교회 교우 수십 인이 생활관계로 인하여 본교회를 이별하고 오사카에 건너가서 각 공장에 투신하여 노동 생활을 하는데 본교회 예배당을 증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자기 생활의 곤란한 것도 불구하고 각각 힘 있는 대로 아래와 같이 연보하였으므로 일반교인은 감사함을 마지아니한다더라.

문기천 2원, 김창길 2원, 서삼용 10원, 박순전 1원, 김명호 10원, 문이옥 1원, 김병식 2원, 장이보 10원, 문명옥 5원, 양지원 5원, 최응순 1원, 고평순 1원, 홍계성 50전, 우병성 1원 50전, 합계 52원²³⁵⁾

생활고로 일본에 건너간 이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뒤로 하고 고향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 혼신을 다해 헌금을 모아 보내온 것이다. 제주에 선교가 시작 된지 십수 년 만에 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들 14사람이 정성을 다해 모은 금액은 비록 52원이지만, 이 금액은 교회 전체 교우가 헌금한 금액 20%를 상회하는 액수였다. 교회를 건축한 후 삼양교회는 1925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이기풍 목사를 청해 사경회를 열었다. 부흥회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받는 중 부채에 더한 의연금의 130여 원에 달하였다.”²³⁶⁾

삼양교회는 꾸준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 결과 삼양교회는 장립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1928년 10월 31일 기독교신보는 이를 간단히 보도했다. “삼양교회는 설립된지 1년에 오주병 장로의 열심 수고로 교인이 160여 인에 달하고 지난 7일 주일에는 이기풍 목사의 사회로 김근서(金根瑞)씨의 장로 장립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²³⁷⁾

삼양교회의 처음 교인

윤보원은 삼양에 교회가 없던 시절, 그의 자매로 보이는 윤옥경과 몇 사람이 삼양에서 가까운 조천교회까지 걸어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1918년경 삼양교회가 설립되면서 그곳으로 터전을 옮겨간 처음 신자이다.²³⁸⁾ 삼양교회의 설립 사실이 기록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에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1913년에 학습인이 되었고, 1914년 4월 26일 조천교회에서 이기풍 목사로부터 40세에 세례를 받았다.

235) 기독교신보. 1923년 9월 24일 자.

236) 기독교신보. 1925년 4월 1일 자.

237) 기독교신보. 1928년 10월 31일 자.

238) 김창규, 『조천교회 90년사』, (미발행) 42쪽.

4) 한림교회(수원교회)

한림교회는 1915년 11월 2일, 이기풍 목사와 전도인들의 순회 전도로 안평길, 김중현, 양운용, 김흥수, 이순효, 사일청 등 6명이 수원리 양운용의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다. 1916년에는 김흥수 씨가 수원리 549번지에 가옥(바깥채 초가 6칸)을 지어 예배처소로 헌납하였고 교우들이 다 같이 열심히 전도하기에 이르렀다.

한림교회의 설립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에 나오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濟州島) 수원교회(洙源教會)가 설립(設立)되다. 선시(先是)에 전도목사(傳道牧師) 이기풍(李基豐)과 이씨선광(李氏善光)과 김영진(金永鎭), 조창권(趙昌權) 등(等)이 본도(本島)를 순회전도(巡廻傳道)할새 본리거(本里居) 김중현(金中鉉), 양운용(梁雲龍), 김흥수(金興洙), 안씨평길(安氏平吉), 사씨일청(沙氏一淸), 이씨순효(李氏順孝) 6인이 신종(新從)하여 양운용(梁雲龍)가(家)에서 예배(禮拜)하다가 김흥수(金興洙)가 자기가옥(自己家屋) 6칸을 예배당(禮禮堂)으로 공헌(拱獻)하여 회집(會集)하게 되었으며 기후(其後)에는 윤식명(尹植明), 김옥국(金旭國), 이창규(李昌珪) 등(等)이 목사(牧師)로 차례시무(次第視務)하니라.²³⁹⁾

그러나 목회자가 상주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므로 교회 내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돌아가며 교회를 돌보게 되니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1924년에 성내교회가 당회장을 단독으로 청빙함으로써 한림교회가 산북지방의 전도목사가 거처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었다. 김성원 목사가 상주하면서 목회에 전념하였으나 교회는 큰 발전이 없었다.

김성원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김영식 목사가 재직하던 1928년에 교회의 핵심이었던 고임생 집사가 사망함으로써 교세가 기울자 김영식 목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1930년 제주노회의 설립 시기에 교회의 명칭을 수원교회에서 한림교회로 개명하고 21평 양철지붕 예배당 건축을 독려하였다. 이 부분을 기독교신보는 이렇게 말한다.

제주도 한림포는 예배당이 없어 유감으로 생각하여 지방 목사 김영식 씨는 백방으로 주선 중, 경성 연동교회 유명근 영수의 20원과 전남 부인조력회 총회서 10원 연보와 수십 명의 극력연보로 금년에 22평의 양제로 건축하여, 5월 24일 주일에 헌당식 겸

239)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313~314쪽.

문명옥 씨의 장로 장립을 김영식 목사의 인도로 이기풍 목사의 강설과 김영식 목사의 집행으로 헌당식과 조상학 목사의 사회로 장로 장립식을 기쁜 마음으로 거행하고, 삼양 교우들의 많은 축하예물과 구세군 참위 이기성 씨와 성내 교우 지동국 씨의 축사가 있었고... 모인 수효는 남녀노유 합하여 근 이백 명이나 되었다. 240)

2. 산남지방(모슬포·용수·고산·법환교회)

산남지방의 경우는 1914년 전남노회 파송을 받고 제주의 전도목사로 부임한 윤식명이 1921년까지 모슬포에 거점을 마련하고 광주 봉선리(鳳仙里)교회의 파송을 받은 원용혁(元容赫) 조사의 협조를 받으면서 이 지역 전도활동을 전담했다. 산남지방은 크게 전남노회가 선교를 맡아 부흥시킨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과, 황해노회가 선교를 맡아 부흥시킨 성읍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으로 나누어 선교가 진행되었다. 이 두 지역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노회 지역보다는 성장이 느렸다.

1921년 윤식명이 이임한 후 전남노회의 파송을 받은 이경필 목사가 1921년부터 모슬포에 거점을 마련하고 원용혁과 광주 부인전도회 파송을 받은 김경신(金敬信) 전도부인의 협조를 받으며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산남지방이 담당한 전도구역은 한림에서 서귀포까지였다.

1) 모슬포교회

최근까지도 모슬포교회는 1910년 3월에 창립된 것으로 알려졌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史記)에는 1912년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가 펴낸 <1940년 장로회 연감>에는 창립 연월일이 명치(明治) 42년, 1909년 9월 1일로 기록되어 있다.

모슬포교회의 설립

따라서 모슬포교회는 1909년 9월 1일 창립되었고, 1912년에 설립되었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에는 모슬포교회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240) 기독교신보, 1931년 6월 17일 자.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12(壬子) 제주도 모슬포교회(慕瑟浦教會)가 설립되다. 일찍이 노회에서 파송한 전도 목사 이기풍이 이재순(李載淳), 강병한(康秉漢), 최대현(崔大賢) 등과 협력전도하여 강홍주, 정응호, 신창호, 김씨나오 등을 얻고, 그 후 전도목사 윤식명과 전도인 원용혁, 김경신 등의 전도로 이씨화숙, 김씨순전, 고씨수선과 송경서, 최정숙, 고계형, 장예규, 고훈장의 부인 등이 신종(信從)하여 신창호 가에 회집(會集)하여 예배하다가 연보(捐補)하여 초가 예배당을 건축하니라.²⁴¹⁾

윤식명 목사의 재임 시 산남지방의 선교본부인 모슬포교회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1919년 12월에 거행된 성탄절 행사에 관한 교계신문의 기사이다. 이를 그대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제주도 대정면 모슬포교회에서는 성탄절 당일에 성대한 축하식을 거행하였는데 오전 10시에는 일반 교우가 모여 예배하고 오후 7시엔 삼백여 명의 내빈과 함께 재미있는 강연과 연극이 있고난 뒤 불신자 중에서 금전을 출연하여 성탄비에 보용하기를 청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수하였는데 금액은 십삼원 오십전이라더라”²⁴²⁾

다른 하나는 윤식명 목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모슬포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된 최정숙(崔)의 실천적 신앙에 대한 보도이다.

“제주도 대정 모슬포교회는 설립된 지 팔구 년에 신자 수 칠팔십 명에 달한바 최정숙 씨는 모친 시하에 상업으로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중에 근검 저축하였던 몇백 원의 상업자본 중에서 수백 원을 교회를 위해 바치어 명월, 응포, 협재리, 금릉리 등 큰 동네에 전도인을 두어서 전도한 결과 지금 모이는 자 10여 명에 달하였으니 씨는 과연 우리 종교계의 모범적 인물이라 하겠더라.”²⁴³⁾

윤식명 목사가 제주도 산남지방의 선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전도 활동을 뒷받침한 단체가 여러 곳 있었다. 광주의 나환자교회, 광주부인전도회 그리고 순천부인전도회가 이들이다. 이들 단체는 전도인을 독자적으로 파송하여 윤식명의 선교활동을 직접 도와주었다. 상술한 단체 외에도 개인적인 후원자가 있었다. 광주의 어떤 성도는 삼일조를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송금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1914년 가을 입도(入島)한 이래 만 7년여 동안 사역하여 산남지방의 선교적 기초를

241)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 (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171쪽.

242) 기독교신보 1920년 2월 18일 자.

243) 기독교신보 1921년 9월 7일 자.

닭은 윤식명은 1921년 가을 제주도를 떠나 전주지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역기간 중 그가 교회로 이끈 신자의 수는 300여 명에 달하였다.

모슬포교회가 설립되기까지 전도목사 이기풍과 협력하여 모슬포 지역에서 전도활동을 벌인 사람으로 이재순, 강병한, 최대현이 기록되어 있다.

이재순은 평양 출신으로 1912년 이전까지는 러시아 해삼위(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매서인이었다. 그런데 1912년 제정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정교회 이외의 선교활동을 금지했다. 1912년 제1회 총회록에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야심 차게 시작했던 해삼위 선교가 부득불 중단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해삼위 전도는 사세 부득이 하여 중지하였고 최관홀 목사의 사무도 고만 두었으며 해삼위 매서로 보낸 이재순, 신윤희 양 씨는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아라사 관리에게 핍박을 당하여 갇히기를 한 달 동안이다. 나호 이수되기를 세 번이나 하였는데 그 고생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²⁴⁴⁾

총회는 해삼위 선교를 중단하고 대신 제주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삼위 전도사업과 최관홀 목사의 사무도 정지케 한 후 해당 전도비로 제주에 이재순, 강병담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²⁴⁵⁾

이재순은 매서인 신분으로 해삼위에 가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러시아 관리의 핍박을 받아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는 고생을 하다가 총회가 해삼위 선교를 중지하고 대신 제주 선교활동을 강화하던 1912년 말경에 제주도에 들어왔다. 이기풍 목사는 주로 제주에서 활동하고, 매서인으로서 곳곳을 다니며 선교한 경험이 있는 이재순은 모슬포에 자주 와서 전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 10월 15일, 『제주도동지방회록』에는 이재순이 윤식명 목사와 성읍리교회까지 동행하여 사무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⁴⁶⁾

이재순은 적어도 1916년 초까지는 모슬포교회에서 시무하였다. 모슬포교회 아회(유아)세례부에는 '1915년 2월 3일 윤식명 목사가 이재순, 이홍순의 장녀 이동옥에게 아회 세례를 베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16년 1월 26일 제출한 포교소 설립계에도 윤식명 목사와 더불어 이재순 전도인의 이름이 포교자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재순은 1937년 2월 1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별세하였다.

강병담은 1909년 평양 대중학생들의 연보로 제주 전도인으로 파송된 김형재의 후임

244) <제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 1912, 18~19쪽.

245)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14쪽.

246) 『제주도동지방회록』, 1914년 10월 15일.

으로 1911년 제주도에 내려왔다. 따라서 이재순보다 강병담이 먼저 모슬포교회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슬포교회 교역자 명부에도 이기풍 목사 이름 바로 다음에 강병담 전도인이 기록되어 있다.

평양대중학교 학도들이 연보하여 대학도 김형재 씨를 제주 전도인으로 파송하여
넉 달 동안 열심 전도 하였으며 247)
평양대중학교 학도의 연보로 대학도 강병담 씨를 보내어 전도하는 증이오며248)

강병담 전도인이 모슬포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1922년 순천노회가 창립될 때 순천노회 서기로 일했으며, 1924년 제3회 순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전도목사로 임명되었고, 1927년도에 제10회 순천노회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249)

최대현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예수를 영접한 후 제주도로 내려와 제주 산남지방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의 직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외부 어느 곳에서도 지원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3년 총회전도국 제주선교 지출보고 내역에는 이기풍 목사 월급 270원, 이재순 조사 월급 180원, 강병담 월급 180원이 기록되어 있지만250) 최대현에 대한 것은 지출 내역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기록된 것이 없다. 다만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에 기록된 모슬포교회와 중문교회 설립에 관한 기사 내용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모슬포교회 설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1912년 이전에 제주도에 내려왔으며, 중문교회 설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1914년까지는 제주도에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초창기 제주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기풍 목사의 전도로 시작되었지만, 오직 중문교회만은 예외로, 이기풍이 아닌 최대현의 전도로 시작되었다.

모슬포교회의 처음 교인들

윤식명 목사는 적극 전도에 나서서 이화숙, 김순전과 가파도 출신의 고수선, 그리고 송경서, 최정숙, 고계형, 장예규, 고 훈장(訓長)의 부인 등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에 나오는 모슬포교회 처음 교인 중에서 **강홍주**는 후에

247) <조선예수교장로회 제3회 독로회록>, 1909, 12~13쪽.

248) <조선예수교장로회 제5회 독로회록>, 1911, 10쪽.

249)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서울:고려글방, 1992), 491쪽.

250) <제2회 조선예수교장로회 회의록>, 1913, 21~22쪽.

모슬포교회 장로로 장립되었으며, **신창호**는 그의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다. 김씨 나오로 기록되어 있는 **김나홍**은 모슬포교회 초대장로 최정숙 장로의 모친으로, 윤식명 목사가 1918년 중문에서 법환리로 전도하러 가다가 보천교도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 함께 동행했던 일행 중 한 사람이다.²⁵¹⁾

고수선은 가파리 출생으로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중 3·1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1922년에는 독립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공부하여 제주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한지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1·4후퇴 때 제주도에 내려와 본격적인 사회활동(한글강습소, 제주도 자원, 홍익보육원, 선덕어린이집, 경로당)을 벌여 1980년 제1회 만덕봉사상을 수상하였다. 1989년 8월 11일 92세의 나이로 별세하였고, 1990년 12월 16일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최정숙은 모슬포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다. **송경서**는 모슬포교회 서리집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였고 특이한 것은 고 훈장의 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훈장은 유교 문화를 전파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 집안은 철저하게 제사를 지켰을 것이 분명하다. 훈장의 처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열성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²⁵²⁾

2) 용수교회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용수리에 기도회가 시작된 것은 1913년인데 지지부진하여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해 왔으나 윤식명 목사의 전도로 교인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정기적인 예배 처소가 된 것이다. 1917년 전도국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용수리에는 새로 예배당 처소가 되어 올해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20여 인이오니 장래의 희망이 많사오며”²⁵³⁾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7년 8월의 통계를 보면 산남지방의 세례교인은 44명, 학습교인은 20명, 원입인은 48명으로 전년보다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동 지역 내의 두 곳의 교회에서 운영되는 교회학교의 학생 수는 150명을 헤아리고 있었다. 산남지방에도 복음의 계절이 성큼 다가와 서서히 약동(躍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251) 이형우, 『모슬포교회 100년사』, (서울: 고려인쇄공사, 2009), 48쪽.

252) 이형우, 『모슬포교회 100년사』, (서울: 고려인쇄공사, 2009), 49쪽.

253) 제7회 전라노회록(1917), 34쪽. 재인용.

용수교회의 설립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는 용수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21년(辛酉) 제주도 용수리(龍水里)교회가 설립(設立)되다. 선시(先時)에 전남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윤식명의 전도로 이명춘(李明春), 이봉춘(李奉春)의 양 가족과 김기평(金基平), 홍성칠(洪成七) 등이 신종(信從)하여 이봉춘은 예배당 기지(基地) 60평을 기부하고, 교인은 60여 일을 연보(捐補)하여 예배당을 신건(新建)하였고, 그 후에는 목사 이경필(李敬弼), 영수 이명춘이 전도하여 인도하였다. 254)

용수리교회의 발전은 콜레라의 창궐(猖獗)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용수리 지역에 괴질이 먼저 어린아이 하나가 독종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윤식명 목사 일행이 기도함으로써 병이 낫게 되었다.

제주도에는 1920년 7월에 콜레라가 유행하여 구좌면 김녕리에서 8월까지 사망자가 100여 명에 달하고, 8월 11일에 제주도 전역에서 환자 수가 946명, 8월 15일에는 2천 명이라고 보고하였다. 다행히 성내에는 환자가 없으므로 외지와 교통을 50일 동안 차단하여 궁민(窮民) 200여 가구가 발생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환자 발생 수가 1만여 명이 고, 사망자가 5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255) 윤식명 목사의 신유(神癒)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윤식명 목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리 주민들이 개종함으로써 30여 명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사실을 총회 앞으로 보고하면서 “제주는 제사와 술 먹는 일로 전도하기 난(難)한 곳이 많고 마귀가 나가는 것을 보고 믿는 자도 있사오며”256)라고 하였다.

3) 고산교회

고산교회는 1916년 2월 15일을 교회의 설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또한 1920년에 광주(光州)교회의 성도 박재화 씨가 제주선교를 위하여 200원을 기부하여 전도인을 파송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파송된 전도인은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고산 지역에서 8명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1921년 가을에 1명이 세례를 받고, 7명이 학습을 받아

254)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549쪽.

당시에는 지사포와 용당이 모두 용수라는 지명으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여기서 설립되는 용수교회는 용당리 주전동에 세워진 교회로서, 1937년에 지사포교회와 용수교회는 하나로 합병하게 된다. 위 책의 기록에서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면서도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양 교회 교우들의 이름이 섞여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255) 고창석·강만생·박찬식, 『제주사 연표 I』, (제주: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5), 374~375쪽.

256) 제6회 총회록, 1917, 12쪽.

교회의 뿌리가 내려졌다고 말할 수 있다.

고산교회의 설립

고산교회의 설립은 윤식명 목사와 원용혁, 김신경 전도인(金信敬)의 전도로 강명수(康鳴洙)의 집에서 기도회로 모여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下)』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²⁵⁷⁾

제주도 고산리교회(高山里教會)가 설립(設立)되다. 선시(先時)에 용수리(龍水里) 김기평(金基坪)이 본리(本里)에 복음을 선포(宣播)하였고, 광주양화상(光州洋靴商) 박재하(朴宰夏)가 1년간 김진배(金珍培)를 파송전도(派送傳道) 후 목사 윤식명(尹植明)과 전도인(傳道人) 원용혁(元容赫), 김씨신경(金氏信敬)이 계속전도(繼續傳道)하여 신자(信者)가 초진(稍進)하여 강명수(康鳴洙)가(家)에 기도회로 회집(會集)하더니 시년(是年) 추(秋)에 추씨산옥(秋氏山玉)이 기지(基地)와 초가 3칸(三間)을 금(金) 290원(二百九十圓)에 매수(買收)하여 교회에 기부(寄附)하여²⁵⁸⁾ 예배당으로 사용하였고, 기후(其後)에 목사 이경필(李敬弼)이 교회를 인도(引導)하였다.

고산교회가 자리 잡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김기평(金基坪)과 추산옥(秋山玉)이다. 김기평에 대한 기록은 이사례 권사의 '순교보'에서 찾을 수 있다. 1908년에 이기풍 목사가 전도하며 요한복음 쪽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을 김기평이 받게 되었다. 혼자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었기에 큰아들을 이기풍 목사에게 보내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들이 착각하여 이기풍 목사가 아닌 제주읍에 있는 천주교 신부를 찾아가 천주교 교리를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 본인이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김기평은 직접 제주읍으로 이기풍 목사를 찾아가 제대로 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기평 부부는 1913년 2월 11일에 세례를 받았으며, 조상의 신주와 제구를 불에 태움으로 일가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이러한 배척과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김기평은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처가 시작되었다. 1914년 9월 이후 윤식명 목사가 모슬포교회에 부임하자 그 순회 구역에 편입되었다. 그해 12월에 지명을 따라서 '지사포 기도처'로 불렸고, 1918년 봄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고산교회의 처음 교인들

257)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558쪽.

258) 7) 추씨산옥이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자, 양아들이었던 이천년 씨는 양모를 구타하고 가옥과 집을 파괴하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김기평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곧바로 인근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전도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고산지방의 첫 신자들이 서관오, 위국진, 추씨산옥 등이었다. 이들은 고산리 2728번지에서 기도처를 마련하여 예배드렸다. 그러다가 70세의 고령에 이른 과부 추산옥(秋山玉)이 1916년에 초가삼간을 예배당으로 헌납하자 교회는 크게 힘을 얻었다.

4) 법환교회

법환교회는 1917년 10월 1일, 창립 예배를 드렸다. 법환교회 설립과 성장에 이기풍 선교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공식적 기록은 법환교회 첫 번째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함께 했던 기록이 전부이다. 그 후 1914년 모슬포교회에 부임하여 산남지역의 교회를 돌보게 된 윤식명 목사가 원용혁 조사와 전도부인 천아나를 보내 법환리를 돌보게 하고, 김운숙을 법환교회의 전도인으로 지정하여 3년간 전담 시무하게 한다.

김운숙 전도인은 예배당이 없어 예배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하와이의 강한준 권사에게 2~3회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법환교회 100년사』에는 강한준 권사가 처음 5개월 동안은 15원을, 이후 25원으로 증액해 5년간을 꼬박 전도비를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²⁵⁹⁾ 이 같은 법환교회의 초기모습이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에 잘 나타나 있다.

법환교회의 설립

제주도(濟州島) 법환리교회(法還里教會)가 설립(設立)되다. 전시(先是)에 목사(牧師) 이기풍(李基豐)이 전도(傳)하였으며 기후(其後)에 전남노회에서 파송(派送)한 목사) 윤식명이 김진성(金振聲), 원용혁(容容赫), 김씨나홍(金氏拿鴻), 천씨아나(天氏亞拿)로 협력전도(協力傳道)하여 신자(信者)가 점차(漸加)하므로 교회(教會)가 완성(完成)하였고 특히 포와(布蛙)에 기우(寄寓)한 본도인(本島人) 강한준(姜漢俊)이 전도인을 세워 전도(傳道)하므로 교회가 더욱 발전되었으며, 본리(本里) 신씨매선(申氏梅先) 가(家)에 집합(集合)하더니 시년(是年)에 강한준의 기금 325원(三百二十五圓)으로 82평의 기지(基地)와 2동(二棟) 6간(六間)의 초가(草家)를 매수(買收)하여 예배당(禮拜堂)으로 사용하였고, 목사 이경필(李敬弼)과 영수(領袖) 강운석(康云石)이 교회를 인도하였다. ²⁶⁰⁾

259) 신혜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서울:도서출판 맘에드림, 2017), 99쪽.

위의 내용처럼 법환교회 초기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으니 전도부인 천아나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며 5년 동안 전도비를 보내온 강한준이다. 먼저 천아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천교회와 성읍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이기풍 목사가 1909년 평양에서 모인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의 회의 석상에 보고한 당시의 제주도교회의 전도형편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을 내어 믿는 신도들이 늘어났고 배도(倍道)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신자들도 나타났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 즐거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천아나는 바로 그 “배도(倍道)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신자”로서 “병고침(神癒)”의 체험(體驗)을 가진 흔치 않은 성도였다. 그녀는 넘치는 기쁨과 능력을 복음 전파에 활용하면서 여생을 분주히 제주의 구석, 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이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 작고한 법환리 교회의 초기의 두 분 교인을 대상으로 채록했던 다음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아나가 비록 67세를 넘긴 노인이지만 전도의 삶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았었는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영신 집사²⁶¹⁾의 모친(한인성)은 법환리 태생인데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믿었다. 모친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조천교회 천아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부터이다. 전도부인 천아나가 마을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법환 포구의 너른 광장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전도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천아나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우리에게로 오면 아픈 곳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를 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영신 집사의 큰언니인 이기수는 1남 1녀를 낳은 후 몸이 통통 붓는 병이 생겨 친정에 있었는데 이영신 집사의 모친이 천아나 할머니께 딸을 데리고 가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 이영신 집사의 기억에 의하면 천아나의 모습은 머리가 허연 할머니였는데, 고씨, 신씨라고 불리는 할머니와 함께 법환리 농촌의 바쁜 일손, 즉 조 이삭을 따는 일을 도와주며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전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마 일요일로 생각되는 날에 정기적으로 전도한 마을 사람을 모아 법환마을 빌레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가르쳤다고 한다.

260)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554~555쪽.

261) 법환교회 박문옥 장로 부인으로 박안세목사와 박대성 장로의 모친임. 채록일시는 '94.9.9(월) 오전 11:30경이며 채록팀은 김동식목사, 이근진장로, 김창규집사, 양인혁집사, 박수정 청년임. 재인용

홍순희 권사²⁶²)는 신촌이 고향이며 삼양에 외가가 있었기 때문에 열 살 무렵부터 삼양에서 살았다. 그의 이모가 아팠는데 치료에 별 효험이 없었다. 시집의 “백성낭 귀신”이 들려서 그랬던 것인데 외할머니께서 굿하고 여러 수단을 다해봐도 낫지 않고 아프기만 했다. 그래서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성내교회에 이모께서 아기를 업고 찾아가 고침을 받았고 할머니로 보이는 교인들의 위로와 잘 대해줌으로 인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홍순희 권사가 교회에 나간 것은 그때부터인데 삼양²⁶³)에서 성내교회 주일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 해 어떤 주일날 조천교회에 예배드리러 홍권사의 언니를 따라갔었다. 그 후에 들으니까 천아나 할머니가 성읍리교회에 집을 사서 예배당으로 헌납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후 법환리에 와서 들으니까 서너 달 이곳에서 집을 빌어 살면서 전도하고 강만호 부부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다음은 하와이 이주 노동자로 법환교회 건축에 큰 힘을 보탠 강한준의 이야기이다. 1917년 6월, 전남노회 전도국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멀고 먼 하와이에서 날아온 편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와이 거하는 강한준 씨가 5년을 기한하고 매년 미화 육십 원씩 보낼 터이니 자기의 살던 동네 법환리에 전도인 일인을 세워 달라고...²⁶⁴)

보낸 이는 법환마을 출신으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강한준이었다. 강한준은 1876년 제주도 법환리 강맹송의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나 26세까지 제주도에 성장했다.

그런데 강한준은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강한준의 조카손녀인 현경혜 권사²⁶⁵)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강한준 할아버님이 떠나신 이유는 제주도를 뒤흔들었던 이재수의 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배대상이었던 이재수와 강한준 할아버님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혹시라도 화를 당할까 제주도를 떠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외삼촌²⁶⁶)을 통해 할아버지(강한준)가 직접 이재수의

262) 법환교회의 현우남 장로 모친으로 채록일시는 '94.10.2(일) 14시경이고 증언자는 1905년 6월 8일생으로 1914~1915년경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음. 채록팀은 이근진 장로, 김창규 집사, 박수정 청년임

263) 홍순희 권사의 증언으로는 아직 삼양교회가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로 삼양리에도 믿는 사람이 생겨 삼양교회의 창립신자인 윤보원 등은 조천교회로 출석하여 세례를 받았고, 일부는 성내교회에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264) 제2회 전북노회회의록

265) 현경혜 권사: 강한준 권사의 형 강한중의 증손녀

266) 강유돈, 강한준의 형 강한중의 아들 강우운의 장남. 강우운은 법환교회 강정운 장로와 형제지간이다.

난에 가담했다가 쫓기는 몸이 되어 인천으로 피했다고 들었습니다.”

강한준은 1903년 10월 5일 시베리아호를 타고 하와이의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는 젊음을 종자돈 삼아 하와이에서 새 삶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사탕수수 농장의 현실은 과연 어떠했을까? 섭씨 37.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허리라도 잠시 필까 하면, 여지없이 살점을 뜯어낼 것 같은 ‘투나’라고 불리던 말 탄 감독들의 매서운 채찍질이 있었다!²⁶⁷⁾

이것이 강한준을 비롯한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이 당면한 현실이었다. 강한준은 마우이섬 파이어 사탕수수농장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월급이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로 일반적인 농장 노동자보다 높았다. 강한준의 손녀에 따르면 전기 기술자였다고 한다. 고생 끝에 어엿한 기술자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 고난의 시절은 잊을 만도 했다. 그러나 강한준 권사가 떠올린 것은 하와이와 비슷하지만 아직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향 땅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와이에서 14년을 지낸 시점에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자 한 강한준의 신앙심과 제주도를 향한 애정이었다. 그리하여, 강한준은 제주를 담당하고 있던 전남노회 전도국에 편지를 보내게 된다. 이를 받아든 전남노회 전도국은 법환리에 전도인을 파송하게 된다.

...법환리 자기의 친족에게 전도하여 달라고 매년 미화 60원 전 5년간 계속 부송하겠다는 사(事)를 보고하여 채용되다...²⁶⁸⁾

당시에는 제주도에 자립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인이나 목사의 월급은 전도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법환리 만을 위해 지정 기탁한 강한준 권사의 헌금은 더욱 귀한 것이었다.

강한준 권사는 처음 5개월 동안은 15원을, 이후 25원으로 증액해 5년간 꼬박 전도비를 보내왔다. 당시 제주도 선교사 월급이 22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강한준 권사가 보내온 헌금은 법환리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전도비는 재정과 재산 관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선교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했던 탈메이지(Jhon Van Talmegy) 선교사에 의해 전남 전도국에서 제주도로 착실하게 전달되었다.

267)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3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2007), 358쪽.

268) 제2회 전남노회록 12쪽.

이처럼 천아나가 씨를 뿌리고 강한준이 토양을 제공함으로 법환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법환리라 하는 동리는 오류백호 되는 곳인데, 그 동리에 강만호라 하는 80 노인이 전도를 듣고 믿기로 작정한 후 주일을 각근하게 지키는데, 예배당에 주일마다 회집하기를 근 100 명씩 되오니, 감사한 일이외다. 누구시던지 제주도에 불쌍한 백성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²⁶⁹⁾

기독신보에 이런 글이 실린 지 1년여 뒤 시작된 것이 강한준 권사의 송금으로 진행된 전도인 파송이었다.

강한준 권사가 매년 보내온 미화 60원 전을 기반으로 윤식명 목사와 동역자들은 법환리를 특별전도구역으로 정하여 꾸준히 오가게 된다. 그것이 1917년 6월의 일이었으며 드디어 1917년 10월 1일, 법환교회가 시작되었다.

법환교회의 처음 교인들

원용혁 조사

산남지방은 윤식명 목사의 부임과 함께 집중적인 전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윤식명 목사가 가장 소망했던 것은 바로 동역자였다. 기다림 끝에 만난 동역자는 윤식명 목사와 더불어 산남지방 선교, 그중에서도 법환교회를 세우는 데 공헌한 인물, 원용혁 조사이다. 원용혁은 1915년, 광주 봉선리에 소재했던 한센병 환자들의 교회 봉선리교회에서 파송한 전도인이었다. 제주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제주기독교 100년사에서는 이렇게 정리했다.

이기풍 목사에게는 남전도인으로 김홍련, 김형재, 김창문, 강병담과 여전도인 이선 광이 있었으며 전라도 출신의 이재순과 최대현이 있었다. 윤식명 목사에게는 광주 봉선리교회에서 파송한 남전도인 원용혁, 광주 여전도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도사 김경신과 목포 양동교회의 김영진 영수가 있었다. ²⁷⁰⁾

1890년, 추자도에서 태어난 원용혁 조사는 서서핑(Eliz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²⁷¹⁾와 함께 광주 봉선리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선리교회에서 제주도로

269) 기독신보 1916년 7월 12일 자.

270) 법환교회 현우남 원로장로 녹취 내용 중 재인용

271)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미국 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선교사 7인중 한 사람. 고아와 과부, 한센병환자를 섬기며 전라도는 물론 제주도와 주변 섬의 복음화를 위해 애쓴 인물.

다시 파송된 이후 윤식명 목사가 세운 광선의숙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동시에 제주도 산남지방을 두루 다니며 전도에 힘을 쏟았던 인물이다. 그의 동생들, 원용덕과 원용현은 모두 광선의숙 교사를 거쳐 항일운동에 뛰어들며 민족의 계몽과 독립을 위해 애쓴 항일 인사들로 기록되고 있다. 원용혁 조사가 특별한 이유는 법환교회 초대 목회자 윤식명 목사의 진실한 동역자였으며 법환리 전담 전도인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여전도인 이선광

제주기독교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이라면 여전도인 이선광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09년 평양노회 여전도회의 후원으로 제주도에 파송된 조선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다. 이선광 선교사는 선교 초기부터 여성 교인들의 양육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환교회 역사의 태동기 주요인물인 천아나 전도부인 또한 이선광 선교사에 의해 양육되었다.

<제주도 여성사>에서는 남녀가 유별했던 사회에서 이선광 전도인이 여성 전도와 여성 교인들의 양육을 위해 끼친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고 평가했다. 6.25 전까지만 해도 성내교회에는 이기풍 목사의 공적비와 이선광 선교사의 공적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선광 선교사의 사역이 탁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⁷²⁾

산남지방의 성장과 수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산남지방은 윤식명 목사와 원용혁 전도사, 최대현 전도인 그리고 김기평 장로 등 여러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전도한 결과 교회가 부흥하였지만 지역적으로 주로 산남지방의 서쪽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산남지방의 동쪽 지역에 대한 선교는 황해노회에서 말도록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재정 지원

두 지역에서 선교가 가능하였던 것은 육지에 있는 각 교회들의 재정적 지원 덕분이었다. 제주도 선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72) 이선광 선교사에 대한 이후의 자료는 안타깝게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다만 그의 자녀 중 예장합동 제25대 총회장 이승길 목사, 손자로는 인천제2교회 원로장로 이준경, 증손자 또한 인천제2교회 담임 이건영 목사로 신앙의 유전을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노회에서 총회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목적성 현금 수납을 통한 기금 마련이었다. 이 방법은 노회 총회가 소속 교회들에게 감사절 현금, 크리스마스 현금 등을 선교를 위한 목적성 현금으로 구분하여 후원하기도 하였으며, 전라노회가 제주도 선교를 전담한 이래로 각 시찰별로 연간 선교비 총액을 할당하여 부담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노회에서 총회로 이어지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들이 제주도의 형편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현금하는 사례가 있었다. 선교사들이 노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선교보고를 하면서 어려운 형편을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하는 사례도 있었다.

세 번째, 선교사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연고를 좇아서 후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든다면 이기풍 목사의 출신 지역인 평양 여전도회 연합회, 승실중학교와 대학, 그리고 여러 교회와 기관들이 보이지 않게 후원함으로써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네 번째, 선교사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어려운 형편을 목격하고서 즉석에서 혹은 적절한 시기에 현금하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 이상 네 가지 유형의 선교현금과 더불어 매우 값진 현금이 있었다. 그것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적 열정과 헌신으로 제주도의 선교에 매우 값진 현금을 보내는 경우였다. 먼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리춘교 씨의 현금을 보기로 하자. 그는 산골 조그마한 교회의 평범한 교인이었다. 그런 그의 헌신은 어떠하였는가?

리춘교 씨는 금년 31세인데 논 두 말락과 밭 한 말락을 장만하였더니 기독교신보 3권 16호를 보고 비상한 감상이 일어나서... 즉시 전답과 가재도구를 팔아 46원을 받아서 20원은 중국으로 보내고, 20원은 제주도로 보내고, 6원은 진흥회로 보내고 자기는 셋집에서 사오니²⁷³⁾

또한 성내교회의 강대유 집사도 이에 못지않은 현금을 바쳤다. 1918년 12월 10일 자 성내교회 제직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강대유 씨가 몇 해 전에 거류 등지에 있는 밭을 헌납한 고로 1919년부터는 교회에서 임의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강대유 씨가 교회에 바친 밭을 상당한 시가로 방매하기로 가결하다.²⁷⁴⁾

이렇게 볼 때, 고산교회에 자기 집을 바친 70세의 추산옥, 성내교회의 종 구입 자금

273) 기독교신보, 1918년 6월 12일 자. 『제주기독교 100년사』 116쪽에서 재인용.

274) 성안교회 제직회의록, 1918년 12월 10일,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163쪽에서 재인용.

50원을 현금한 홍영진, 자신의 밭을 헌납한 강대유, 그리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셋집에 내려앉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선거교회의 리춘교 등은 모두 제주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또 이에 못지않은 감동을 주는 현금도 있었다. 광주 봉선리에 있는 한센병 집단치료소, 일명 광주나병원(후일에 애양원으로 개칭)의 환자들이 아픈 몸으로 일군 논과 밭의 소출을 팔아서 그 돈으로 제주도에 전도인을 파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선교헌금을 보냈던 사실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귀한 일이다.

1909년부터 시작한 광주 봉선리 한센병 환자 집단치료소의 환자들은 비록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원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마움의 표현으로써 제주도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918년(무오): 광주군 봉선리교회에서 원용혁(元容赫)을 제주에 파송하여 5년간 전도하게 하고 그 후에는 김재진을 파송하여 계속 전도하였다.²⁷⁵⁾

애양원교회(봉선리교회)는 1919년에 첫 장로임직식을 거행하여 당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제주에 전도인을 파송하고 봉급을 담당하여 재미있게 일하는 중 이오며.....

3. 정의(동)지방(성읍·조천·세화교회)

한편 정의지방의 경우는 1917년 임정찬(林貞燦) 목사가 황해노회의 파송을 받고 이 지역의 중심교회인 성읍교회에 거점을 마련하였다. 임정찬 목사가 맡게 된 산남지방 동쪽 6개 면은 제주도 전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이지만, 예배 처소로 모이는 곳은 조천리와 성읍리 두 곳뿐이었다. 기독교인 신자 역시 적어서 1917년에는 조천리에 신자 5~6인과 정의에 신자 10여 명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 신자들도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정찬 목사는 세화교회와 조천교회를 돌보며 오인권(吳仁權) 여전도인과 김연배(金年培) 전도인의 협력을 받으며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황해노회의 사정으로 임정찬 목사가 이임한 후 정의지역은 전남노회의 파송을 받아 산남지방에서 활동하던 이경필 목사가 겸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275)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322쪽.

1) 성읍교회

성읍리는 원래 조천에서 걸어서 반나절 거리에 있고 지금은 “성읍민속촌”으로 유명하지만 백여 년 전에는 “우뚜르”²⁷⁶⁾라 불리는 동쪽 제주의 중산간 지대에 있던 마을이다.

그러나 제주목 정의현의 소재지인 탓에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춘궁기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기도 하는 등 한때는 번영을 구가하던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 원래 장삿길로 드나들며 마을주민과 이미 친숙해진 조천교회의 천아나가 들어가서 목사 이기풍과 전도인 김홍련(金弘連), 이득방(李得芳)을 도와 성읍리교회를 일으켰다.

성읍교회의 설립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史記) 하권』에는 성읍리교회의 설립기록과 천아나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다.

1922년, 제주도 성읍리교회가 설립하다. 선시에 목사 이기풍과 전도인 김홍련(金弘連), 이득방(李得芳)의 전도로 정확석, 이학인, 강홍보, 강광은, 김보배, 강남서, 양범수, 유삼룡, 천씨 아나 등이 신종(信從)하여 천씨 아나는 초가 6간을 공헌하므로 기도회를 시작하였으며 시년에 교우가 출연하여 15칸 예배당을 증축하였으며, 황해노회에서 파송한 전도목사 임정찬이 전도사업에 다년간 노력하였다.²⁷⁷⁾

선교거점인 성읍리에서 기도회가 시작된 것은 1910년 말경 정삼용(鄭三龍)의 사가(私家)에서였다. 성읍리 모임이 독자적인 집회소를 갖게 된 것은 서양귀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 성읍리로 옮긴 천아나의 헌신 덕분이었다. 조천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그녀는 성읍리에서도 자신의 초가 6간을 예배당으로 바쳐 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²⁷⁸⁾ 그 시점은 대략 1914년경으로 보인다.

쓸만한 예배당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성읍리 모임은 성장하지를 못했다. 이기풍 목사가 건강 이상으로 제주를 떠나게 되자 초기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타락하여²⁷⁹⁾ 중간에는 집회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척외(斥外) 사상이 강한 이곳에서 핍박을 각오하고 모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지도자의 결여가 그 주된 원인이

276) 제주도에서는 중산간마을을 이렇게 부른다. 대부분 용천수(湧泉水)가 분출이 안 되므로 빗물을 받아 식수로 쓰곤 했는데 귀한 물 탓에 제대로 씻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해안마을 사람들로부터 경시(輕視)를 받기도 했다.

277)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319~320쪽.

278) 김창규, 『조천 교회 90년사』, 미간행 113쪽.

279) 이기풍 목사로부터 처음 세례를 받은 초기의 신자인 김보배 양경수 이정희 강광춘 등의 타락한 흔적이 이 여기저기 있었으며 교회설립이 안 되다가 임정찬 목사가 1922년에야 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천아나와 같이 출동(黜洞)을 각오하고서라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고백 할 정도의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지 못한 탓이었던 것 같다.

그 뒤에 황해노회의 파송을 받은 임정찬 목사가 부임하여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몇 명의 초신자들과 더불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부터 시작했다. 사역 후 2년이 넘어서야 겨우 한 사람의 세례교인을 세운 것으로 보아 그의 초창기 선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성읍리 모임이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선교적 정지작업이 끝난 1920년에 들어서고부터였다. 이때 그는 비로소 6명의 학습 교인을 세울 수 있었다. 그의 노고가 가시적인 결실로 보상을 받은 것은 1921년 이후였다. 1921년 1월부터 1922년 8월 16일까지 임정찬이 세례를 베푼 교우들의 수는 18명이나 되었다.²⁸⁰⁾ 그가 제주도를 떠나기 얼마 전인 1922년 성읍리 모임은 정식교회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고무적이었던 것은 장차 성읍리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좋은 일꾼 한 사람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름은 김일석이었다. 그가 임정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봄이었다. 본래 유교적 관습에 따라 살던 그였으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는 옛 사술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신자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기독교신보는 아래와 같이 증언한다.

제주도 동중면(東中面) 성읍리 북문 외에 사는 김일석 씨는 본디 유도(儒道)에 침잠하여 관습을 벗어나기 난(難)한 중에서 깨닫고 나와서 주를 믿기로 작정한 지 불과 두주일 만에 모친상(喪)을 당하매 친척 친구들이 모여들어 예전 법대로 장례 지내고 3년 상(喪)하기를 권하여도 듣지 아니하매 꺾박이 여간 아니었으나 씨와 씨의 부인은 끝까지 이기고 났으며 세속의 무실(無實)한 것을 들어 힘써 모든 사람에게 전도까지 하였더라.²⁸¹⁾

김일석과 그의 부인 강석천은 1921년 7월 학습을 받았고, 1922년 3월엔 세례를 받아 정식 교인이 되었으며, 김일석은 1925년 영수(領袖)로 추대되어 성읍리 교회와 동(東)지방 교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성읍교회는 제주의 여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가 극심했다. 미신과 성

280) 임희국, 김석주, 『제주동지방회록』,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8), 85쪽.

281) 기독교신보 1921년 6월 1일 자.

적(性的)인 도전이 심한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의 배도(背道)로 출교(黜教)를 당했고, 성적 문란으로 권징(勸懲)을 받았다. 1920년 4월 4일에는 성읍리교회 교인 이정희를 책벌 받은 지 2년이 되도록 회개 아니함으로 출교²⁸²⁾ 시켰다. 1921년 2월 27일에는 성읍리 교회 양경수가 “제7계”를 범한 고로 그 범한 당사자를 불러 물으니 이실직고하여 증거가 분명하나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은밀히 증거하고 성찬에 불참케 하여 은밀한 책벌 하에 두었다.²⁸³⁾

임정찬은 이런 엄한 책벌을 통해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다. 성읍리 교회에서는 19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경필 목사 인도로 “지방소사경회”를 개최하였다.²⁸⁴⁾

19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성읍리 예배당에 회집하여 지방소사경회를 개최하고 목사 이경필 씨가 성경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교수하며 매일 새벽기도회까지 인도하였는데 학생은 남녀 간 38인이 공부하였으며 12월 3일 주일에 성찬을 거행하고 폐회하다.²⁸⁵⁾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임정찬이 성읍교회 순회사역을 감당하다 임정찬이 이임한 뒤에는 이경필이 그 책임을 받았다. 1914년부터 1922년까지 『제주동지방회록』에 기록된 성읍교회 순회사역은 다음과 같다.

〈표 10〉 성읍교회 순회일지(1914~1922)

순회목사	방문일시	세례문답 및 세례	학습문답	기타
이기풍	1914, 4, 18	정학석, 이학인, 강홍렴	양경수, 이정희	
윤식명	1914, 10, 15	양경수, 이정희, 강광춘, 김보배		
임정찬	1918, 11, 3	송인석		
임정찬	1920, 3, 7		조영국, 김상두	
임정찬	1920, 4, 4			이정희 출교, 서리집사임명 강남서(3년)
임정찬	1920, 5, 16		이강량, 강성보	현석신 학습 유보
임정찬	1920, 6, 29	강봉은(3세) 유아세례		

282) 임희국, 김석주, 『제주동지방회록』,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8), 43쪽.

283) 위의 책 57쪽.

284) 위의 책 101쪽.

285) 위의 책 103쪽.

임정찬	1920, 10, 31		현석신, 김봉우	
임정찬	1921, 2, 27			양경수 책별
임정찬	1921, 7, 31	현석신, 김봉우, 김성애		
임정찬	1922, 3, 11	김일석, 강석천, 이천길, 황경화		조계선 세례유보
이경필	1922, 5, 12	임정찬 2녀 순애(3세) 4남 기두(1세) 유아세례		
임정찬	1922, 5, 12	이경량, 김수만, 이성신 김경옥(4세) 유아세례	김이옥, 김경석	서리집사임명 김달호(2년) 김일석(3년)
임정찬	1922, 6, 21			황경화, 강성보 책별
임정찬	1922, 8, 16	정학중, 김강석, 김민화, 김이옥, 조계선 송순희(3세), 송순아(1세) 유아 세례		

2) 조천교회

1908년에 제주도에 도착한 이기풍은 성내에 근거지를 두고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랑말 순회전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조천교회의 역사는 이기풍 목사가 조랑말을 타고 조천관에 이르렀을 때 천아나(千亞拿)와 강용식 등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 개신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볼 때, 이기풍 목사의 사역과 제주의 선교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조천리 출신의 천아나이다.

조천교회의 설립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上)』에는 조천교회의 시작과 천아나에 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주도 조천리교회(朝天里教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時)에 노회(老會)에서 파송한 전도사(傳道師) 이기풍(李基豐)의 전도로 천씨 아나(千氏亞拿)가 먼저 믿고 신자가 증가하므로 천씨는 자택을 예배당(禮拜堂)으로 기부(寄附)하여 교회를 설립하니라. 286)

286)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上)』,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336쪽.

천아나가 신앙에 입문한 시기는 1908년 말경인 것으로 보인다. 『조천교회90년사』에서 김창규는 그녀에 대해 비교적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천교회의 첫 열매이며 자랑인 천아나는, 1852년 3월 4일²⁸⁷⁾ 조천리에서 서당(書堂) 훈장(訓長)이던 아버지 천만돌(千萬鬍)과 어머니 이득신(李得信)²⁸⁸⁾사이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여자로서는 흔치 않게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는 특권을 누렸다. 조천교회에 출석하는 김극배 어른의 증언²⁸⁹⁾에 의하면, 그녀는 조천리에서 고랫들을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 별명이 “고래동장”²⁹⁰⁾이라는 별명을 가진 고모 씨와 결혼했지만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범했다 하여 소박(疏薄) 당하였다. 그 후 함덕의 김모 씨²⁹¹⁾와 재혼했으나 오래가지 못해 다시 소박 당하게 되었다.

남성 위주의 유교 도덕에 의해 처절하게 유린당한 그녀는 연명을 위해 탕건을 뜨거나 샴바느질을 했고 때로는 술을 빚어 내다 파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팔을 걷어 부치고 일한 결과 그녀는 집도 장만하고 재물도 넉넉히 모으게 되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독신녀로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그녀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천아나는 자신을 속박하던 세속의 고통을 과감히 끊고 신앙을 선택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57세였다.²⁹²⁾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천아나는 열렬한 전도자로 변신했다. 먼저 그녀는 술을 빚어 파는 일을 포기했다. 그리고는 제주도의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증거 했다.

교회에 출석한 후 천아나를 지도한 사람은 평양에서 파송된 여 전도인 이선광이었다. 이렇게 1909년 천아나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기념으로 자신의 처소를 예배당으로 헌납하기에 이른다.

287) 어떤 사료에는 출생일을 1858년 1월 16일생으로 기록한 자료가 있으나 그녀의 제적등본의 것인 “개국 461년(嘉永 5년)”을 기초로 작성함.

288) 여자이름을 포기할 때는 성(姓)만 포기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천아나의 독호(獨戶)를 만들면서 어머니 이름을 “얻을 득(得), 믿을 신(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예수를 믿은 후에 지은 이름으로 보임.

289) 1910년생으로 신명의숙을 수료하였고 조천교회의 초기 주일학교 학생으로 조천리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3·1만세운동의 조천지역 주동자인 김연배, 김유배의 일가친척으로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남달라 어릴적인 1915년 이후의 조천교회 초기모습을 생생히 증언하였다.

290) 후손인 조천리 거주 고영태씨의 증언에 의하면 말이나 소를 이용하여 연자방아를 돌릴 때 그 큰 고랫들을 혼자 힘으로 들어 올렸다고 해서 얻어진 별명이라고 하며 김극배 씨의 증언도 똑같다.

291) 남편의 아들은 “함덕리 1518번지 김천수(金千水)”로 천아나가 소천할 시에 면사무소에 사망신고 등을 맡아 했음.

292) 김창규, 『조천교회 90년사』, 미간행, 12쪽.

〈표 11〉 천아나가 이기풍 목사에게 기증한 조천리 2441번지 대지



▲ 지번 좌측에 수기로 소유자 이기풍 글자가 선명하다.

이곳이 조천리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계낭개 예배당이 세워진 자리다. <출처-조천읍 역사문화지>

이런 천아나에게 이기풍 목사는 ‘구약성경 사무엘 상’의 1~2장에 나오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한나”가 여호와께 드리던 그 간절한 서원(誓願)이 천아나의 서원이 되고, “한나”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아들 사무엘을 잉태한 것 같이 천아나도 은혜를 입으라는 뜻에서 “한나”의 한문 표기인 “아나(亞拿)”를 그녀의 이름으로 붙여 주었다.

천아나는 제주선교 초기에 흔치 않은 치유(治癒)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는 이를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였다. 그는 조천마을에서 서양 귀신 들렸다고 공개적으로 쫓겨나서부터는 정의현 성읍리로 근거지를 옮긴다. 기록에 따르면, 조천에서 이주해 온 천아나가 초가 6칸의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바쳐서 성읍 교회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²⁹³⁾ 법환리교회 역시 성립기에 윤식명 목사 등과 더불어 그가 협력전도하면서 열매를 맺었다.

이처럼 천아나는 소박과 출동(黜洞)의 아픔을 극복하고 57세에 섬기던 조천교회를 처음 사랑으로, 그다음은 60세 넘은 나이에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궈낸 성읍리교회와 60대 중반을 넘어 복음의 마지막 남은 불씨마저 아낌없이 태운 법환리교회를 사랑했다.

천아나는 1921년 조천교회로 돌아왔는데 그의 모습은 1921년 5월 28일 임정찬 목사가 기록한 『제주동지방회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천아나(70세)는 집사인 이관

293) 『조천읍 역사문화지』, (제주:일신읍셋인쇄사, 2011), 613~614쪽.

문, 김연배 등과 함께 직원회에 참석하였다.

1921년 5월 28일 오전 10시에 조천리교회에 세례 및 학습 문답하기 위하여 본 지방 목사 임정찬(林貞燦)씨가 예배당에 회집하여 기도로 개회하니 참석자는 집사 이관문(李寬文) 김연배(金年培) 천씨 아나(千氏亞拿) 이다.

1922년경에는 임정찬목사가 성읍으로 목사사택을 정하기 전에 꾸며 놓았던 계낭개예배당 바깥채의 작은 방인 ‘협실’을 천아나(71세)가 임시 거처로 삼아 1930년 9월 2일 오후 6시, 79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²⁹⁴⁾ 때까지 숙소²⁹⁵⁾로 삼았다.

조천교회의 처음 교인들

조천교회는 1909년에 세워진 이래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임정찬 목사의 부임 당시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신정일이었다. 황해노회에서 조천교회를 담당 전도 구역으로 맡은 1918년 6월 9일에는 임정찬 목사가 그를 3년간 정기 집사²⁹⁶⁾로 세웠다. 신정일은 『제주동지방회록』에 기록된 최초²⁹⁷⁾의 남자 집사이다. 그는 교회를 잘 받들다가 1922년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부도덕한 행위였다. 그 사유가 1922년 6월 17일 『제주동지방회록』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7계를 범한 증거가 분명한 까닭에 ‘광고 책벌’하기로 하다.”라고 하였다.²⁹⁸⁾

신정일의 예를 통해 초기 제주교회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켰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주동지방회록』에는 ‘첩을 얻었거나, 음주, 도박, 구타,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타인과 시비를 벌이고 자기 처를 집 떠나게 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도 즉시 책벌하여 광고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수십 명을 처벌한 이 서릿발 같은 제주 초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엄격한 교회의 훈련과 권징으로써 교회의 기강을 살리고, 교회의 강력한 치리 지침을 수행한 선조들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294) 김극배의 증언으로 조천에서 소천하였고 일가친척 중에서는 조천교회의 초기교인인 천재석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295) 조천리 2575번지에서 소천한 것으로 되어 있음

296) 계산하면 1920년까지가 된다.

297) 천아나는 이미 1910년 이후 제주도 전 지역을 돌며 교회설립의 산파역을 담당한 탓으로 본교회에 상시 거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조선시대의 유교도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자를 앞세워 교회 일을 돌보게 하는 것을 주저한 것 같다.

298) 임희국, 김석주 편역, 『제주교회 동(편)지방회 및 동지방제직회 회록』 (서울:도서출판 케노시스 2018), 79쪽.

〈표 12〉 조천교회 순회일지(1914~1922)

순회목사	방문일시	세례문답 및 세례	학습문답	기타
이기풍	1914, 4, 26	한순명, 윤보원	김대근, 신두석 김영애, 문정순 김씨(광순 처) 황씨(신정일 처)	
이기풍	1915, 5, 1	김씨(광순 妻), 황씨(신오남 母)		
임정찬	1918, 6, 9		이관문	신정일(서리집사임명)
임정찬	1918, 10, 30	이관문, 김유배, 강관애, 윤익신		책벌
임정찬	1919, 2, 23		김연배, 김창희	
임정찬	1919, 6, 29	임정찬 子 승두 유아세례		
임정찬	1919, 12, 28	김연배, 전창희, 이성옥	송상숙	
임정찬	1920, 2, 29		김갑생, 부달희	
임정찬	1920, 5, 2		양철년	전창희(성서공회권서 피임)
임정찬	1920, 10, 10	김주경	김두선, 홍종원 김순배, 천재덕 김혜경, 고성선 주성옥, 고보배	김연배, 이관문 서리집사 피택
임정찬	1921, 5, 28	김보인, 고창산, 김두선, 양철년 홍종원, 김순배, 김혜경, 고보배	주봉옥, 김창신 이기선, 김신순 기문희, 김경성 김지율, 고신생	
임정찬	1922, 3, 18	주성옥, 김갑생, 이기선, 김신순, 홍승규, 김자율, 김순희	김선애, 강기명 김성순, 고성의 한 순, 김봉순	김유배 출교 책벌
임정찬	1922, 6, 7		김이옥, 김경석	신정일 출교 책벌
임정찬	1922, 8, 19	김경생, 김기명, 김선애, 주봉옥 김병기, 고성의, 김성순 김정애(1세), 전애(5세)유아세례	신예중, 김구화 김기성, 양운선 김인애	
이경필	1922, 11, 12	김봉순, 김인애, 신예중, 양운선		

3) 세화교회

세화리 지역은 부상규의 개종과 전도로 산남지방 동편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기초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상규는 목포의 프렌치 병원(French Hospital)에서 치

료를 받으면서 개종하였고, 이후 부산에서 호주 장로교 선교사 앵겔(George O. Engel: 왕 길지)에게서 학습을 받았다. 1908년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도착하자 그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으며, 아내와 자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도하면서 결신자들이 생겨났고,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1918년 무렵이었다.

세화교회의 설립

이처럼 세화교회는 부상규의 전도로 1918년 “한동리처소회”로 출발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하권에는 세화리교회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18년 제주도 세화리교회를 설립하다. 선시(先是)에 한동(漢東)에 거(居)하는 부상규가 목포의사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후 부산에 왕(往)하여 선교사 왕길지(王吉志)에게 학습을 전수하고 산지포 목사 이기풍에게서 수세를 받고 귀가하여 인근에 전도하여 신자를 얻어 교회가 시작되었고 황해노회에서 파송한 전도목사 임정찬이 래도하여 전도할 때 부상규가에서 회집 예배하니라.²⁹⁹⁾

『제주동지방회록』에는 임정찬 목사가 1920년 12월 9일 구좌면 한동리처소회 부상규 家에서 문답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때 전도부인 이선광이 함께 동행했으며, 이날 부상규의 처 김상두(37세)와 부상규의 딸 부정순(16세)이 세례를 받았다.³⁰⁰⁾

이렇게 좋은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부상규는 가정불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다. 1922년 8월 7일 임정찬 목사는 조천교회 집사 김연배와 성읍리교회 전도인 조영국을 대동하고 세화리교회를 방문했다. 그는 히브리서 10장 26~39절의 말씀으로 설교한 후 아래와 같이 엄격한 책벌을 선고하였다.

“부상규 내외가 쟁투, 구타하기를 누차 함으로 개인의 치욕 거리가 되므로 부상규는 집사 직분을 면직하기로 하고 부상규의 처 김상두는 3개월간 책벌 하에 두기로 작정하고 10일 주일에 광고하기로 하다.”³⁰¹⁾

이와 동시에 최문안을 집사로, 고창천을 권찰로 임명하여 교회의 기틀을 확립했다. 같은 해 가을 최문안은 세화리에서 일금 60원으로 초가삼간을 매입하여 교회에 헌납함으로써, 1922년 9월에 이르러 한동리 기도처가 세화리교회로 발전하였다.

징계를 받는 동안 부상규 내외는 철저히 반성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299)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539쪽.

300) 임희국, 김석주, 『제주동지방회록』,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8), 55쪽.

301) 위의 책, 85쪽.

부상규는 약 10개월 후인 1923년 6월 2일 저녁 8시 30분 세화리 문헌주의 집에서 이 경필 목사와 이창규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부상규 내외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동지방회록』에 기록된 부상규 부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상규 처 김상두는 자기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모두 자기의 불찰로 인하여 가장 이 면직을 당하고 권징 아래 있게 되었다고 일일이 자복함과 2. 부상규 씨는 아내를 구타하며 지방목사 임정찬 씨를 후욕함에 책벌 당함은 자기 죄인 줄 자각하고 금번 수 별함으로 앞에 신행에 다대한 유익을 각오하였다고 일일이 자복함으로 위 부부를 해별한 후 교회에 광고하고 함께 성례에 참례하기로 하고 성례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다.³⁰²⁾

부상규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후 부상규 내외의 회심은 세화리교회를 더욱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세화리교회는 1918년 설립되어 한동리처소회로 불리다 교회 건물을 완성한 후 1922년부터 세화리교회로 칭하게 되었다. 세화리 교회는 예배처소에서 예배당으로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세화리교회는 이후 『제주동지방회록』에도 “**세화리교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22년(壬戌) 제주도 세화리교회에서 본리인(本里人) 최문환이 신종하고 60원으로 초가를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기부하니 此時로부터 예배당을 본리에 이전하여 세화리교회라 칭하게 되었으며, 목사 이경필과 영수 부상규가 전도하여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³⁰³⁾

이렇게 해서 임정찬 목사는 성읍교회, 조천교회, 세화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5년간 충실하게 전도활동을 감당하였다. 그는 당시 정의지방의 중심지인 성읍에 거점을 마련하고 여 전도인 오인권, 김년배(金年培) 전도인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였다. 1922년 가을, 황해노회의 소환으로 오 전도인과 함께 황해노회로 귀환하였다.

302) 위의 책, 115쪽.

303) 위의 책, 55쪽.

〈표 13〉 세화교회 순회일지(1920~1922)

순회목사	방문일시	세례문답 및 세례	학습문답	기타
임정찬	1920, 12, 19	김상두(부상규의 처) 부정순(부상규의 딸)	양경수, 이정희	
임정찬	1922, 8, 7			부상규 집사직분면직
임정찬	1922, 9, 2	문현주, 문평권, 고일근, 정신석	송석신, 고정운 마유탉, 최성화	
이경필	1922, 12, 5			성찬식

이 시기 교인들의 특징

1920년까지의 제주도 교회의 모습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20년까지의 제주도 교회는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인한 좌절에서 벗어나 자립의 단계로 들어서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사이에 제주도 교인들의 헌신적인 헌금, 곧 주택을 바치거나 거액의 헌금을 드림으로 예배당 신축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산북지방의 거점인 성내교회와 산남지방의 거점인 모슬포교회가 각각 예배당 신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였다.

둘째, 이 사이에 제주도 교회는 교육을 통한 교회와 교인들의 부흥을 꾀하여 야학과 사숙 그리고 유치원을 설립하여 무학자들의 한글 교육과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시도하였다.

셋째, 이 기간에 제주도 교인들은 제주도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제사와의 마찰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넷째, 이 기간에 제주도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교육을 통하여 성장함으로써 1920년대 후반 제주도 출신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도종, 김재선, 강문호 이상 3명의 목회자는 장차 제주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초기 제주도 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자면, 제주의 교인들은 각 지역에서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자신의 가옥을 예배당으로 혹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을 헌금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앙의 큰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표 14 참고〉

대표적인 교인들은 용수교회의 김기평, 삼양교회의 오주병, 조천교회의 김연배, 성읍교회의 김일석, 그리고 두모교회의 김관점 등을 들 수 있다.

〈표 14〉 초기 제주교회 신자들의 기부 일람

지방	교회	헌금자	기부내용
제주 (산북)	금성	이덕련	가옥 1채
	성내	강대유	밭 헌납
	성내	홍영진	교회 중 구입자금 50원
	삼양	오주병	가옥 1채
	수원(한림)	김홍수	가옥 1채
대정 (산남)	모슬포	최정숙	건축 및 전도비 수백 원
	용수	이봉춘	예배당 부지 60평 기증
	법환	강한준	예배당 건축자금 325원
	협재	임수가	가옥 1채
정의 (동지방)	조천	천아나	가옥 1채
	성읍	천아나	가옥 1채
	세화	최문환	가옥 1채

제주교회 초기 사역자의 종류와 명칭

1891년 북장로회 한국선교회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선교회 규칙과 부칙”을 보면 ‘본토인 사역자’(native agents)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1. 본토인 사역자는 영수(leaders), 장로(elders), 집사(deacons), 권서(colporteurs), 조사(helpers), 전도부인(Bible women), 강도사(licenciates), 전교사(evangelists), 목사(pastors)로 한다. 장로, 영수, 집사는 급료를 받지 않는다.
2. 영수(leaders)는 해당 교회의 회중이 선택하거나 담당 목사가 임명하는 본토인 교인으로, 정기예배 인도자가 없을 때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임무를 지닌다.
3. 장로와 집사는 성경에 명시된 교회의 직분으로 장로회 정치 형태에 정의되어 있다. 그들은 오직 교회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후, 선교지부의 허락을 받아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안수한다.
4. 권서(colporteurs)는 책과 소책자의 반포인이나 판매인이다. 선교지부의 투표에 의해서만 임명되며 기독교인의 인격과 반포하는 책에 대한 지식과 사업 열성에 대한 만족

스러운 증거가 있을 때만 임명한다.

5. 조사는 선교사에게 부속된 기독교인으로 선교사 또는 목사의 사역을 특별히 조력한다.
6. 전도부인은 기독교 문서의 반포와 성경 강의를 위해 고용된 기독교인 여성이다. 선교지부의 투표로 임명한다.
7. 강도사는 선교회나 노회가 특별한 때에 설교할 권위를 준 자이다.
8. 전교사는 선교지부가 특정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임명한 자이다.

안수하는 장로와 집사 외에 임시로 만든 직분이 많았다. 영수, 조사, 강도사, 전교사 등이 전통적인 장로교회 직분에 없는 선교지 상황에 따른 임시직이었다. 외국인 선교사(宣教師, missionary)에 대조되는 용어로 전교사(傳教師, evangelist)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선교지부가 있는 한 도시 안에서만 설교하는 안수 받지 않은 한국인 목회자를 지칭했다. 이와 달리 조사(助事 helper)는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였으나, 한 선교지부를 순회 전도하면서 선교회와 예배처소를 돌보았다. 반면 감리교회에서는 전교사나 조사 대신 본처전도사(本處傳道師, local evangelist)란 말을 사용했다. 본처전도사란 말에서 오늘의 전도사란 말이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서공회가 지원하는 권서(매서)는 개척 전도인으로 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시골에서 사역했다. 권서가 영수나 조사가 되고, 조사들이 1900년대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첫 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장로교회 첫 목회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준다.³⁰⁴⁾

초기 제주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권역 내의 교회들을 매주 방문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산북지방을 맡은 이기풍 목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10여 개에 이르는 시골교회나 예배 처소를 매 주일마다 순회할 수는 없었다. 봄, 가을 두 차례 정도 방문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이때 겨우 세례나 성찬식이 이루어지곤 했다. 목사가 방문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주일은 전도인이나 조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했고 전도인이나 조사마저 오지 못할 경우에는 장로가 세워진 교회는 장로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던 미조직 교회나 기도처소 형태의 교회들은 영수가 돌보았다.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교회는 집사가 목회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순회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다니며 목회를 하던 당시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교회와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직분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법환교회 강은중 장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304) 옥성득, 『첫 사건으로 본 초대한국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짓다, 2016), 260~261쪽.

“그때는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집사나 장로가 설교를 하곤 했는데, 우리 아버님(강정운 장로, 당시 집사)이 자주 설교하시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조선선교 초기에는 주로 선교사를 돕는 조사(助事)³⁰⁵를 비롯해, 전도부인들, 그리고 교회 치리의 권한을 지닌 영수(領袖)의 직책이 있었다. 조선선교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비우스 선교정책 이었는데, 그 지침 가운데 ‘**모든 신자는 그룹영수와 순회 조사 아래서 조직적인 성경공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훈련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직접 지역 순회를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점차 자신들이 훈련한 조선인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은 관리,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세워진 조선인 사역자들이야말로 선교 초기 가장 실질적인 교회의 개척자들이었다.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역자들이었다.³⁰⁶

한편 선교부 또는 지역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역교회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조사, 권서인, 전도부인이 상근사역자들이라면, 영수와 집사는 급여를 받지 않고 교회 내의 신자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담당했던 비상근사역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상근사역자들과 비상근사역자들은 선교사, 또는 목사를 중심으로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주의 각 지역에 하나하나 신앙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과정에는 바로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다.

뒤에 나오는 김홍련, 이선광, 김창문, 김형재, 강병담 전도인 등이 제주선교 초기에 이기풍 목사와 협력하여 금성리교회와 조천리교회를 나누어 돌보았고 각 지역을 다니며 전도에 매진하였다. 또한 조천교회의 첫 번째 조사이자 장로가 되는 이재순과 광주 봉선리교회에서 파송한 원용혁, 광주부인회에서 파송한 김경신 등도 이기풍 목사, 윤식명 목사를 도와 모슬포교회와 중문리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공헌한 인물들이다.

맺는말

지금까지 1908년부터 1920년까지 제주 초기 교회의 설립과 확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기풍 목사가 혈혈단신(孑孓單身)으로 제주선교에 뛰어든 1908년부터 1915년까지

305) 조사(helper),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것이 주 역할로 지금의 전도사 개념.

306) 최동규, 『초기 한국교회와 교회 개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295쪽.

의 역사는 제주선교의 개척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기풍 목사가 제주를 떠난 1915년부터 윤식명 목사가 활동하는 1922년까지는 제주선교의 기반(基盤)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기풍의 뒤를 이어 제주선교를 담당하던 윤식명이 1916년 총회에 보고한 것처럼 이 기간의 제주선교는 “**곤란 중 희망**”이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다. 선교의 토대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간 몇 가지 두드러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에 파송되어 제주선교를 희생적으로 감당한 일이다. 물론 이 기간에 이기풍 선교사만 사역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동역자(同役者)의 협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협력이 제주 복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지만 마뻬의 턱을 깨뜨렸던 바로 그 이기풍이 회심하여 첫 번째 목사가 되고, 제주선교를 감당하게 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회와 총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다. 한국교회는 노회와 총회적인 차원에서 제주선교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여겼다.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착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서 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한 영적 뒷받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해외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총회가 주도하던 제주선교를 1913년부터 전라 노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총회적인 차원에서 감당하는 것과 노회적인 차원에서 감당하는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총회가 감당하던 제주선교를 전라노회가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제주교회의 교세는 증가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제주교회 스스로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더 효과적인 선교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되고 말았다. 아쉬운 일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회, 적어도 남장로교 선교회 차원에서 제주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알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켰을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제주선교는 한국인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한 한국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준 것도 제주선교였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제주선교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선교였다.

VI. 결론

개신교의 제주도 전래는 기독교 복음의 진공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1908년 선교사 이기풍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제주도에는 이미 천주교의 공식적인 선교가 1899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1904년에는 개신교의 이호리 신앙공동체가, 그리고 1907년에는 금성리 신앙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신앙공동체는 개신교 선교의 토대가 되었는데, 이기풍 목사의 입도(入島)를 계기로 개신교 선교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초기 제주도 교회사에서 주목할 점은 1901년 발생한 신축교란이 현지인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축교란은 천주교와 현지인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이후 오랫동안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선교 사업에도 큰 지장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세 젊은이가 있었다. 이호리 출신 23세의 김재원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서울의 제중원을 찾았고 2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제중원에서 예비신 선교사, 의학생들의 헌신적인 활동, 그리고 서상륜 등과의 만남을 통해 개신교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가 이해한 개신교는 차별과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종교였다. 그는 제주도로 돌아와 자기가 체험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였고 이호리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금성리 출신 19세의 조봉호는 제주도의 민란을 직접 경험한 청년이었다. 그는 경신학교(당시 예수교 중학교)에서 수학하면서 교장인 게일 선교사와 여러 지식인을 만났다. 조봉호 역시 개신교를 분명히 인식하였는데, 그는 개신교 선교활동에서 근대화와 교육을 연결하였으며, 기독교 신앙과 애국에 깊이 관심하였다. 그는 제주도로 돌아와 1907년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시작하였다.

구좌면 한동리 출신인 부상규(夫尙奎)는 일찍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목포에 나갔다가 의료선교사 ‘포 의사(포사이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듣게 된다. 그 후 부산에서 왕길지 목사에게 학습을 받았으며, 1908년 가을 산지포에서 전도하며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었던 이기풍 목사를 찾아가 세례를 받음으로 제주 동부 지역 최초의 신자

가 되었다. 부상규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현대의술을 익혀 세화에서 성제의원을 개업하였고 세화교회를 창립하였다.

이처럼 한국장로교회의 공식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 제주도에는 자주적인 개신교 신앙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특별히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요청으로 1907년 독노회에서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해외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908년 2월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김재원의 안내로 1908년 5월 금성리 공동체를 방문하였다.³⁰⁷⁾ 이후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개신교 신앙공동체에서 나타난 특성을 통합하는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교활동의 방향을 적절히 설정했다고 하겠다.

그동안 제주도 교회사는 거의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의 초기 제주도 선교활동은 이호리와 금성리 신앙공동체의 필요와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주도의 상황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기풍 목사의 능력 전도 및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교육 및 의료선교 등은 현지인과의 협력 및 동역의 결과이자 두 신앙공동체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선교지에서 현지인의 필요에 다가가고자 애쓰면서 낮아짐의 영성을 견지했던 이기풍 목사의 선교방향이 주효했다고 보인다.

끝으로 초기 제주 개신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안착할 수 있던 성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초기 교회의 성장에 대해 선교사들은 “근대 선교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1831년 미국 회중교회가 18년 동안이나 선교를 했으나 아무 실적도 없이 철수하였다.

그런데 같은 아시아권이면서도 어떻게 제주의 교회는 선교 10년이 채 되지 않아 제주 전역에 1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백 명의 교인이 확보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초기 타 문화권과 비교해 제주선교가 잘 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제주에 소개될 무렵, 한국에는 강력한 국교(國敎)가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불교, 유교, 무교(巫敎), 등의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민족종교로 정착되지 못했다.

307) 전남노회 75년사 발간위원회, 『전남노회75년사』, 전남노회: 글벗출판사, 1993.

『전남노회75년사』에 의하면, 제주도 금성교회의 설립자가 이기풍과 김재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매서인 김재원의 역할을 기록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남노회75년사』는 김재원과 조봉호라는 두 인물과 이들에 의해 시작된 개신교 신앙공동체를 확인해주고 있다.

인도, 중국, 태국, 몽골 등 아시아 제국의 선교가 어려웠던 것은 그곳에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종교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주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함에도 강력한 민족종교가 없었기에 초기 제주선교가 비교적 쉬웠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제주에 개신교가 전파될 당시는 국가적으로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세계 각지의 열강들이 조선이라는 약소국에 군침을 흘리며 호시탐탐 침략의 구실을 찾던 때였다.

사람들이란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특별히 타력(他力)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정, 국가도 어려움에 봉착하면 도울 힘을 찾는 법이다. 따라서 제주 개신교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이 신앙의 전래 시기가 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한국인들의 전도열을 들 수 있다. 제주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 혼자만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갖도록 권고한다. 초기 교회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조건으로 내세운 몇 가지 가운데 ‘1인 이상 전도’ 항목을 둔 것도 전도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전도 열정으로 제주교회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

넷째, 제주교회 성장의 밑거름은 교인들의 기도 운동이었다. 제주의 재래 종교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종교는 무교(巫敎)이다. 무교의 기본은 기도와 정성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제주인들이 기독교에 귀의한 후에도 기도 관행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무속을 통해 습관 들여진 기도 습성은 이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의 교회는 사회개혁과 애국애족의 교회로 정착했다는 점이다. 제주교회는 초기부터 봉건적, 유교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회를 기초부터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다. 특히 여성의 인권 신장, 차별적 신분 제도의 철폐, 미신 타파 등의 사회개혁은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제주교회에 여성 교인들이 남성 교인보다 훨씬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한 인격자로서 존중받게 되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박을 당하고, 남편이 첩을 얻어 아들을 보는 현실 앞에 절망하던 여인들이 기독교를 통해 이런 잘못된 문화의 척결을 보면서 기독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교회는 권징(勸懲)과 치리(治理)에 철저하였다. 초기 제주에 부임

한 목회자들은 제주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에서 엄격한 청교도적 훈련을 시켜 교회법에 위반된 경우는 엄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제주 사회의 고질적 문제는 첩(妾) 문화였다. 조강지처가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두는 것은 당시 사회문화였다. 따라서 기독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 중 첩을 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고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다.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용인될 일이라도 교회에서는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사회문화 정화와 교회 내의 진리 실천을 위해 권장과 처리가 강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 선교를 힘들게 한 것은 제주선교를 담당하기 위해 부임한 전도목사들이 일정 기간을 채운 후에는 육지로 떠난 일이다. 선교지 제주는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주 선교를 지속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었을 것이다. 안식년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은 더욱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육지의 경우 한 지역을 전담한 선교사가 일생동안 한국교회와 지도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선교지에서 일생을 보냈던 것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룬다. 이기풍 선교사가 7년을 섬긴 후 제주를 떠났던 일이 이후 제주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하나의 전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제주 선교역사를 정리하면서 제주선교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과 함께하는 선교, 자신들이 신뢰하는 목회자가 제주에 뿌를 묻고 제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제주 선교는 달라졌을 것이다.

1915년,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를 떠난 것은 제주교회로서는 큰 손실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제주가 특수지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장차 자립하고 독립해야 할 국내 선교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주 기독교에는 새로운 기회였다. 그가 떠난 후 1920년까지 제주교회는 전국적으로 불어오는 시대적 변화와 맞서야 했다.

이제 제주는 단순히 선교지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아 가기 시작했다. 외세의 침략 앞에 민족주의적이고 자주적인 저항을 계속해온 제주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거족적인 민족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주 기독교는 한국교회 안에 불고 있던 민족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그것은 강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였으며, 자원하는 뜻에서의 동참이었다.

이것은 제주라는 선교지로서의 특수지역이 이제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대등하고 동등한 위치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피할 수 없는 단계였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가 전과된 1908년부터 1920년까지는 제주교회가 정착과 도약을 하는 소중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참고문헌

1. 사료

- 차재명,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上)』,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 차재명,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下)』,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독노회록(1907)』,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0).
- 김수진, 『양동제일교회100년사』, (서울: 콤파출판사, 1997).
- 김인수·박정환, 『제주성안교회 100년』, (서울: 도서출판 맘에 드림, 2010).
- 김인주·송중용, 『삼양교회 100년사(1915~2015)』, (제주: 태안인쇄사, 2020).
- 박창부, 『서귀포교회 80년사』, (서울: 콤파출판사, 2010).
- 신혜수, 『제주법환교회 100년사(1917~2017)』, (서울: 도서출판 맘에 드림, 2017).
- 이형우, 『모슬포교회 100년사(1909~2009)』, (서울: 고려인쇄공사, 2009).
- 임희국, 김석주 편역, 『제주교회 동(편)지방회 및 동지방제직회 회록』, (서울: 케노시스, 2018).
- 차중순, 『양림교회 100년사 I, II(1904~1953)』, (광주: 성문당, 2003).
- 차중순, 『제주기독교 100년사』, (서울: 콤파출판사, 2016).
- 홍창표, 『제주영락교회 60년사』, (서울: 온누리디앤피, 2012).

2. 저서

- 강재언 저, 정창렬 역, 『한국의 개회사상』, (서울: 비봉출판사, 1981).
- 고창석·강만생·박찬식, 『제주사 연표 I』, (제주: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5).
- 고영자 편역,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건문록(1845~1926)』, (제주: 제주시우당도서관, 2013).
- 고영자 편역,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도 향해·탐사기』, (제주: 제주시우당도서관, 2014).
- 고영자 편역, 『구한말 불어영어 문헌 속 제주도(1893~1913)』, (제주: 제주시우당도서관, 2015).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6권 부산』, (기독교문사, 1992).
- 김기석, 『남강 이승훈』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94).
- 김명구, 『한국기독교사 1~1945년까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 김봉옥, 『제주통사』, (서울: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 김수진, 『한국 초기선교사들의 이야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서울: 고려글방, 1992).

-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량을 딛고』, (서울: 쿤란출판사, 2010).
- 김인수, 『韓國基督敎會史』,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김재현,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서울: 카이스트, 2014).
- 김정기, 『제주도 크리스천 순례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 (서울: 금성문화사, 2016).
- 김찬흡, 『제주항일인사 실기』, (제주: 일신옵셋인쇄사, 2005).
- 류대영·옥성득·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上)』, 남만성 역 (서울: 서문당, 1975).
-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 연구』, (제주: 도서출판 각, 2003).
- 송현강,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8).
- 옥성득,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옥성득, 『첫 사건으로 본 초대한국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짓다, 2016).
-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이도종목사기념사업회,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종의 생애와 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2001).
-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이사례, 『이기풍목사의 삶과 신앙』, (기독교문사, 2006).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의사학과세브란스 독립운동사』, (서울: 역사공간, 2019).
-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4).
- 이찬영, 『격동기의 파수꾼』, (서울: 감람원, 2005).
- 임광원 서신, “제주성내교회 김재원 초대장로님에 대한 교회사적 입장에서 수정고찰을 건의합니다.”(1999년 4월 15일).
- 임경근, 『한국 교회사 걷기』, (서울: 두란노, 2021).
- 양국주, 『살아있는 성자 포사이드』, (서울: 서빙더 피플, 2018).
- 양창삼, 『조선을 섬긴 행복-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울: 서빙더 피플, 2012).
- 엘리자베스 언더우드, 『한국의 선교역사』,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7).
-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2』, (서울: 흥성사, 2016).
-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료집』, (제주:경신인쇄사, 2008).
- 최동규, 『초기 한국 교회와 교회개혁』,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최장일·고경태, 『오방선생 최홍중』, (서울: 바이블리더스, 2020).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1).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31운동과 기독교 민족대표 16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제주선교 100주년 제주노회 연혁』, (제주:제주노회 연혁출판위원회, 2008).
- 한인수, 『濟州宣敎百年史』,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0).
- 한인수, 『호남선교 초기역사』,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11).
- 한인수, 『호남교회 형성인물』,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9).
- 홍순균, 『110년의 발자취』, (광주: 도서출판 은혜, 2016).
- 홍성봉, 『제주선교의 첫 열매, 첫 장로 홍순홍의 신앙과 삶』, (제주: 도서출판 늘, 2008).
- 유동식,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1884~1992』, (서울:기독교대한감리회,1994).
- Annual Report of The Imperial Korean Hospital, Seoul, Korea (MethodistPublishing House, Sept. 1901).
- Baird, Richard H,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 김인수 역, 『배위량 박사의 한국선교』 (서울: 쿤란출판사, 2004).
- H. G. Appenzeller papers. “Diaries(1886~1901) chung-dong first methodis tchurch”
-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884-1934 (Seoul: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934).
- J. W. Nolan, “Korea Experience at Chunju”, The Missionary, October 1905.
- Mrs. Horace G. Underwood, “Concrete Christianity in Korea”, The Missionary, April 1909.
- O. R. Avison, Memories of Life in Korea, 박형우 편역, 『근대 한국 42년 1893~1935(下)』, (서울: 청년의사, 2010).
- Rev. W. F. Bull, “Era of Great Things in Korea”, The Missionary, September 1905.

3. 연구논문

- 고민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12.
- 고민희, 『제주 기독교의 선교 양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9.
-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제6집,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7.
- 김호욱, 『이기풍의 제주도 선교사 파송 과정 연구』, 『광신논단』 27권, 광신대학교 출판부, 2017.
- 김창현, 『이기풍 목사의 선교와 신학: 제주선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5.

-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 박용규, 「제주 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신학지남』, 2008.
-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선교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7.
-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9호, 2013.
- 박정환, 「제주도 개신교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1904~1930」,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변창욱, 「한국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 『선교와 신학』 제19집, 2007.
-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神學論壇』 제 28집, 2000.
- 서정민, 「제중원 선교공동체의 성격」, 『신학논단』 제30집, 2002.
- 심재국, 「제주 선교의 고찰과 선교의 주체로서의 제주 교회의 역할」,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6호, 2002.
- 이만열, 「서상륜의 행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기독교회사연구회소식(제19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8.
- 이아브라함병욱, 「선교문화방법론으로 본 이기풍의 선교 평가」, 서울기독교대학교대학원논문, 2009.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난 114년의 개신교 역사 가운데 1900년 무렵부터 이기풍 목사가 1차 사역을 마치고 제주를 떠나는 1915년과 그 이후 5년까지, 즉 개신교 초기 20년의 원형 질의 역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제주 개신교의 역사는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거대 담론의 우산 아래 놓여있었다. 따라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장로교회와 이기풍 목사를 비롯한 외부 전도인들의 활동은 크게 주목받았다. 반면, 제주도 현지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선교활동은 그다지 조명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초기 제주도 교회를 이끌었던 현지 교인들의 경험과 관계들을 좀 더 밀착하여 들여다봄으로써, 제주교회의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관찰의 대상을 제주 현지인 중심으로 설정함으로 기존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았던 접근 방식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개신교의 초기 역사의 정착 과정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김재원, 금성리 신앙공동체의 조봉호, 자발적으로 이기풍 선교사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세화리 신앙공동체를 만든 부상규,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를 돕기 위해 육지에서 동행하여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이선광, 김홍련 전도인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땅의 토박이로서 조천교회와 성읍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집을 팔아 기부한 천아나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법환교회 건축비를 5년간 기부한 강한준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도인들의 행적과 선교활동을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이들 초기 전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 제주민들의 고단한 일상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요동치는 제주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역사란 의미 없는 사실만으로 나열된 무미건조한 존재가 아니라 마디마디가 독특한 의미의 고리들로 엮어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주도 기독교가 어떤 의미의 고리들로 엮어져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오늘을 있게 한 ‘제주 교회의 처음 역사’와 신앙의 흐름을 연 관시켜 초기 기독교인들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를 서술한 김기봉에 의하면, “아래로부터의 역사”란 소위 역사가들이 재구성하는 공식적인 역사에 가려진 보통사람들의 기록 내지는 그들의 집단

기억을 발굴해서 그들의 역사를 되찾아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 교회 초기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의 행적과 역할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제 제주는 단순히 선교지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아 가기 시작했다. 외세의 침략 앞에 민족주의적이고 자주적인 저항을 계속해온 제주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거족적인 민족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주 기독교는 한국교회 안에 불고 있던 민족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그것은 강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였으며, 자원하는 뜻에서의 동참이었다.

이것은 제주라는 선교지로서의 특수지역이 이제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대등하고 동등한 위치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피할 수 없는 단계였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가 전파된 1908년부터 1920년까지는 제주교회가 정착과 도약을 하는 소중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이제 제주선교 100년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역사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제주선교 100년은 곧 한국선교 100년을 의미한다. 지나간 114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향후 100년의 노정(路程)을 계획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교회의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전개되는 제주 개신교 역사 해석의 주체는 선교사나 중앙의 시각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인 제주 현지인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서술되어야 한다. 선교의 역사는 선교활동과 관련 있는 수많은 당사자의 소리를 함께 듣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심단어 : 제주도 초기 교회, 이기풍 목사, 선교사, 자주적신앙공동체, 헌신